

SNS전법사 원빈 스님
'원빈' 처럼
신세대 사로잡는 포교할 터
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11월 9일) · 주간

제 970호 2013년 12월 11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사나우면 남들이 꺼리고
나약하면 남들이 업신여기니
두가지를 버리고 중도를 지켜라.

음주 등 잇달은 범계행… 불교계 '된서리'

범계불감증 한국불교, 대책 없는가

다시 범계 문제가 터졌다. 이번에는 조계종이 건립한 공익 연수 시설에서 스님들이 술자리를 열었고 일간지 신문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술자리를 가진 스님 중에는 연수원장 초격 스님(중앙종회의원 겸직)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2명이 포함돼 있어 지도층 스님들의 도덕성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앞서 중앙종회의원 무애 스님은 서울 조계사 인근 포장마차에서 여성과 술자리를 가져 공개 참회를 했다. 약 한달 사이에만 불교계 지도층 인사인 중앙종회의원 5명이 범계행위가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불교가 전반적으로 범계불감증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2012년 백양사 도박 사건으로 종단이 일대 홍역을 겪었고 자성과 쇄신 결사를 천명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범계불감증은 율학 관련 스님들과 학자들은 수행 속에서 계율이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 지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계를 경시하는 듯한 분위기가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은 "세간의 법을 변호사와 판검사만이 지키는 것이 아니듯이 계율은 율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스님과 불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계율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지계에 대한 인식 역시 미비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제도와 스님 자신 안의 감시체계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연이은 범계행위는 불교 안의 상호적 감시체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계율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내 안의 부처님, 집단의 시선, 처벌인데 지금 한국 불교엔 이 셋이 모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중대한 범계행위를 해도 언론에만 노출되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고, 집단의 시선이 외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계율과 현실의 괴리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조계종 스님에게 작동하는 계율과 법은 사분율, 범망계, 종헌 · 종법, 청규 등이다. 이들은 모두 그 양이 방대하고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제도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해서 현대적 종헌 · 종법과 전통적 율장을 일원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율장의 정신을 살리면서 현실적인 청규를 제정하거나 '승려법' 보완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계종 자성과 쇄신결사 추진본부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해 시대에 맞는 청규 제정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혜남 스님은 "부처님께서도 '소소계'에 대해서는 시비하지 말라고 하셨다"면서 "율장의 수백 가지의 계율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전

계율과 현실 상황 괴리
시대 맞는 규범 필요

개인 지계 의식 더불어
현실적 청규 · 법 보완돼야
"양형 기준 강화" 주장도

부 지키기 어렵다면 그 정신을 벗어나지 않고 새로운 규범과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대에 맞는 청규 제정과 법 보완과 함께 범계 행위의 평등한 처벌과 기준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이자랑 동국대 HK연구교수는 "안 지켜도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는 청규와 법은 무용지물"이라며 "만들어진 규범과 제도를 꼭 지켜야 한다는 의식과 이를 어겼을 경우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도흠 교수 역시 "무엇보다 벌이 공정하고 엄정해져야 한다"면 "지도층 승려들의 범계 행위를 일벌백계하고, 계율을 현대화하고, 집단의 시선이 계율을 지키는 쪽으로 전환하도록 승풍을 진작하는 문화운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 칼럼 31면



종정 스님과 석학의 만남 수행과 학문분야에서 각자 깊이를 더해온 수행자와 학자가 만났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미국 오바마 정부의 명예장관인 이홍범 박사는 12월 6일 부산 해운정사에서 환담을 가졌다. 이날 환담에서 진제 스님과 이 박사는 평화로운 세계 구현을 위한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데 불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 박사는 오바마의 '키친 캐비닛'으로 국정자문역할을 맡고 있다. 사진=박경수 부산지사장

"요익중생 정신으로 세상을 밝혀주십시오"

종정 진제 스님 예방한 오바마 정부 명예장관 이홍범 박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 대통령과 격의없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지인으로 여론 통로 역할을 함)인 이홍범 박사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예방했다.

한국이 동아시아 문화의 원류라고 주장한 이홍범 박사의 저서 〈아시아 이상주의 (Asian Millenarianism)〉는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역사 필독서로 지정되어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 책을 읽고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 박사를 명예장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12월 6일 부산 해운정사에서 이뤄진 만남에서 진제 스님과 이 박사는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평화를 앞당기기 위한 종교 역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남북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운을 뗀 진제 스님은 "미국에 방문했을 당시 여러 종교인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다. 불교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다"며 "미국인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개방성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홍범 박사 역시 한국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주변국들의 행보를 보며 시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세계 패권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며 "이는 역사정신에 있으며 한국을 일으키고 인류에 새로운 정신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것은 불교"라고 말했다.

YTN 미래전략 포럼서
창조경제 특별강연

12월 5일 동국대 강연서
"無我투쟁이 평화 도래" 주장
불교가 역사정신 선도 가능

진제 스님 또한 "종교인들이 세계평화를 앞당기기 위해 앞장 설 필요가 있다"며 "내년에는 로마 교황 등 종교인들이 만나서 남북평화를 논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홍범 박사도 "불교의 요익중생 정신을 되살려 세계에 지혜의 등불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12월 5일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사상'이라는 주제로 이 박사의 초청강연이 열렸다.

이 박사는 "유아에 집착하는 역사와 정치 탓에 세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필요한 역사의식이 불교의 무아를 차용한 무아투쟁"이라고 역설했다. "모두를 위해 자기를 버릴 수 있는 무아의 자아투쟁을 할 때 위대한 자유, 홍익주의를 기반으로 한 세계민주주의 또한 도래한다"고도 덧붙였다.

이홍범 박사는 지난 12월 3일 국내외 석학을 초청, 한국의 비전을 구상하는 의미에서 기획된 '2013 YTN 미래전략포럼' 참석차 방한했다.

강연에서 이 박사는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국민 단합과 정치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외교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미국과 독일, 이스라엘과 같이 민주주의 위에 원천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창조경제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범 박사는 오는 12월 17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국정운영에 대해 조언할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중앙종회, 승풍실추 의원 조사한다

의장단 연석회의 5일 결의… 관련자 5명 조사

최근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잇따른 승풍실추와 관련해 중앙종회가 진상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는 12월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0차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종회의원 스님들의 승풍실추 사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스님들은 호법분과위원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장단에 보고할 것을 결의했다. 중앙종회 차원의 징계 여부 및 수위 역시 특위의 결과보고 이후 의장단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는 연수원 술자리 사태와 관련된 초격 스님과 의원 2명이며, 조계사 인근 대중 주점에서 여성과 술을 마신 무애 스님, 여직원 성추행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각림 스님, 총 5명이다.

이와 함께 연석회의는 내년 3월 임시종회에 청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청규위원회는 국회윤리위원회와 같이 종회의원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잇달은 성추문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 종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특강을 개설하기로 했다. 인권특강은 3월 임시종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종회의장 향적 스님을 비롯해 부의장 정묵, 법안 스님, 총무분과위원장 일문, 교육분과위원장 혜림, 포교분과위원장 장명, 사회분과위원장 대오, 재정분과위원장 성월, 인사심의특위원장 성직, 사무처장 경우 스님이 참석했다.

한편 종회의장 향적 스님은 12월 5일 열린 중앙종회의원 연수에서 일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밤샘 술판을 벌인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향적 스님은 "지난 11월28일 저녁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일부 스님들이 불음주계를 범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당시 자리에는 몇몇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돼 종단을 비롯한 중앙종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종회 의장으로서 종도들과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며 유감의 뜻을 밝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범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앙종회의원들은 자성과 함께 탁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천태종, 2014년 예산 187억원 확정

95차 종의회서 결의… 올대비 9.2% 증가

천태종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9.2% 증가한 187억 4982만 5000원(일반 예산 119억 6584만 5000원, 재단법인 예산 67억 8398만원)으로 확정됐다.

천태종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는 11월 30일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제95차 정기 종의회 본회의를 열고 2014년도 종단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일반예산 중 중앙종무기관 예산은 올해보다 9.2% 증가한 119억 6584만 5000원, 재단법인 예산은 올해보다 2만원 감소한 67억 8398만원, 특별예산은 올해 대비 1.2% 증액된 142억 7312만원으로 확정됐다.

김주일 기자

970호 INDEX

시방세계 5
조계종 국민 힐링투어 현장



종합 2·3
종교인 시국선언 어떻게 봐야하나
석조문화재 방치 심각
조계종 중앙종회 연구 개최

강의실중계 8
공종원-성철 스님 열반20주기강연

"치유의 어머니 정목 스님의 행복 명상으로 초대합니다"

SBS 힐링캠프, 아이러브인을 통해 감동을 선사한 정목 스님의 행복을 키우는 마음연습!



분노에 끌려다니는 이들을 위한 명상, 원한과 상처를 떠나보내는 명상,
좌절과 우울의 터널을 지나 불안을 잠재우는 명상 등
힘들고, 아프고, 정처 없는 마음들에게 보내는 정목 스님의 간절하고 따뜻한 기도!

명상CD 수록
비 울 수 록
가 득 하 네
정목 스님 지음 | 값 14,000원



20만 독자가 사랑한 베스트셀러!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스님 지음 | 값 14,000원



"인생은 저마다의 속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세요."
엄마의 손길같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는 정목 스님의 따뜻한 말씀

쌤앤파커스 전화 : 031-960-4800 | 쌤앤파커스의 책들은 전국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만약 그대에게 '삼독 · 오독심' 이 없다면

목적지에 가까워졌으니

강력한 해독제로 대처하라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오독(탐 · 진 · 치 · 질투 · 아만)에 의해 지배당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증오 때문에 싸우는지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격정에 자유로운 통치기간을준다면 그 기간 동안에 격정은 당신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의 근원을 찬찬히 분석해 본다면 사실 그 본질은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컨대 괴로운 감정이라는 것은 실은 여러분이 거기에 부여한 힘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듭 그 감정에 빠져들지 말고, 한번 거기서 벗어나 보십시오. 그 순간 해탈에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성취를 위해 당신은 강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승의 가르침은 그다지 당신을 도와줄 수 없게 되고 수행은 아무 진척이 없을 것입니다. 스승은 당신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안내하지만 대신 깨우쳐 줄 수 없습니다. 스승은 길을 보여주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감정이 매우 강력한 것이라면 해독제 또한 그만큼 강력한 것으로 맞서야 합니다. 중독된 나무를 없애려면 그 나무를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가지치기로는 불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의 뿌리를 뽑지 않는 한 이들은 자라고 또 자라고,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하게 될 자랄 것입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시국선언, 갈등보다 '경종' 역할을"

조계종 화쟁위, 3일 종교인 시국발언 주제 야단법석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으로 불거진 종교계의 시국 발언과 이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결사모임 붓다로 살자는 공동으로 12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종교인들의 시국 발언, 어떻게 볼 것인가' 를 주제로 야단법석을 개최했다.

이날 야단법석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좌장으로, 화쟁위원장 도법스님, 성염 前 주교황청 한국대사, 인명진 갈릴리교회 담임목사, 김재원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경민 민주당 국회의원, 김형태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홍성걸 국민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날 대다수의 발제자들은 종교인의 시국발언에는 '문제가 없음' 을 분명히 했다. 성염 전 주교황청 한국대사는 "성직자의 정치 개입은 조직과 권력구조에 참여하는 경우" 라면서 "가톨릭은 공공선을 추구하고 공공선은 정치를 통해 현실화되기도 한다. 정치가 잘못될 때에는 분명히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세상에 대해 발언하지 않는 종교는 '죽은 종교' 이며 종교인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 라고 주장한 신경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문제는 정치권과 언론이 나서서 시국선언을 한 종교인들은 '종북' 으로 몰고 있다는 점" 이라며

패널 다수 "종교인 시국발언 가능"
"일부 발언 사회 갈등 우려" 주장도

"역사적으로 독재정권은 항상 종교계에 침묵을 강요해 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고 비판했다.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모든 사안을 진실과 균형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스님은 "간디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어느 편에 서 있지 않았다. 진리의 편에 서 있었다" 면서 "진실과 균형이 해답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종교인의 시국발언은 문제없지만 특정 정파의 의견에 동조해 사회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재원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는 분명 정부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국가 안보에 위협적인 발언을 했고 갈등이 불거졌다" 면서 "종교인들은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행복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갈등을 조장하고 저주가 섞인 언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 고 밝혔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도 "정치가 역할 못할 때 종교계가 시국발언을 해왔고 긍정적 기여를 해왔던 것이 사실" 이라면서도 "특정 정당이나 정파 입장에 서서 대통령 사퇴 등을 언급한다는 것은 범주를 넘어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인들의 강론, 종교 활동에서의 시국관련 발언은 사회의 위험을 알리고 경종을 울리는 수준이어야 한다" 며 "이를 넘어 특정 정파 입장에 동조하면서 오랜 기간 일관된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12월 3일 '종교인 시국발언 어떻게 봐야 하나' 를 주제로 야단법석을 개최했다. 사진은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조계종 34대 종책과제 수립 첫 대중공사

12월 2일 차팀장 80여명 참석

조계종 총무원이 34대 집행부 종책과제 수립을 위한 첫 대중공사를 가졌다.

조계종은 12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불교중흥과 제34대 집행부 종책과제 실현을 위한 중앙종무기관 대중공사' 를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대중공사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부실국장 스님, 차 · 팀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중공사는 34대 총무원장 선거 당시 공약을 검토해 34대 집행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로, 이날 정리된 내용은 2014년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총무원 사업계획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대중공사에서 자승 스님은 "34대 집행부 종책은 안으로는 사부대중의 간절한 여망과 밖으로는 시대와 사회가 불교에 요구하는 구체적인 주문으로 이뤄질 것" 이라며 "아직은 무던한 바위덩어리에 불과한 종책사항을 잘 갈고 다듬어 금강석으로 빛나게 해 달라" 고 당부했다.

교육원장 현응스님도 "34대 종책과제가 대내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다" 며 "한국불교의 지표인 스님과 사찰, 신도, 사회와 국민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종책을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 고 조언했다.


조계종은 12월 2일 제34대 집행부 첫 대중공사를 열었다.

대중공사에서는 이상봉 전 불교사회연구소 사무국장이 '종단 10년 통계분석 결과 및 연구소 주요 종책 분석내용 보고' 를, 김용구 기획팀장이 '제34대 집행부 종책과제 수립방안 보고' 를 각각 발표했다.

이밖에 선거 첫 공약이었던 교구중심제를 검토하기 위해 '교구본사와 중앙의 균형발전' '조계사 총본사 성역화와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 , '승가복지 전면 실현' 등을 논의했다. 또 자성과쇄신 결사 지속 추진, 승가의 사회적 권위와 교육, 수익법인 붓다드림 설립, 신도조직화와 전법활성화 등도 종책 과제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중일 기자**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 임명

자승 스님, 논란에도 4일 임명장 수여…연수원장 구과 스님

선본사 성본, 보문사 등목 스님
불교중앙박물관 관장 덕문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2월 4일 봉은사 신임 주지 원학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봉은사는 조계종 직영사찰인만큼 종단의 결사와 쇄신을 이끌어 가는 데 충실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원학 스님은 "종단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결단을 내린 뜻을 이해하고 열심히 정진하겠다" 며 "자성과 쇄신 결사가 진행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 이후 '논공행상' 인사로 문제가 된 원학 스님의 주지 임명에 대해 여론의 시각은 곱지 않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산하 교단자성센터가 12월 4일 원학 스님의 주지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편, 선본사 주지에는 성본 스님이, 보문사 주지에는 등목 스님이, 불교중앙박물관장에는 덕문 스님이 임명됐으며, 동문들과 함께 하는 술자리를 열어 해임된 초격 스님을 대신할 한국문화연수원장에는 구과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공무원장 자승 스님이 12월 4일 신임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대선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덕진 진일 대종사
초대종정 범 왕 동 산 대종사
부 종 정 적 연 운 암 대종사

총 무 원 장 : 현묵 혜승 교 육 원 장 : 적공 현덕 종 회 의 장 : 현숙 법희 선 원 장 : 적우 청화 문 화 원 장 : 대원 무령 감 사 원 장 : 법규 대경

총 무 부 장 : 각진 보각 포 교 부 장 : 도승 교 육 부 장 : 평상 도응 사 회 부 장 : 영각 재 무 부 장 : 보각 사 서 실 장 : 대안
종회사무국장 : 법성 교 무 국 장 : 보혜 연 수 국 장 : 도만

종 회 의 원 : 경성, 도경, 원명, 보찬, 도광, 보성, 보현, 혜성, 혜광, 성관, 도민, 법송

대선불교조계종법사회

법 사 회 장 : 법산(신동호) 총 무 국 장 : 송천(김문환)
신도회 총무 : 보리심(신순임) 덕양(서재원) 광덕(문도순) 도응(최순락) 학산(김대철) 준범(최형섭) 남산(문동식) 덕산(심규봉) 덕연(황우연)
거산(김금석) 법경(윤석진) 명주(이재금) 법등(박영희) 보연(정연숙) 보경(김금전)

입 종 안 내

(사)대선불교조계종은 자각각타(自覺覺他), 각타원만(覺他圓滿), 원돈성불(圓頓成弗)한 부처님의 교리를 봉체(奉體)하고 종조(宗祖)의 본지(本旨)를 다시 밝혀 불조의 혜명(慧命)을 이어 나가려는 시대적 사명감과 대원력(大願力)으로 수심(修心)하여 대선조계(大禪曺溪)의 종명을 공칭하고 종헌종법으로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나갈 사 · 암스님 창건주, 교임 법사님들을 가족처럼 입종을 환영합니다.
(상세한 것은 총무원에 문의 바랍니다.)

◆종정주석사찰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2동 2040-3 〈011-529-3132〉
◆총 무 원 : 인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64번지 총무원장 혜승〈010-3190-5767〉 E-mail : bada4431@hanmail.net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불기 2557년 종무결산 및 송년법회

■ 일시 : 2013년 12월15일 일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1103번지(3층) 짝 라이브
■ 문의 : 053) 959-3388, 010-3812-0419

방치된 석조불교문화재 보존 '빨간불'

문체부 · 문화재청 건조문화재 전면점검 실시

정부가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비롯한 건조물 문화재 6752건에 대한 전면점검에 나선 가운데 대부분의 불교 석조문화재가 10년 이상 방치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존 보수공사 이후에도 관리소홀 등의 문제로 훼손이 심각히 진행된 문화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15년 이상 보수가 진행되지 않은 불교석조문화재만 해도 27건. 이중 원주 법천사지에 있었으나 일제시대 일본 오사카로 몰래 밀반출됐다 반환돼 서울시 종로구 국립중앙박물관안에 보존돼 있는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 (국보 101호)은 문제가 심각하다. 지광국사탑의 경우 1987년 보수 이후 2003년 조사에서도 훼손의 심각성이 알려졌지만 이전계획으로 인해 제대로된 보수를 받지 못했다. 현재 탑은 부재 이완 등으로 기단부에서 균열이 발생한 상태다. 이와 함께 서울 세검정 초등학교에 있는 장의사지 당간지주(보물 제235호)는 운동장에 그대로 방치돼있기도 하다.

문제는 이 같은 석조문화재의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감사원이 2012년 5월 공개한 감사결과보고서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집행실태' 을 보면 전국에 산재한 국보 · 보물급 석조문화재 533건 가운데 102건(2012년 기준)은 보수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으로 지적됐다. 이중 반구대 암각화, 경복궁 아미산 굴뚝 등 5건을 제외한 98건이 불교문화재였다. 국내 석탑 및 부도 등 국보급의 대부분이 불교문화재임을 감안하면 석조문화재 훼손은 불교성보문화재의 손실로 직결되는 문제다.

당시 경북 고선사지삼층석탑(국보 38호), 강원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비(국보 59호), 강원 굴산사지 당간지주(보물 86호), 강원 진전사지 부도(보물 439호), 경북 경주석빙고(보물 60호) 등이 풍화상태나 부식 등으로 구조 안정성을 지적받았음에도 보수 및 정비가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문화재가 예산의 한계 등에 직면해 전면 보수 ·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훼손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수 예산조차 신청하지 않아 방치됐다. 문화재청도 예산신청서를 검토하면서 현장조사 때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문화재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 · 점검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





훼손이 심각한 원주 법천사지 지광 국사탑(국보 101호, 사진 위)과 세검정 초등학교 운동장에 남아있는 장의사지 당간지주(사진 아래)

깨지고, 시멘트 덧칠에, 이끼 피해

대부분 10여년전 보수… 훼손 우려

또 보수공사가 진행됐더라도 복구과정에서 잘못된 보수로 인해 훼손이 더욱 심각히 진행된 경우도 있다. 11월 26일 복원 착수식이 열린 익산 미륵사지석탑(국보 11호)이 대표적인 예다. 1970년대까지 복구과정에서 시멘트 등을 덧바르던 관행으로 흉물스럽게 있던 석탑의 원형을 살리기 위해 18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또 경주박물관 내 고선사지삼층석탑과 같이 석조물에 기생하는 미생물인 지의류 번식으로 부재 자체가 약화된 경우도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와 학계에서 석조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하고 관리 ·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전문가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그동안 문화재 보수는 목조문화재에 치중됐다. 가령 석탑의 경우 부재에 맞는 접착재 개발 등이 이어져야 하는데 이같은 노력이 부족하다. 다양한 돌로 만든 석조문화재를 복원할 전문가가 사실상 거의 없다" 고 말했다.

임석규 불교문화재 유적연구실장은 "전국의 폐사지 5000여 곳도 대부분 방치돼 있어 이곳에서 나온 석돌 등이 묘지나 화장실의 석재로 사용되는 형편" 이라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선 전기에도 가로형 불화가 존재했다"

군산 동국사 가로형 쌍림열반도, 조선 전기 불화 확인

조선 전기에도 가로형의 불화가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택 동국대 교수는 11월 30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동악미술사학회(이사장 최응천) 제63차 학술발표회에서 "조선전기 불화 중 가로형 석가열반도의 국내 유일본이자 최고본(最古本)" 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현재 알려진 조선전기 불화는 150여 점 중 동국사 쌍림열반도가 석보상절 석가팔상도(1447년)의 조선시대 수용을 보여주는 작품" 이라며 "조선 전기 불화의 복채법(배채법)을 확인 시켜준 국내 최초의 사례" 라고 말했다.

동국사 종걸 스님은 "숭유억불의 조선 전기에도 훌륭한 불화 제작과 유통이 있었음을 확인한 것" 이라며 "이치노혜 스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환수하게 돼 새삼 한일불교교류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한편 동국사 가로형 쌍림열반도는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이 일본 운상사 주지 이치노혜 쇼코스님의 도움으로 합법적인 경매절차를 통해 국내에 환수됐으며 지난 7월 국내에 처음 공개된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난 7월 국내에 환수된 동국사 쌍림열반도.

"정치 · 종교 협력과 견제 유지해야"

조계종 종평위 '종교평화 정착 토론회' … 박광서 교수 기조발제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공명선거는 과연 가능할까? 종교가 권력화 되었고 정교분리 의식이 서구만큼 뿌리내리지 못한 한국사회에서 명쾌한 해결책을 기대하긴 어렵다. 그렇지만 시민의식의 고취를 통해 주권의식을 발휘한다면 종교차별 없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서강대 박광서 교수(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가 종교평화 문화정착을 위해 주권의식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12월 6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종교평화 문화정착을 위한 토론회' 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교수는 '종교차별 없는 공명선거는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박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김진표 황우여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발언을 예로 들어 정교분리 헌법조항을 강하게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종교와 정치가 야합하거나 대립할 때 사회는 불안해진다. 정치와 종교는 상호 협력과 견제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종교문제 없는 공명선거를 위해 박 교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사례예시집〉 또는 선거법안내 설명회나 사이버선거 안내 시 종교차별과 정교분리 위반 사례를 포함시킬 것 △후보자들이 종교단체 방문 시 종교적 색채를 드러낼 경우 서면으로 주의경고 주기, 엄중하면 고발 조치할 것 △ 종교지도자가 대중모임 혹은 공개적 자리에서 특정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찬반을 말하는 데 대해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 토론회의 발제자로는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례로 본 정교분리 헌법정신 위배' △황일근 서초구의원– '사랑의 교회 사례로 본 정교유착 문제 △임병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관– '2014년 지방선거 종교중립 예방대책' 등이 나섰다. **정혜숙 기자**



2014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종교평화 문화정착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했다.

"KTX 민영화 안돼"

조계종 노동위, 5일 반대 성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서발KTX 분할 민영화에 대해 불교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는 12월 5일 성명을 발표하고 'KTX철도 민영화'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노동위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통신(KT), 석유공사, 국민은행, 발전 등이 민영화되고 기업 이익은 국가와 국민에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소수 민간자본과 외국 투기자본 등에 송두리째 가고 있다" 면서 "민영화는 공기업 효율이란 미명아래 국가기간 산업을 자본에 팔아먹는 것이나 다름 없다" 고 주장했다.

이어 "민영화가 아니다는 정부의 입장은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동안 민영화가 진행된 국가기간 산업인 통신 · 석유 · 조선 · 발전 · 가스 · 중공업 · 은행 등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노동위는 "정부의 수서발 KTX 민영화는 재앙이자 국가와 국민의 불행" 이라면서 "철도 미래백년을 위한 국민 합의기구를 만들어 철도발전 계획을 수립할 것" 을 요구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원장 선거, 직선제 고려해야"

성낙인 교수, 중앙종회의원 연수서 주장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여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피선거권 자격을 가진 모든 승려가 참여하는 실질적 직선제가 필요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낙인 서울대 교수는 12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연수의 초청 강연에 이 같이 밝혔다.

성 교수는 '종헌 · 종법과 선거법 체계에 대해' 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현 조계종의 총무원장은 의원내각제의 수상인 국무총리에 해당된다" 며 "순수한 의원내각제라면 의회에 해당되는 종회의원만으로 총무원장을 선출해야 하나, 국가처럼 일률적인 조직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구의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교구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총무원장 선거인단의 숫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실이 개입할 소지가 있기 때문" 이라며 "간접선거로 치러진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적지 않는 교육자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를 보였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달라" 고 주장했다.



총무원장 선출방식에 대해 성 교수는 "2000~4000명의 스님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등 피선거권을 가진 모든 구성원이 투표에 참해야 한다" 며 "총무원장 피선거권 자격을 가진 전국의 스님들이 참여함으로서 실질적인 직선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대불련 총동문회, 스님들 종북몰이 '논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동문들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 스님들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는 성명을 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원유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장(이하 대불련 총동문회)은 11월29일 조계종 스님들의 시국선언을 규탄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 성명은 대한불교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장 박희도)과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총재 양춘동)가 함께 연서한 것으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스님을 '종북' , '친북' , '좌익' 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스님들을 비난했다.

성명이 발표되자 전국 각지의 대불련 동문들은 동문회 홈페이지에 회장의 퇴진을 주장하는 글들이 계속 기재되고 있다.

사태가 불거지자 원 회장은 사과문을 발표했고, 유선재 총동문회 사무처장이 사퇴했지만 상황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불련 현역들은 사과가 아닌 변명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대불련은 12월 2일 입장문에서 "총동문회 현 집행부의 소통 부재와 폐쇄성으로 발생한 결과" 라며 "사과도 일방적 변명이며 본질 없는 사후대처는 부끄럽고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신중일 기자

밝은사람들 총서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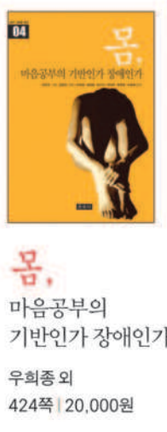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 정준영 외 — 396쪽 | 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 권석만 외 — 504쪽 | 23,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 미산 외 — 400쪽 | 20,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 우희종 외 — 424쪽 | 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 미산 외 — 348쪽 | 18,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 안성두 외 — 416쪽 | 20,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 오강남 외 — 300쪽 | 18,000원

학술연찬회
주제: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일시: 12월 21일(토) 10시-18시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괴로움은 어디서 오며, 그 실체는 무엇인가?
초기불교와 선불교, 기독교를 포함한 서양철학, 심리학과 진화심리학 등의 관점에서 인간이 겪는 정신적·육체적 괴로움(고통)의 문제에 대해 성찰!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정준영 외 집필/신국판양장/326쪽/1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일 주 문



민주평통 불우이웃돕기

민주평통 서대문구협의회 회장 현성 스님은 11월 30일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어려운 가족 100세대에 김치 500포기를 나눠줬다.



일타 스님 14주기 추모다례재

영천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11월 24일 동곡당 일타 대종사 제14주기 추모 다례재를 조계종 제 10교구 본사 은해사 조사전에서 봉행했다.



군산불교사암연합회장 선출

상주사 주지 도연 스님은 12월 3일 동국사에서 열린 군산불교사암연합회 회의에서 차기 사암연합회장으로 만장일치 선출됐다.

비구니계 원로 지명 스님 입적



비구니계 원로인 경기 용인 화운사 능인선원장 지명 스님이 12월 4일 입적했다. 세수 93세, 법랍 80세. 1921년 수원에서 태어난 지명 스님은 1932년 수덕사에서 만공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42년 석우 스님으로부터 비구니계를 받았다.

1953년 충남 서산 개심사 주지를 맡아 사찰 복원 불사에 매진했으며, 1962년 화운사 주지를 맡은 이후 재단법인 능인학원을 설립해 비구니 후학 양성에 힘썼다. 전국비구니회 3대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영결식과 다비식은 8일 용인 화운사에서 전국비구니회장으로 엄수됐다. (031)335-2576

제 21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

불교언론인상 이동식 조계종 미디어위원장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이 주최하는 제21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이 12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총무원 문화부장 혜일스님은 "올해는 지난 1993년 첫 시상식을 가진 불교언론문화상이 성인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첫 해이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우수한 작품이 많이 배출돼 불교위상을 높이고 언론문화가 발전하길 발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에는 EBS 다큐프라임 '천장(天葬)' (2부작)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사진〉 신문부문 최우수상에는 불교신문 취재 2부(안직수 하정은 엄태규) '특별기획 한국불교20년 후를 생각 한다' 등이 수상했다. 불교언론인상은 이동식 조계종 미디어위원회 위원장(전 KBS 기자), 특별상은 아창재 감독의 다큐영화 '길위에서' 가 수상했다. **정혜숙 기자**

"종무행정 전산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

도선사 신임 주지 도서 스님



1년동안 산문밖 나가지 않을 계획

지역 포교당 개설로 포교영역 확대

진산식 비용으로 자비의 쌀 보시해

"도선사가 지금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종무행정의 전산화입니다. 요즈음은 사찰도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신도들에게 신뢰도 줄 수 있고 재정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사부대중들이 편하게 종무행정을 볼 수 있도록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 할 것입니다."

도선사 신임 주지 도서 스님은 12월 3일 종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도서 스님은 "도선사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대형사찰임에도 지금까지 합리적인 종무행정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늦어도 내년 부처님오신날까지 전산화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찰재정의 투명화가 이뤄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 소임을 새로 맡은 도서 스님의 각오는 남달랐다. 지금부터 1년 동안은 산문 밖을 안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신도들과 함께 경내에 머물면서 기도 정진을 하겠다는 의지의 피력이다.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께도 내실을 다지기 위해 1년간 회의나 종단 대소사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1년 동안 신도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림을 살다보면 절 내 모든 일들이 파악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나가려고 합니다"라고 계획을 털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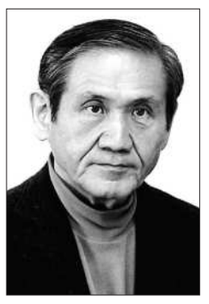
또한 도서 스님은 사찰의 모든 업무 결정도 주지 1인 중심체제에서 탈피해 대중들이 모여 대중공사를 통해 결정해 나가고, 각 부서별로 사업을 구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서 스님은 문중 스님들을 살피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청담 스님 문중에서 제가 3대째로 넘어온 첫 주지입니다. 지금 문중 스님들이 한 50분 되는데 60~70대가 되도 문중사찰이 없어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고, 수행할 곳이 상황입니다. 지역 포교당을 여러 곳 개설해 문중 스님들이 편안히 포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고 말했다.

또한 도서스님은 평택에 있는 도선사가 설립한 청담중고교도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 사학 명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서 스님은 진산식 비용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의 쌀을 보시했다. 도서 스님은 12월 3일 경내 호국참회원에서 사부대중 1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품' 전달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서 스님은 쌀 20kg 333포대 상당의 1500여 만원을 박경수 강북구청장에게 전달했다. 또한 전달식 후에는 도선사 소임자 임명장 전달식도 이어졌다. 부주지에는 현관 스님, 기획실장에 미등 스님, 교무국장에 도권 스님, 재무국장에 도용 스님, 사회국장에 도법 스님, 포교국장에 묘수 스님 등이 임명됐다. **김주일 기자**

"몽골 청년 포교 위해 역경사업 도와달라"

〈금강경〉 번역 자문 구하러 방한한 엥흐바야르 前 몽골대통령



2006년도 만해대상 포교부문 수상자이기도 한 남바린 엥흐바야르 前 몽골대통령이 12월 4일 금강경 번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서울 화계사를 찾았다. 엥흐바야르 前 몽골대통령은 몽골에서 현재 역경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조계종 표준금강경을 몽골어로 번역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몽골의 경우 국민의 90%가 티베트 불교를 믿고 있다. 하지만 경전 대부분이 티베트어와 고대 몽골어로 쓰여 있어 몽골 불자들이 경전을 읽고 뜻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엥흐바야르 前 대통령은 이날 "몽골 불교경전 대다수가 옛 언어로 쓰여 있어 특히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며 "현대에 맞는 포교를 위해 직접 〈금강경〉을 현대 몽골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역경사업은 몽골 청년들을 위한 저의 사회적 회향"이라고 밝혔다.

엥흐바야르 前 대통령은 몽골 산업화 과정에서 국민들의 정서가 변화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도 전통문화인 불교를 보다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엥흐바야르 前 대통령은 "몽골은 예로부터 한국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특히 스님과 사찰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또 우랄 알타이어계로 역경사업에도 한국의 역경과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만델라 前 남아공 대통령 타계

2004년 만해평화대상 수상



넬슨 만델라 前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12월 5일 향년 95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 前 대통령은 1918년 7월 18일 남아공 동남부 트란스케이의 시골마을 음베조에서 템부족 추장 가문 후손으로 태어났다.

25세 때인 1943년 당시 민주화 투쟁의 중심인 '아프리카민족회의' 에 가담, 'ANC 청년동맹' (ANCYL) 창립멤버로 저항운동을 벌이다 체포되기도 했다. 27년 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백인정권의 흑백차별 정책에 맞서 투쟁했고 이러한 업적을 인정받아 1993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4년에는 만해평화대상을 받기도 했다. 당시 시드니 바파나 쿠베카 주한 남아공 대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며 "만해대상은 전쟁과 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수상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군종교구 특전사령부 법당 상량식



특전사령부(호국사자사 주지 법사 진상 김창모)는 이천 법당(경기도 이천) 상량식을 12월 5일 봉행했다.

이날 상량식 법회는 특전사 이전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법당 불사에 매진해온 관계자들의 노고 치하와 원만 불사 회향을 위해 실시됐다. 상량식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과 특전사 불자 간부 및 병사, 이천사암연합회 스님, 재경지역 군승법사, 일반 신도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불교아동학과 '동극 공연'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 불교아동학과 학생들이 12월 5일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찾아가는 동극' 공연을 펼쳤다.

동국대 불교아동학과 학생들은 학과 정기학술제 발표를 위해 준비했던 동극 '엄마와 여섯 친구들', '금강이의 하루' 두 편을 장애우들을 위해 펼쳤다.

동국대 불교아동학과 나정 교수는 "복지관에서 학생들의 공연을 관람한 장애우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 무척 보람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동국대 불교아동학과 동극 '금강이의 하루'는 동련이 주관한 제9회 한국문화언어예술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대구 해운정사 송년 화합 한마당



대구 송현동 해운정사(주지 청명)은 12월 1일 호텔대구에서 제4회 송년 화합 한마당 잔치를 펼쳤다. 종도스님들과 신도 300여 명이 동참한 이 행사는 관음신도회, 취산승가회, 범운문도회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행사는 1부로 신도회 조태흠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영산 합창단이 '해탈의 기쁨' '부처님 감사합니다' 의 축가 무대가 펼쳐졌다. 이후 청담 스님, 성덕 스님의 집전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삼신이운식에 이어 관음회 윤종희 회장 외 5명의 보살이 육법공양를 올렸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진로 · 적성 · 상담 안내

C.A.C 분석서

◈ 16개 항목 분석 자료 추출 ◈
- 학습유형별 정보 제공
- 선천적으로 적합한 계열과 학과 제공
- 기타 성격. 인품. 평생주기별 운 예측
- 대학 진학 (입학사정관. 수시. 정시)
- 나와 인연되는 대학명
- 대학 진학하는 해! 세운 분석

◈ 상 담 료 : 20만원
- 상담 후 미 진학시 상담료 환불

◈ 학습진로상담사 학회

〈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73-2. 1층
〈지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1-98 2층
상담사 겸재 정 비오 (010-5524-7053)
〈지부〉 서울 성북구 동선동 5가 36 2층 (다솜)
상담사 박 홍언 (010-7925-4749)

인재 양성



동방대문화교육원 2014년
학습진로상담사과정 모집
▶ 3월 개강 ◀

◇ 저서 : 규명 1권 : 명리입문자용 (한솜미디어)
규명 2권 : 명 리 상 담 술 (한솜미디어)
규명 3권 : 진로와 전공 (한솜미디어)
실전성명학 (상원문화사)

◈ 개인 지도 : 입 문 자 10개월 과정
명리전문반 3개월 과정

◈ 수업일 : 매주 화 · 금요일(오후 5시 ~ 7시)

오시는길 1호선 수원역 하차 ➡ 맞은편 720-2버스 탑동우방사거리 ➡ 새하늘교회방면 ➡ 도보 30m 규명철학연구소 1층 010-5418-5972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 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교 육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 (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 (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 (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 (맞춤운동)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병 · 의원 진흥회 회장 / KBS / MBC출연,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순환기성 질환 임상 교육시간 : 5 ~ 10회 환영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허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대전의 한 컨벤션 홀에서 400여 불자들이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들이쉬고 내 쉬면서 자기긍정을 암시하는 지원 스님의 내레이션을 듣고 있다.



포교원은 조계종 제6교구본사인 마곡사와 12월 5일 대전 오페라웨딩홀에서 마곡사 권역인 대전, 세종, 충남권 '국민행복 힐링투어'를 진행했다. 지원 스님 · 마가 스님 법문에 환하게 웃으며 사부대중들이 즐거워 하고있다.

조계종 포교원, '국민행복 힐링투어' 시작

"나부터 행복해져야 이웃과 동체대비"

"우리의 마음과 생명은 잘 쓰는 만큼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믿고 맡기고 행하면 더 힘이 웅대해 집니다. 믿지 않고 두려워하면 생명이 줄어듭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명을 무한이라고 일러주세요. 자신을 유한이라고 일러주는 자는 무한의 샘에서 유한 밖에 퍼내지 못하는 법입니다. 생명의 무한한 빛과 힘을 믿고 행할 때 나의 생명과 부처님의 본원력이 만나 이루기 힘든 뜻을 이루고 만나기 힘든 진정한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대전의 한 컨벤션 홀에서 400여 불자들이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들이쉬고 내 쉬면서 자기긍정을 암시하는 내레이션을 듣고 있다. 내레이션을 맡은 이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이날 전국의 하늘은 미세먼지 공습으로 온통 희뿌옇게 변했지만, 대전과 세종 등 충남지역에서 모인 불자들은 지원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기운을 맑혔다.

지난 11월 29일 전국 15개를 선정, 해당 지역 교구본사와 협력해 내년부터 포교 취약 지역을 찾아 '국민행복 힐링투어'를 시작한다고 밝힌 조계종 포교원이 그 첫 번째 투어로 대전을 택했다.

포교원은 조계종 제6교구본사인 마곡사와 12월 5일 대전 오페라웨딩홀에서 마곡사 권역인 대전, 세종, 충남권 '국민행복 힐링투어'를 진행했다.

'국민행복 힐링투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포교사업은 포교 취약 지역 신도단체와 기관장, CEO 등 지역 리더그룹을 초청해 1시간 동안 명상 이론 강의와 실참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날 행사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동학사 주지 유곡 스님, 백제불교회관 장곡 스님, 대전사암연합회 회장 대연 스님, 청림회 회장 성현 스님, 박정현 충남 정무부지사, 변평섭 세종시 정무부시장, 대전경찰청장 정용선 등을 비롯해 공무원불자회, 포교사단, 포교신도단체, 백제불교회관, 마곡사신도회, 사찰신도회에서 온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행사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의 인사말과 함께, 지원 스님의 '사무량심 명상법', 소프라노 정행 스님의 힐링음악, 동국대 교법사 마가 스님의 '행복 명상'으로 진행됐다.

원경 스님은 인사말에서 "대전 충청 지역은 교통의 중심지다. 세상은 소통을 통해서 밝아질 수 있다. 그 소통의 중심에 대전 충청민들이 있다"며 "한 해를 마감하면서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귀빈들과 불교계 임원단과의 교류는 뜻깊은 소통의 일환이다. 종교의 대 사회적 역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할 때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불교가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지역 대전 · 충남지역 선택
지원스님 '사무량심', 마가스님 '행복명상'
1시간 30분 동안 청중 마음에 행복채워
"2014년 1월부터 10여 지역 투어할 것"

이후 지원 스님의 힐링 법문이 펼쳐졌다. 지원 스님은 '4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주제로 법문을 하고, 스트레스 · 비만 해소와 에너지 생성 건강법을 위한 3분 명상을 불자들에게 소개했다.

지원 스님은 "여러분은 영원한 행복과 자유를 믿으십니까? 행복이란 나의 지혜로운 마음에서 나온다"며 지혜는 4가지 한량없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4무량심'을 주제로 법문했다.



마가 스님이 꽃을 들어보이자 청중은 부처님과 가섭존자의 염화미소처럼 환하게 웃음꽃을 띄었다.



소프라노 정행 스님은 직접 피아노를 치며 '영원한 우리의 사랑' 등 2곡을 불렀다.

스님은 "중생과 동체대비가 되는 큰 마음에서 행해지는 행복을 나누려면 우선 나부터 행복해야 한다. 그 조건은 자존(自尊)"이라며 "자신을 지극히 존중해 높이 받들고, 지극히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나의 존재감 '에고'가 아니라, 스스로 갖춘 인격체인 나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그것과 똑같이 타인을 존중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원 스님은 사무량심인 자(慈) · 비(悲) · 희(喜) · 사(捨)에 대해 설명했다.

"자비희사 사무량심은 곧 행복을 나누자는 말이며 모두가 같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진다는 의미이니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사랑하고 배려하고 관용하고 너의 기쁨을 나의 행복인양 함께 해주고 무한한 보시로 나를 비우고 지복으로 채우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수행이라는 방편을 사용합니다. 이는 곧 신구의 목과 입, 뜻을 청정히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청전한 법의 수행이 각 사찰에서 시행하는 템플스테이입니다."

이어서 지원 스님은 비만해소, 에너지 생성 및 건강을 위한 호흡명상 법을 선보였다. 스님은 "호흡에는 원칙이 있다. 내 쉬는 숨은 들이쉬는 숨보다 최소한 같거나 약 2배 정도는 길어야 한다. 숨을 가득 들이쉰 다음에 호흡을 멈추는 것은 괜찮지만 숨을 모두 내쉰 상태에서 멈추면 위험하다"며 "숨은 가늘고 고르게, 길게 해야 다운에이징뿐 아니라 오장육부에 이상이 생겼을 때 치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청하던 사부대중은 지원 스님의 법문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소프라노 정행 스님의 힐링 음악도 이어졌다. 정행 스님은 직접 피아노를 치며 '영원한 우리의 사랑' 등 2곡을 불렀다.

마지막으로 자비명상 대표이자 한국마음치유협회장, 동국대 정각원 교법사 마가 스님이 강단에 올랐다. 스님이 손수건을 펼쳐 보인 후 접은 뒤 다시 펼치면서 꽃을 들어보였다. 사부대중은 부처님과 가섭존자의 염화미소처럼 환하게 웃음꽃을 띄었다. 마가 스님은 "꽃을 보니 좋으시죠"라고 물었고 대중은 "네"라고 답했다. 스님은 미소 지었다. "여러분은 꽃보다 더 아름답게 미소 지으세요."

종소리가 침묵을 불렀다. 각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 마가 스님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가 살펴야 한다"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면 마음의 노예이고 바로 보는 사람이 마음의 주인"이라고 했다.

마가 스님은 간단한 게임을 소개하며 대중의 굳어있는 마음을 풀게 했다. 스님은 "자신이 자리한 위치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명품인생이 된다. 먼저 웃고 자비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꽃을 들어보였다.

"내가 먼저 웃어야 우리 집에 웃음 꽃이 핍니다. 내가 먼저 웃어야 너와 나 사이에 꽃이 핍니다. 내 마음속에 꽃이 피고 먼저 웃을 때 나는 행복해집니다."

이날 한 시간 넘게 진행된 힐링투어는 사부대중의 마음에 행복을 채우기에 충분했다.

대전 유성구에서 온 이기명(46 · 여) 씨는 "불자이지만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법회를 접하기 어려웠다. 오늘 참석해 사무량심 법문을 듣고 행복명상을 따라하면서 많이 행복했다.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포교원은 2014년에는 전국투어로 확장해 전국민이 명상을 경험하고 변화를 체험하는 포교의 장을 발돋움 시킬 계획이다.

포교원 관계자는 "힐링투어는 지역 교구본사, 불교대학, 포교사단, 전법단 및 포교 신도단체 등 포교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 포교를 활성화할 목적"이라며 "1월부터 인천 울산 충청 수원 전라 강원 영주 대구 · 경주, 제주 · 충주 · 원주, 부산, 서울 · 직할교구 등 해당 지역 교구본사와 협의 아래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이나은 기자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 전화 010-7415-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분원 세워 프로그램 보급 앞장설 터”

불교상담개발원, 11월 28일 발전계획안 발표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과 (사)자비의 전화는 11월 28일 종로 엘마레따에서 열린 ‘2013 송년감사의 밤’ 행사에서 120여 명의 내외귀빈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상담의 전문화와 대중화를 골자로 한 발전계획안을 발표했다.

불교상담개발원이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상담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과 (사)자비의 전화는 11월 28일 종로 엘마레따서 열린 ‘2013 송년감사의 밤’ 행사에서 120여 명의 내외귀빈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상담의 전문화와 대중화를 골자로 한 발전계획안을 발표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상담 전문기관이 되고자 불교심리치료 전문가를 활용해 템플스테이, 국제선센터,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등과 함께 불교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앞장설 것이며, 불교상담의 보급을 위해서 불교상담개발원 분원을 설치하고 불교상담대학 및 사찰 신행·심리상담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교상담개발원은 인적 토대 마련을 위해 불교상담대학 운영 및 불교상담심리사 양성에 주력하고, 물적 토대로서 2015년까지 교육관 불사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2·3대 불교상담개발원장 정덕 스님이 5000만원을 약정 기부했다.

이날 행사에서 불교상담의 전문화와 대중화를 기반으로 불교상담대학원대학을 설립하고자 ‘불교상담대학원대학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정덕 스님, 일면 스님, 도현 스님, 벽공 스님, 도성 스님, 이근후, 최훈동, 한명로, 오용환, 김재성, 이인자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가했다.

한편 불교상담개발원과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12월 1일 국제선센터에서 일요법회 시간에 150여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불교상담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불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청소년교육 수준이 높은 양천구에 위치한 국제선센터에서 가족 심리치유와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불교상담개발원이 양천구민들의 행복증진을 위해 뜻을 모은 것이다.

불교상담개발원은 “두 기관은 불교상담 전문인력 보급과 전용 교육공간이라는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더욱 신뢰도 높고 안정적인 불교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개발원은 “현재 불교상담개발원과 국제선센터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이 시행하는 2014 연수교육 인증과정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고자 기획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이미 구체적인 업무협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후에도 다양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연등회 율동리더 및 포교활동 강사 모집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혜만, 이하 불레협)은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국가지정 무형 문화제 122호 연등회 연등축제 율동리더를 모집한다. 선착순 20명 모집이며 참가 희망자는 불레협 카페(http://cafe.daum.net/burec)에서 양식을 받아 메일(burec@hanmail.net) 또는 팩스 (02-738-7863)으로 12월 24일가지 접수하면 된다.

한편 불레협은 포교활동을 함께 할 역량 있는 강사를 모집한다. 자격은 수계증을 소지하고 불법홍포를 위해 포교활동과 평생교육을 위해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자여야 하며, 문화 예술 교육 기술 기능 공예 등 재능을 국가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인정받은 자격증 소지자이면 된다. 이력서, 경력서, 사진, 신도증(수계증), 자격증 사본 등을 이메일로 12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02)738-7860

이나은 기자

간화선 이론정립하고 선체험도 배워

선림원, 참선입문 및 2년제 과정 진행





조계사 선림원은 간화선에 대해 탄탄한 이론을 정립하고, 선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조계사 안심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참선입문 9기 수강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사진왼쪽〉. 화두 참선중인 선림원 학생들〈사진 오른쪽〉.

대학원 준하는 4학기 과정
선원장 스님과 선어록·경전 집중 수업
지방전통선원 탐방하는 수련회 가져
2014봄학기 신입생 모집…3월 개강

한국불교의 대표적 수행법인 간화선. 간화선을 체험한 스님과 재가자들은 간화선이 최고라 말하며, 대중에게 널리 알리려 한다. 조계종에서도 세계에 간화선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선의 종주인 간화선이 견성과 행복으로 가는 길을 정말로 알려주는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동안 간화선은 이런 의문에 대답조차 해주지 않았다. 선가에선 용맹정진과 실참만을 강조하고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 일반 사람들이 참여할 방법이 없었다. 또한 자상한 가르침도 가이드북도 없어 불교 수행 가운데서도 가장 어렵고 불친절(?)한 수행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간화선에 대해 탄탄한 이론을 정립하고, 선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곳이 있다. 바로 조계사가 대학원 형식으로 운영하는 참선 전문 수행기관인 선림원이다.

조계사 선림원은 대학원 과정에 준하는 2년제 4학기로 운영되며 이론 강의와 참선수행을 병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학기마다 산중 선원장 스님과 함께 육조단경, 서장, 선요, 금강경 등 선어록과 경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직접 참선 지도를 받는다. 또한 초청 특강을 비롯해 지방 전통선원을 탐방하고 수련회를 통해 수행의 근기를 다진다.

선림원은 이와 함께 참선을 쉽게 공부하기 위해 개발한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인 ‘참선입문’도 운영하고 있다. 3개월 과정인 이 프로그램은 불교입문자를 대상으로 참선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에게 화두를 받아 혼자서도 참선할 수 있게 구성했다.

현재 선림원은 참선입문 9기를 모집해 11월 12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조계사 안심당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종교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인가? △연기·무아·공의세계 △신심, 발심과 공심 △참회와 발원 △선이란 무엇인가? 등 불교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어 초심자에게 매우 유익하다.

12월 3일 저녁 안심당에서는 10여 명의 수강생이 박희승 선림원 교수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었다. 이날 박희승 교수는 교재를 통해 연기·무아·공의 세계 및 신심, 발심과 공심에 대한 내용을 강의했다.

박 교수는 “무아, 공은 모든 존재 현상이 실체가 없다는 뜻이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아무 것도 없다는 무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허무주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무아·공·연기를 이해하면, 나다/너다, 부처다/중생이다, 있다/없다 등의 양변을 초월해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이롭게 한다는 생각으로 이기주의를 버리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의 즐거움을 알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의 후 수강생들이 궁금했던 질문을 하면 박 교수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9기 수강생들은 6회의 이론 수업을 마치고 나면 12월 21~22일 봉화 금봉암에서 고우 스님이 설법하는 화두 법문을 듣고, 스님으로부터 화두와 법명을 받게 된다. 이후 7회부터 마지막 11회까지는 △화두 참선하는 법 △경계에 대처하는 법 △생활에서 화두 드는 법 △수행공동체의 길 등 실생활에서 화두 참선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수행방법을 배운다.

수업에 참가한 황보명숙(45·여) 씨는 “평소 참선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어서 ‘내가 참선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며 “무아, 연기, 중도 등 불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수행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꼈다. 기복적인 종교로만 생각했던 불교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재무(60·남) 씨는 “화두를 드는 선 수행을 하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불교관련 책을 통해 알았다”며 “이번 생에 못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뭔지 알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수업에 참여하게 됐다. 불교 이론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 유익하다”고 말했다.

박희승 교수는 “부처님이 깨달음에 이르렀던 과정과 불교 이론을 체계화해야 화두를 들고 수행할 수 있는 마음자세가 갖춰진다. 이것이 바탕 되지 않고, 화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공부가 실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림원은 2014년 선림원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1학기에는 육조단경과 선종사를 백담사선원 유나인 영진 스님이 강의하며, 전 봉암사 주지인 원타 스님이 실참 지도를 점검한다. 신청자격요건은 △일반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조계종 불교교양대학(원) 졸업 △선림원 참선입문과정 이수자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원서접수 기간은 2월 7일 까지이며, 개강은 3월 5일부터다. (02)768-8525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달라이 라마 한국 제자와 토크콘서트

청전 스님, 12월 15일 조계사서 법회



달라이 라마의 참된 가르침과 티베트 불교를 배우는 자리가 마련된다.

NGO단체 나마스테 코리아는 세첸 코리아, 예비사회적기업 온시맥과 함께 12월 15일 오후 4시 조계사 안심당 3층 법당에서 달라이 라마의 한국제자 청전 스님을 초청해 ‘청전스님과의 토크콘서트’를 연다.

청전 스님은 1972년 천주교 성직자로 가톨릭 신부수업을 받다가 1977년 다시 스님의 길을 선택했다. 스님은 1987년 불교 국가들을 순례하던 중 평생의 스승으로 모시게 될 달라이 라마를 만나 1988년부터 현재까지 다람살라를 지키는 청정 비구로 지내고 있으며, 〈입보리행론-보살행에 들어가는 길〉과 〈깨달음에 이르는 길-람림〉을 번역해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했다.

청전 스님은 몸이 아파서 약 타러 오는 사람들처럼 힘없이 소외당하는 가난한 삶을 살지만, “히말라야를 닮은 맑고 밝게 행복하게 그리고 착하게 사는 민중들이 나의 참스승”이라고 말한다.

법회에서 스님은 민중들과 함께 하면서 깨달은 것과 입보리행론과 람림을 바탕으로 재가 불자들이 일상과 수행의 삶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나마스테 코리아는 “청전 스님께 도울게 있는지 여쭈어보니 ‘라다크 노승들에게 전할 종합영양제를 구해주면 좋겠다고 하셨다’며 참가비는 1만원 이상의 종합영양제(유통기한 행사 당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이며 영양제가 없을 경우 2만원을 내면 된다”며 “수익금 전액은 그 자리에서 청전 스님께 공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70)7781-7089

이나은 기자

국제포교사회, 32기 기초불교영어강좌

1월 18일부터 매주 토요일 전법회관서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권영구)는 ‘제32기 기초불교영어강좌’를 실시한다.

강좌는 2014년 1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전법회관 지하 1층 교육관에서 진행된다. 강의 내용은 불교기본교리와 불교문화를 다루며 불교를 영어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다. 일반인은 10만원, 대학생은 5만원으로 1월 18일까지 국제포교사회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02)722-2206

이나은 기자



2014

2014(불기 2558)학년도 서울 금강불교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본 대학은 한국 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과과정안내

과정		기간	교과목	요일	자격	시간	서류 및 전형방법	인원	수강료
불교학과	초급과정	1년	불교학개론, 불교입문 대승불교, 관음경	월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 1교시 : 18:30 ~ 19:50 · 2교시 : 20:10 ~ 21:30	· 입학원서1부 (5,000원) · 반명함판사진 2매 · 1차 서류, 2차 면접	약 200명	1년 10만원
	중급과정	1년	천태불교학, 밀교개론 법화경 I·II	화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법사과		1년	유식사상, 유마경 금강경, 포교방법론 천태종사, 천태사교의	수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1교시 : 18:00 ~ 19:20 · 2교시 : 19:30 ~ 20:50 · 3교시 : 21:00 ~ 22:20	· 지원서 1부 · 반명함판사진 2매 · 서류전형	약 100명	학기당 25만원

원서접수

원서교부	접수 및 면접 장소·일시	위치 및 교통
우면동 관문사 : 02.3460.5300 신 촌 성룡사 : 02.336.2052 봉천동 명락사 : 02.889.7272 구 로 명화사 : 02.854.0196 망우동 삼룡사 : 02.496.3803 성 남 화성사 : 031.745.1482 일 산 화성사 : 031.905.2912 평 택 법장사 : 031.655.9090 수 원 용광사 : 031.255.4105 구 리 금성사 : 031.563.9364 안 양 대안사 : 031.459.3666 안 산 월강사 : 031.419.5048 부 천 천화사 : 032.671.5353 군 포 상락사 : 031.392.0924	• 접수 : 2013년 11월 19일(화 ~ 2014년 2월 17일(월) 18시까지 • 면접 : 2014년 2월 23일(일) 오전10시 • 장소 : 관문사 2층 면접실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 • 서울 금강불교대학 → 문의) 02.576.6401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 마을버스 18번 •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 지선버스 3412번 (LG연구소, 우면APT, 관문사에서 하차)

서 울 金 剛 佛 敎 大 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

오백나한기도성지 해동제일지장기도 영험도량

원감 해공 문도회 모임공고

삼보에 귀의합니다.

圓鑑(원감) 解空(해공) 門徒會(문도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 문도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안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57(2013)년 12월 29일(일요일) 오후 1시
◆ 장 소 : 경북영천 수덕예식장 ☎ 054)338-8196, 010-3307-7793

성석현(大聖) 김진수(大懸) 맹일균(大行) 조동국(大融) 김종권(大松) 문종호(大弘) 신판우(普覺) 정낙수(大月) 신경철(大興) 김민규(大雄) 조평제(正日) 차일환(大國) 이록희(大愚) 도현숙(正妙) 김명철(能仁) 정재환(大目) 김수열(正休) 이수진(正心) 윤정희(大湖) 장일상(大印) 홍동완(正覺) 장경희(正目) 최영복(靑谷) 김점돌(大光) 남성희(大谷) 박용준(大覺) 박형규(大休) 김대선(正觀) 전봉선(瑞雲) 장인구(大輪)

김상선(大靜) 박주미(正悟) 김동현(吉祥) 공상웅(大明) 송명섭(正道) 허정희(正大) 정종근(大默) 정성채(正眼) 배전국(大臟) 진순남(大峯) 지일수(閒默) 김종록(正印) 전용식(大宗) 이운영(大天) 김만현(正默) 권수태(正行) 남우식(雲覺) 강경래(正圓) 김정현(默潭) 김용묵(三輪) 강춘수(主山) 안봉근(能觀) 이수진(大岩) 조용찬(大鏡) 박우상(大觀) 이종일(能覺) 정태화(法修) 김주섭(如山) 황정호(白雲) 최응백(道器)

김 성(靑湖) 곽준서(迦葉) 안효진(目蓮) 김수민(수보리) 안준범(德岩) 강승철(道應) 오정열(玄虎) 김정득(정범) 김석만(청담) 김태욱(일송) 김두수(자신) 정치근(조향) 이혜련(정안) 박정수(혜수) 손정목(법산) 김창수(일공) 노혜진(혜진) 전정식(영인) 양철우(성문) 안건우(무인) 최두식(대웅) 최영국(성덕) 김태형(덕산) 이상환(경도) 정시나(상화) 김문수(혜장) 장진석(진목) 안건홍(구인)

속가상좌

김민성(普泉) 김태완(心田) 김태국(瑞明) 김건태(無碍) 김창수(光德) 김대현(道悟) 박근우(金堂) 배주형(靑谷) 강필경(道悟) 김동준(智光) 배성복(宗月)

大韓佛敎曹溪宗 永川 忠孝寺
圓鑑 解空 門徒會 門徒代表 遭向 合掌

“불교복지관 40개→1100개, 여러분 노고 덕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제15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거행

전국 불교계 복지법인과 시설에서 종사하는 자비나눔실천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2013년 한해동안 불교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주관하는 2013 한국불교자비나눔대축제 ‘제15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가 12월 6일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복지대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전국비구니 회장 명우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및 중앙종무기관 스님들이 참석했고, 대한불교 용화종 총무원장 법각 스님,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오제세 의원(민주당),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류지영 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1부 자비나눔기념대법회와 2부 불교사회복지포럼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전국 1100여 개의 불교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등 복지현장에서 활약한 자비나눔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불교사회복지발전에 공헌한 일산농인종합복지관 관장 성화 스님,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동준 스님,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도륜 스님,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이춘성 관장, 김동현 늘기쁜마을 사무국장, 이정희 성동구연꽃어린이집 원감, 이정숙 보람어린이집 원장, 윤은경 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 물리치료사, 홍순원 사단법인 자비봉사회장, 공경혜 정애원 자원봉사자, 이문희 조계종자원봉사단 봉사자, 작은보시큰자비(사회복지법인 봉은), 최경구 경기대 명예교수, 김미숙 보건복지부 불자회 총무, 신흥사복지재단 등이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엠씨에프 대표이사 성공 스님,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성수 부장,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박창재 부장,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왕정임 자원봉사자, 불교상담개발원 자비의전화 전영자 자원봉사자, 조계종 자원봉사단 윤문자 자원봉사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목동청소년수련관 관장 지완 스님과 거제시재가불자연합회 김만성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제15회 불교사회복지대회에서 포교원장 지원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우스님, 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스님 등 내빈들이 축하떡을 절단하는 모습(사진 왼쪽).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가운데)이 불교사회복지발전공헌부문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윤은경 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 물리치료사, 이정희 성동구연꽃어린이집 원감, 이정숙 보람어린이집 원장, 김동현 늘기쁜마을 사무국장에 전달했다(사진 오른쪽).

시상식에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포교원장 지원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1990년대 초 40여 곳에 불과하던 불교복지시설이 이제는 1100여 곳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불교계 복지시설이 우리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자비로운 손길을 전하고 있고 날로 증가한다는 것은 매우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앞으로 불교복지 실천가 여러분들이 보다 정진해 주길 당부드리며 나눔은 곧 수행이라는 사명감으로, 세상에 공감과 감동을 줄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해 주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회에서는 불자 국악인 김성녀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며, 올해 주요 사업으로 하나은행과 연계해 추진해 온 금융상품인 ‘자비나눔 통장(행복나눔적금)’ 출시를 선보였다.

2부 불교사회복지포럼에서는 불교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들이 방안을 모색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신행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본 나눔문화의 확산’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초기불교부터 전개된 나눔 문화의 양태와 사상적 근원과 불교계 나눔 단체들의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분석했다.

김응철 교수는 “불교계 나눔 문화는 복지활동과 자원봉사, 후원 활동 등으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신도와 사찰, 종단, 그리고 각종 복지 시설과 후원단체 및 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 불교계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종단, 교구본사, 단위 사찰과 그곳에서 신행활동을 하는 신도들이 주어진 역할에 대해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조계종단 차원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아름다운 동행을 범불교로 확대시켜 운영하며 각 종단들이 참여하고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 개편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희 봉은사 사회팀장은 ‘나눔문화 확산 모델을 통한 지역사찰의 나눔 기여 활동’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봉은사와 신흥사, 선운사의 사례를 각각 대도시 및 중·소도시형 복지사업 모델로 분석하고, △특징이 있는 나눔사업 기획 △지역과 도심사찰의 연계 △모금과 수익사업의 조화 △전문 인력과 시스템 개발 등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현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장, 민정희 로터스월드 사무국장, 김휘연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아름다운동행 12월 12일 후원의 밤

아프리카 농업학교건립을 위한 ‘아름다운 사람들의 동행이야기’

아프리카 농업학교 건립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열린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불자지도자 네트워크인 불교포럼(상임대표 김동건) 주최, BBS불교방송(사장 이채원)과 공동주관으로 12월 12일 오후 5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후원의 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동행이야기’를 개최한다.

이번 후원의 밤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행사다. 오후 5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아름다운동행의 소개 영상과 다양한 축하공연 등이 이뤄질 예정이며 아프리카 농업학교 건립 기금마련을 위한 영상보고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후원의 밤에는 가수 동물원, 크라잉넛, 이안의 콘서트가 진행되며, 가수 크라잉넛은 이날 홍보대사로 위촉식도 가질 예정이다.

불교포럼 김동건 대표는 “특별생방송 아프리카 농업학교 건립을 위한 후원의 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동행이야기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배움을 갈구하는 아프리카 이웃들에게 학교를 세워주자는 따뜻한 자비심에서 후원의 밤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은 2012년 12월 5일 자비나눔 후원의 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동행이야기’를 개최했다. 올해는 2회째 맞는 행사로 아프리카 농업학교 건립 기금마련을 위해 마련된다. 사진은 지난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로 구성된 레인보우 합창단의 공연 장면.

BBS불교방송 이채원 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아프리카 농업학교 건 립을 위해 불자들이 따뜻한 자비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현장을 생방송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연말을 맞아 후원자들과 아름다운동행을 응원해주시는 불자들에게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고자 후원의 밤을 개최하게 됐다”며 “불교의 불모지인 아프리카에 세워지는 농업학교에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농업학교 건립을 위한 후원의 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동행이야기’는 BBS 불교방송을 통해 행사 당일 오전 9시부터 밤 7시까지 10시간 특별 생방송이 전국적으로 방송된다.

이나은 기자

“후원자 여러분, 올 한해 감사했습니다”

종로노인복지관, 송년행사 마련

종로노인복지관(관장 정관)은 12월 2일 성균관 파티움에서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300여명을 모시고 송년모임 ‘좋은인연’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종로구 어르신들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수 봉사자 및 후원자 표창, 복지관 동영상 상영, 대표어르신 감사인사, 내빈 축사 등이 1부 행사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진명 스님이 ‘나의 행복 찾기’란 주제로 강연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종로노인복지관은 2013년 한 해 동안 관심을 보여준 우수 봉사자 및 후원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정관 스님은 “복지관이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는 원동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분들의 관심 덕분이며,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약소하게 전할 수 있어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은 느낌이다. 앞으로도 종로구 노인복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나은 기자

시한부 3개월에서 3년 동안 키운 희망

생명나눔, 12월 환자 고석형 씨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은 12월 치료비지원 환자로 고석형(58 · 남)씨를 선정했다. 자식과 부인밖에 모르는 성실한 가장인 고석형 씨는 2011년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시한부 3개월 선고 받던 날 온 가족은 숨죽여 울었다.

외국에서 패션스타일리스트 유학 중이던 딸은 아버지의 치료비로 꿈을 접고 귀국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구직 중이고, 대학에 합격한 아들마저 진학을 포기하고 병원비를 보태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아내는 남편 간병에 작은 옷가게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고씨는 매월 300만 원 이상 치료비가 든다. 빚을 지는 것도 한계에 달했고, 현재 생계유지조차 어려워 공과금이 밀린 것은 물론이고 끼니를 때우기가 곤란한 형편이다.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 생명나눔



고석형(58 · 남)씨

이나은 기자

봉행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

제11대 회장 광혜당 무문스님 취임 및
제10대 회장 벽담당 학명스님 이임식

귀의삼보하옵고,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
‘제11대 회장 광혜당 무문스님 취임 및 제10대 회장 벽담당 학명스님 이임식’을 아래의 내용으로 봉행하오니
제방의 대덕 큰스님들을
비롯한 대중 여러분께서는 많은 참석 바라며
향후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일시 : 불기 **2557(2013)년 12월 18일** (수) 오후 4시
■ 장소 : 동국대학교 상록원 3층
■ 문의 : 사무총장 지담 **010-2313-5671**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겨울캠프

신라 화랑들의 기상과 조선시대 승병들의 혼이 깃든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겨울캠프를 개최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 새 시대의 리더로서의 강인한 정신력을 기를 수 있는 **청소년 화랑 수련회(44회)**에 함께 하세요.
불교 강의와 인성교육, 명상과 선무도,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생활하는 등 21세기 새로운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신화랑 캠프입니다.

일 시 : 2013년 12월 22일 ~ 2014년 1월 25일
모집인원 :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0 ~ 15시 입산. 토요일 12시 하산
대 상 :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별도 프로그램)
수련회비 : 1주 - 35만원 · 2주 - 70만원 · 3주 - 90만원 · 4주 - 110만원
(교재비 포함) 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준 비 물 : 세면도구 · 수건 · 필기도구 · 운동복 · 운동화 · 방한복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접수·문의 : ☎ 054)775-1689 / 744-1689 www.sunmudo.com

▶ **교육프로그램**
① **건강회복** : 심신단련,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산행
② **호연지기** : 호신술, 국궁수련, 승마교육
③ **심성정화** : 불교강의, 108배, 참선, 운력
④ **교양수업** : 국악, 다도, 원어민 영어회화, 화랑과 원효대사의 성지순례

1500년 전통사찰 · 연간 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봉암사 결사에서 불교 위기의 해법 찾자

성철 스님 열반 20주기 초청 강연

공종원(前 조선일보 논설위원)

최근 연이어 보도되는 탓에 승풍실추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말을 보태기가 열없는 일이 돼 버렸다. 성철 스님 열반 20주기를 맞아 기획된 강연에서 공종원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위기에 놓인 한국불교의 가치회복 시발점을 봉암사 결사에서 찾았다. '무엇이든지 우리 손으로 한다' 는 의지로 시작된 봉암사 결사의 정신을 이어받는데서 불교 개혁이 울림을 가질 수 있다했다.

정리=배현진 기자

1. 외면 받는 불교 개혁운동

최근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한 신도단체가 '범계승이 있는 사찰에는 보시하지 않는다' 는 성명을 냈다. 한 교계신문은 한 종회의원 스님이 만취하여 어떤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크게 보도하고 있다. 이는 단적으로 현재 한국불교의 문제가 '지계(持戒)' 로 귀착하고 있으며 한국의 승가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다.

이를 스스로 인정하듯 조계종은 이미 2011년부터 '자정과 쇄신' 이라는 깃발을 내세우고 대대적인 개혁운동을 펴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조계종의 '자정과 쇄신' 운동 표방은 사회일반에 별다른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자정과 쇄신' 운동은 진행되어 해를 몇 번 넘기고 있지만 사회에서는 그 운동의 결과로 조계종과 스님들이 눈에 띄게 변모하고 있다는 증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미 우리사회에선 스님들이 지나치게 부유하고 사치하여 승가 본연의 '청정가풍(淸淨家風)' 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 된지 오래다.

다분히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한국불교가 아주 망가져 없어지지 않고 이 정도로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많은 선배 선지식들이 엄혹한 현실여건 속에서도 분투노력한 결과다.

실제로 최근세사를 돌아보면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을 통해 전개된 조계종의 정화운동의 공을 간과할 수 없다. 사찰에서 대처승을 몰아내고 비구의 청정성을 회복하려는 정화운동은 그자체가 민족전통 회복운동이었다.

그와 관련하여 필자는 최근세의 대표적 선승으로 추앙받고 있는 성철 스님의 개혁가적 면모를 부각해 보면서 한국불교의 진정한 가치회복이 어떻게 가능한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2. 정화운동의 뿌리 봉암사 결사

1954년 이후 전개된 조계종 정화운동도 그 실제적 뿌리이면서 정신적 기반이 되었던 '봉암사 결사' 와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다. 봉암사 결사의 수행내용은 '부처님 법대로 살아보자' 는 것이었고 그 구체적 실행내용은 성철 스님이 기초한 '공주규약(共住規約)' 이었다. 모두 18개 항으로 구성된 규약은 결사대중의 다짐으로 존속하였고 이를 지키기를 거부하는 경우는 결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공주규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님이 정한 계와 숭고한 조사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실천하여 구경의 깨달음을 원만 속성한다. 둘째, 어떤 사상과 제도를 막론하고 부처님가르침 이외의 각자 개인의견은 절대 배제함. 셋째, 일상 생계는 자치적으로 물 운반, 땔감구하기, 밭갈기, 탁발 등 어떤 고역도 받아들인다. 넷째, 소작인의 곡물납부와 신도의 특별기부에 의한 생계는 단연코 받지 않는다. 다섯째 신도의 불전 헌공은 재를 위해 가져온 현품과 지성의 배례로 한정함. 여섯째 보청과 취침 때를 제하고는 항상 오조가사를 착용함. 일곱째, 절을 나서 외출할 때는 삿갓을 쓰고 주장자를 지참해야 하며 반드시 무리를 이뤄야 함. 여덟째 가사는 마나면에 한하고 색은 괴색이어야 한다. 아홉째, 발우는 사기그릇이외 사용을 금함. 열째, 하루에 한차례 능엄대주를 송해야 한다. 열한째, 매일 두 시간 이상 노무를 해야 한다. 열두째, 한 달에 두 번 포살대계를 강송한다. 열셋째, 불전 공양은 오전에 하고 조식은 죽으로 정한다. 열넷째, 앉는 순서는 승랍에 따른다. 열다섯째, 실내에서 앉을 때는 반드시 벽을 향해야 하고 잡담은 엄금함. 열여섯째, 정해진 취침시간이외는 잠을 금한다. 열일곱째, 개인이 쓸 물자는 각자 마련해야한다. 열여덟째, 이 밖의 규칙은 청규와 기타 규칙에 준한다. 이 같은 규약을 실천궁행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함께 생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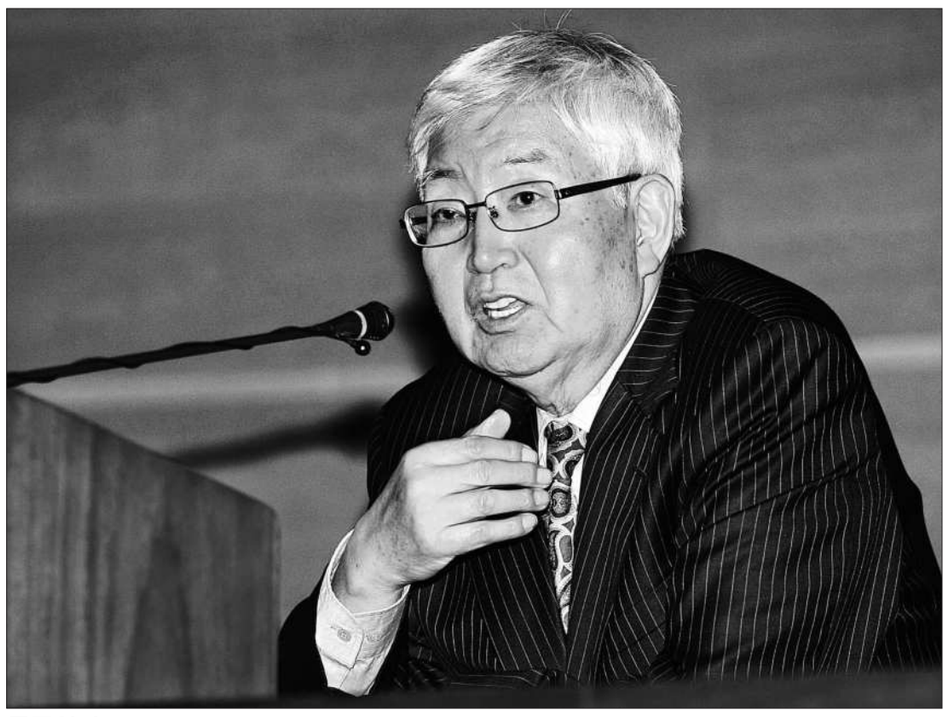
공주규약의 내용은 당시 그 어떤 사찰에서도 볼 수 없는 혁명적인 실천 조건이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성철 스님 자신의 말로는 '무엇이든지 우리 손으로 한다' 는 것이었다. "밥해 먹는 것, 나무 하는 것, 밭 매는 것 모두 우리 손으로 한다. 일체 삯군 일꾼은 안 된다 말입니다."

이런 사정을 보면 봉암사 결사의 성격이 드러난다. 첫째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에서 불교의 근본이 위태로워지고 불조의 가르침이 민멸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자하는 수좌들이 부처님법대로 살아보겠다는 의식이다. 둘째 결사의 성립전개는 순전히 수좌들 자신의 자의적 결정으로 이뤄졌다. 셋째 결사의 성립 추진 전개에는 중앙과의 연계가 없고 지역의 독자성이 두드러진다. 넷째, 결사의 내용은 공주규약으로 요약되어 집행되었는데 이는 결사의 원칙과 규율의 뚜렷함을 나타낸다. 다섯째 결사로 나타난 봉암사 생활은 청정한 수행성을 강조하고 있다. 승풍의 타락을 극복하고 신도에게 의존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자급자족하면서라도 승려의 자부심을 지키려는 의지가 들어난다. 여섯째 수행의 중심은 선(禪)이었지만 청규와 율장이 저변에 깔려 수좌들은 예불, 청소, 울력, 나무하기 등에 동참하였다. 일곱째 결사는 개방적이어서 비구니는 산내암자인 백련암에 수용되었다. 여덟째 봉암사 생활은 불교대중화에 새바람을 일으켰다. 보살계 법회, 승려에게 3배, 공양물의 평등성 등이 그것이다.

3. 정혜결사와 참선만일결사

현대 불교개혁운동의 단초라고 할 수 있는 봉암사 결사운동도 역사 속에서는 이보다 선행하는 결사운동을 모방했다. 고려시대 보조지눌의 정혜결사와 용성 스님의 참선만일결사가 그것이다.

정혜결사는 고려 말의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교단



공종원씨는 …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철학과와 동 대학원 철학과를 거쳐 1964년 라디오서울 PD로 입사한 후 동양방송 기자, 중앙일보 기자, 논설위원, 동서문제연구소장과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지냈다. 방송위원회 심의의원, 공연윤리위원회 윤리위원과 MBC, SBS 시청자위원,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객원교수, 시니어저널 주필, 불교방송 시청자위원장, 한국불교언론인 회장 등 언론, 문화예술 각 분야에도 관여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 "승풍 타락 극복하고 자급자족으로 자부심 지키려 한 봉암사 결사는 부처님 법대로 살겠다는 의지"

마저 타락일변도에 있는 와중에 윤리적 청정성을 회복하고 정혜쌍수를 포함한 수심(修心)의 새로운 선전통을 실천하자는 결의로 형성되었다. 이들이 지향한 것은 청정성의 공간이며 정혜쌍수를 구현할 수심의 장이었다. 부처님 당시의 청정승가와 중국선종이 이룩한 총림이란 수행공간을 구현하면 자연 교단의 정화가 이룩된다는 확신이 있었다.

봉암사 결사가 추구하였던 것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다만 봉암사결사는 율의(律儀)의 개혁을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개혁성이 보조보다 더 높았다.

용성 스님의 참선만일결사(參禪萬日結社)는 일제강점기인 1925년 10월에 도봉산 망월사에서 열렸다. 흔히 선사들이 계율을 경시한다는 소문과는 달리 이 결사의 창립기는 "우리 부처님께서 계(戒)로서 스승을 삼으라는 유촉을 가만히 생각하고 선율병운(禪律竝運)하되 규칙을 정함이 매우 엄격하니"라고 하여 선과 율을 함께 운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용성 스님은 여기에 선농불교(禪農佛敎)까지 요구하여 노동의 신성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철 스님이 봉암사 결사를 하면서 용성 스님의 참선만일결사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넉넉히 짐작된다.

4. 가장 개혁의지가 강했던 봉암사결사

봉암사 결사는 정혜결사나 참선만일결사, 정화운동이나 자정과 쇄신운동 그 어느 것에 비해서도 개혁의지와 개혁실천이 가장 강렬했다.

불공도 폐지하고 천도재는 금강경과 반야심경 독송만으로 한하였고, 목발우 대신 철발우와 와발우로 되돌아갔다. 비단으로 된 가사, 장삼이 금지되고 괴색가사, 보조장삼으로 돌아갔다. 종래 절살림을 맡아주었던 공양주와 부목을 절에서 내보내고 이들이 하던 일을 대중이 직접 시행하였다. 과거에 스님들이 쓰던 육환장과 삿갓도 새로 만들어 썼다. 아침에 죽을 먹는 전통도 되살리고 포살과 보살계도 되살렸다. 신도가 스님에게 공경의 표시로 삼배를 시행하였으며 공양은 승려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었다. 곡식도 전부 대중이 손으로 찧고, 나무도 모두 대중이 했으며 밭도 전부 대중이 맸다. 방부를 받을 때는 능엄주를 읽어야했고 나무 한 짐을 해놓아야 했다. 이렇게 해서 봉암사 결사를 선종 총림처럼 엄격한 수행처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 성철 스님의 뜻이었다. 법당에서 떼어낸 칠성탱화, 산신탱화, 신장탱화를 마당에 내놓고 몽땅 불사르는 과격성도 보였다.

요컨대 스님이 주도한 봉암사결사는 한국불교개혁운동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 첫째 결사는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식민지 불교의 왜곡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부처님 본래의 가르침과 우리 전통불교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둘째는 부처님 교법과 계율을 준수하려 한 근본불교적 개혁을 지향하였다. 셋째, 봉암사 결사의 정신은 불교정화운동의 이념적 모태가 되었다. 봉암사 결사 참여자의 대부분이 정화운동 세력의 핵심역할을 한 것도 그 영향이다. 이는 결국 조계종단 재건 운용과 정신사의 기초를 마련해주었다. 넷째 결사에서 실행되었던 의식, 의례 등은 이후 조계종단에서 관행화되었다. 장삼, 가사, 반야심경 독송, 승려에게 3배 등의 보편화가 그 실례다.

5. 불교개혁도 대중화와 사회화를 감안하자

전통불교 수호와 청정 수행의 차원에서 보면 성철 스님의 개혁정신은 모두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불교의 대중화라든가 불교의 사회화라는 노선에 비추어 보면 성철 스님의 개혁운동은 재평가될 여지가 있다.

첫째, 법당정리라고 하여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제외한 잡신인 칠성탱화, 산신탱화, 신장탱화를 제거한 것은 과감한 측면이 있으나 전통적인 대중신앙형태인 자연신 존중에 대한 부정을 나타낸 것으로 아쉬움이 크다. 둘째, 불공의 정비로 일반 불공과 영혼 천도재를 거부한 것은 비록 신도들의 자발성을 촉구하고 승려들이 축원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에 기초한 것이지만 신도들을 도와주어야할 승려들의 존재의미를 망각한 것으로 아쉬움이 크다. 성철 스님은 승려의 역할을 금강경 혹은 반야심경 독송에 한정하고 범패나 춤도 신도들을 끌어들이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금하였다. 또 사월초파일, 성도절, 관음재일, 일요법회 등 재가신도를 위한 기념법회도 금하였다. 이런 행사를 모두 과소평가한 것이다. 이는 신도를 모아 교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종교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무시한 선택이라 할 것이다. 셋째, 능엄주, 반야심경, 금강경, 이산혜연선사 발원문은 염송되었지만 천수경 염송은 제외되었다. 관음신앙은 자주적인 수행이 못되고 너무 의존적이라고 하여 배척되었다. 넷째, 기존의 중단예불이 폐지되고 반야심경 독송으로 대치되었다. 승려가 신중의 스승이 되어야한다는 정신에서다. 대신 불보살을 받드는 상단예불은 철저했다. 보통의 선방에선 죽비치고 절을 세 번 올리는 것으로 그쳤으나 성철 스님은 칠정례를 중심으로 예불문을 반드시 독송하도록 했다. 아침예불에는 칠정례와 능엄주, 저녁예불에는 칠정례와 백팔참회가 수행되었다. 예불절차가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을 비판하기는 어려우나 신도의 참여를 감안한 절차수정도 필요할 것 같다.

6. 산속에서도 큰 영향력을 편 성철 스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철 스님의 개혁참여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청담 스님이 주도한 정화운동에 성철은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그 이후의 종단활동에도 매우 소극적이었다. 일반적인 개혁가의 면모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종정직을 맡고집회와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때 발언하고 관여하였다. 불조유훈을 앙양하기 위해 법어를 내리고 불법의 엄정함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불교개혁가로서 성철 스님은 다만 피은(避隱)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열심히 나섰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였던가, 가야산 속에서 세상에 나오지 않고 법어만을 내보냈던 성철 스님은 의외로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스님으로 평가되었다. 수행자다운 은둔생활로 불교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지만 시의적절한 법어를 통해 중생들에게 큰 위안을 선사하는 수행자라는 평가를 듣곤 했다. 피은만 하는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진실을 이야기할 줄 아는 종교개혁가의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주곤 했던 것이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5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12월 모집중

◆ 개강일시 : 2013년 12월 17일(금요일) 개강
매주 (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생활 역학(명리)학인 모집

본 대학 생활역학 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1. 교수 및 교과내용
- ⦿ 지 도 교 수 : 임성도 교수
- ⦿ 명리학 과정 :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직업 등. 특히 사주에서 조상 보는 법, 사주공부를 하고도 정리가 안되는 분 환영
- ⦿ 성명학 과정 : 신생아 작명, 개명, 상호 짓는 법, 성명감정 등

※ 수료 후 소정의 과정을 거친 후 전문직(철학원, 작명소 개설)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역리사 자격증을 드립니다.

2. 명리학 과정
- ⦿ 명 리 학 : 초급, 중급, 고급 (각 과정 3개월)
- ⦿ 개강일시 : **2014년 1월 6일**(월) 1시부터 (90분)
- ⦿ 성 명 학 : 6개월과정(단 역학의 기초과정을 배우신 분께서는 3개월 완성)
- ⦿ 개강일시 : **2014년 1월 6일**(월) 2시 반 (90분)

3. **원서교부 및 접수** : 본 연구소 사무국

해 동 불 교 범 음 대 학
생 활 역 학 연 구 소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243-3 경동빌딩 3층
TEL : 02)741-0495, 0496 FAX:02)765-3169

"국가주의 호국 · 세속화역사 교훈삼자"

이웃종교인들, 〈불교평론〉 제56집서 우정의 충고

개신교 박재순 '국가유착 벗어나 상생평화에 앞장을'

가톨릭 오지섭 '불교 정체성 찾아, 현대 종교상황 대처해야'

유교 이기동 '진리 추구의 모습 중요, 유교의 불교 비판서 교훈을'

"원효 스님의 회통정신과 같이 불교가 상생평화의 새 시대 여는데 앞장서 달라."(개신교 학자 박재순)

"사회변화에 불교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현대 종교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가톨릭 학자 오지섭)

"유학자들이 왜 불교를 비판했는가 생각해 보라. 불자들은 불교인 이전에 사람으로서 순수한 구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유학자 이기동)

2013년 한 해를 정리하는 〈불교평론〉 겨울호 제56집에서 이웃종교 학자들의 불교를 위한 고언이 실려 눈길을 끈다.

〈불교평론〉은 특집 '이웃종교에서 보내온 우정의 충고'를 통해 개신교 · 가톨릭 · 유학 등 이웃종교인들의 불교를 위한 쓴소리를 실었다.

"국가주의 유착한 전통에서 벗어나야"

개신교를 대표해 박재순 씨알사상연구소 소장은 "국가주의와 유착된 호국불교 전통이 한국불교의 약점"이라고 비판했다.

박 소장은 "스님들이 의병을 조직해 외적과 싸운 것은 애국관점에서는 의로운 일이지만 국가주의와 결합해 전쟁과 살육에 참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이어 "불교는 억불숭유의 조선왕조 기간동안에도 국가주의와 유착된 호국불교 전통을 씻지 못했다. 억압과 학대 속에서도 왕궁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밀착돼 있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러한 요인이 한국에서 비폭력 · 불살생의 불교정신이 뚜렷이 드러나지 못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박 소장은 이어 "현재 국가주의 문명은 저물고 있다. 한국불교도 시대 변화에 맞춰 호국불교, 국가주의 전통에서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 정체성 지켜야 살아남아

오지섭 서강대 종교학과 대우교수는 가톨릭 입장에서 현대 종교상황에는 그 무엇보다 불교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오 교수는 "현대인들은 종교를 절대화하거나 종교를 부정하는 양극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불교와 가톨릭은 '삶의 종교'로서 본래 의미를 회복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그 양상으로 △왜곡된 종교 열정 △근본주의 △ 세속화 △신의 존재와 종교의 의미 부정 △유사종교 현상 △다종교 상황과 종교 간 갈등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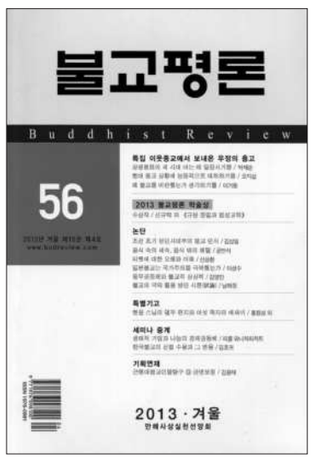
오 교수는 △초월적 인식 제공 △조화와 공존적 인식 제공 △삶의 가치관과 윤리의식 제공에 불교의 역할이 있다고 꼽았다.

"자칭 불교인은 불교 명목 이득 추구자"

유학자인 이기동 성균관대 유학동양학과 교수는 '왜 불교를 비판했는가 생각하기를' 통해 불교의 사원경제가 비대해지고 타락하며 대중의 반발을 산 역사를 예로 들고 구도자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불교인으로 표방하는 사람은 불교인이 될 때 얻게 되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며 "종교인 이전에 사람이기에 불교인, 유교인, 기독교인 등으로 자기를 소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유교의 불교비판은 불교이론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당시 노출됐던 불교의 부작용에 관한 것이었다"며 "불자들은 불교의 진리가 훌륭함에도 부작용을 남긴 역사의 교훈을 익히고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병기 불교평론 편집위원은 권두언에서 "조계종은 '각목을 들고 피 흘리는 싸움을 벌이는 스님들'과 세계에서도 유례가 드문 승가공동체 전통을 유지하며 법정과 혜민, 템플스테이 등으로 상징되는 치유의 상징적 아이콘으로 현재를 지탱해 내고 있다"며 "최근 총무원장 선거 이후 한국불교계가 지닌 양면성을 직시하고 우리를 보는 타자의 시선에도 관심을 갖고 눈을 돌려보자는 게 이번 특집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승군제는 불교의 사회 참여 일환이었다"

불교사회연구소 호국불교연구 제2차 세미나서

고영섭 '조선후기 사회적 역할'
손상필 '승려천인설 잘못된 인식'

"조선 후기 승군총섭제 아래 통솔되어지는 불교계 현실에서 승려의 부역은 불교계가 조선사회에 존재감을 과시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승군은 참여불교로서의 호국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승려들의 사회적 역할을 표출할 수 있었던 주요한 기제였다."

억불숭유의 조선시대, 스님들이 부역을 통해 사회에 불교의 역할을 찾고, 존재감을 부여했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12월 5일 불교사회연구소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호국불교 연구 제2차 세미나에서 주제발제 '조선후기 승군제도의 불교사적 의의'를 통해 "조선후기 스님들은 부역으로 존재감을 과시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조선후기인 17세기 승려가 호적에 등재되는 한편, 뼈통인식과 수행체계가 정비되며 문집 간행이 보편화되는 등 위상이 변모했다"며 "이러한 위상변화와 함께 승려들의 사회적 역할도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받기 시작했다"고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 교수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승려들의 존재감을 제도적으로 제한해 온 유교관료들은 승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으며, 불교계 또한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나서게 됐다"며 "황폐화된 나라의 상황에서 부역은 승려가 사회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운동이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조선후기 스님들은 승역을 통해 조선사회에 존재감을 대내외에 과시했다"며 "특히 승군제도는 참여불교로서의 호국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승려들의 사회적 역할과 역사적 존재감을 표출할 수 있었던 주요한 기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논평한 손성필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은 조선 후기 승려들의 신분이 비약적으로 상승했기에 조선시대 승려천인신분설은 틀리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손 연구원은 "일본인 관학자 다카하시 토우루가 유포한 승려천인신분설은 조선후기 승려층이 선승과 교학승 등 고위 승려층과 걸량승, 비승비속의 재가승 등 하위 승려층으로 구분되는 점을 반영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 연구원은 "15세기와 16세기에 불교계에 대한 국가지원 축소 및 체제에서의 불교색 배재에도 사찰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와 탄압은 없었다"며 "16세기 집필된 〈동국여지승람〉에 1658개 이상의 사찰이 기록돼 있고, 당시 불교서적 간행이 급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손연구원은 "현재 한국불교가 사회(중생)를 어떻게 이롭게 할 것인가를 모색하려면 불교계뿐 아니라 현대 국가 ·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문화유산, 박물관식 원형보존 정책에서 탈피해야"

문화재청 · ICCOM 국제포럼서 전세계 학자들 강조

"더 이상 박물관식 원형 보존 정책으로 불교문화유산을 관리해서는 안된다. 공익시설이라면 대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문화재청이 1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아시아의 불교문화유산, 그 불국토를 보존하다' 국제포럼에서 불교문화유산의 활용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주제발제 '불교문화유산 특성과 정책 방향'를 맡은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혜일 스님은"사찰과 사찰주변 자연환경이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국가가 관련법을 통해 불교계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며 규제완화 및 활용정책을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건축물이 문화재로 지정돼 더 이상 증개축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공간을 신축하도록 발상전환을 해야 하며 보상차원에서 국가가 경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며 "신행 관련 건축물을 규제하는 것은 불교를 고사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수정 문화재청 학예연구사는 "한국의 불교문화유산은 예불 등 현재도 신행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살아있는 자원"이라며 "보통 진행되는 문화재로서의 문화유산 관리와 달리 정부와 불교계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싸이 신통 중국 세계문화유산사무국 연구원은 중국 장쑤성 량주 대명사 사례를 통해 국립공원 지정 등 사찰 환경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싸이 신통 연구원은 "중국불교계와 량주시의 경우 대명사의 미적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해 촉강수서국립공원을 지정해 먼저 자연환경 보존에 나섰다"며 "사찰은 사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찰 환경과 함께 조화될 때 문화유산으로 자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랜드 실바 이코모스 본부 명예회장은 세계적인 휴일 증가 추세에 맞춰 성지순례를 비롯한 불교문화 상품의 개발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로랜드 회장은 "유럽을 비롯해 세계각국은 이제 주5일을 넘어 주4일, 심지어 주3일 근무를 바라보고 있다"며 "휴일의 증가만큼 성지순례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문화유산 활용에 힘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랜드 회장은 또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한 국민 공감대가 결국 문화재 보존에도 큰 힘이 된다"며 "특히 불교문화유산 안에 담긴 치유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이 1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국제포럼에서는 불교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제15회 진각논문발표회 12월 12일 개최

진각종 교육원(원장 경당 정사)은 제15회 진각논문발표회를 12월 12일 진각문화전승원 4층 대회의실에서 갖는다.

진각논문대상은 밀교종단인 진각종이 불교관련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불교 및 밀교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일환으로 제정돼 매년 시상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논문 4편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논문은 △밀교 부법(付法)의 역사와 유형-당말(唐末) 중국밀교를 중심으로(성제 정사) △회당의 부법(付法)에 관한 연구(혜담 정사) △유식학파의 불교해석학(황서광) △유가행파의 사심사관(四尋思觀)에 관한 연구-영상(影像)과 의언(意言)의 함의성(含意性)을 중심으로(홍응경) 등이다.

논문발표회는 교육원 교법연구실 상임연구원 수각 정사의 사회로 진행된다. 발표하고 질의하는 토론방식을 채택해 발표회가 최종논문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최종 논문작성자는 발표회를 통해 논문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며, 이 논문들은 '회당학보' 제19집에 게재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소, 학술발표회

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소(소장 법안)는 12월 14일 오후 2시 서울 템플스테이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2013년 후기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발표회에는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중앙승가대 교수 오인 스님의 '일본불교의 장례의례' △고경희 한체대 강사의 '운심게작법과 향화게작법의 비교 분석' △장현철 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소 연구원의 '한국불교 장례의례의 변화 양상' 등 논문이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동국대 강사 공해 스님, 옥천범음대학 강사 해사 스님,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이 나선다. 노덕현 기자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청년, 인문 소양 기르며 자신을 돌아본다

해남 대흥사 일지암, '청년출가 암자수행' 열어

2014년 1월 5일~2월 3일까지
운력 · 참선 · 인문학 강독 등 다양
12월 28일까지 자소서 접수 마감

초의 선사가 당대 지식인인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등과 교유했던 한 암자에서 20대 청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해남 대흥사 일지암(주지 법인)은 2014년 1월 5일부터 2월 3일까지 30일 동안 '청년출가, 암자수행 30일' 을 개최한다.

30일간의 암자수행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총 5명으로 스님들의 삶을 그대로 따를 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체험한다.

먼저 참가자들은 백장선사의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一日不食)의 청규정신에 따른 수행에 매진한다. 새벽 5시에 기상해 예불을 올리며 예불 이후 2시간 동안 불교경전과 인문학 서적을 강독한다. 아침공양과 점심공양은 참가자들이 운력으로 돌아가며 준비한다. 계율에 나온대로 오후불식이 시행된다.

특히 3일에 한 번씩은 산에서 직접 땔감을 장만해 난방을 해결하며 마을 농사일도 도와야 한다. 저녁 예불 이후에는 참가자들이 모두 모여 차담과 인문학 서적 낭독, 참선 및 수행일기를 작성한다. 바닷가와 인근 섬으로 포행가는 일정도 포함된다.

이번 30일간의 암자수행을 기획한 일지암 주지 법인 스님은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당시 청년출가학교 교장으로 지내며 청년들에게 단기출가 생활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보고 느끼며 그 중요성을 깨달았다.

법인 스님은 "청년출가학교 당시 그들이 서로 대화하며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땅끝마을 암자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30일 암자수행은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각자가 주체자로서 서로에게는 조력자가 돼 자기 삶을 경영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방법을 느끼는 자리"라며 "그들과 가슴으로 대화하고 서로의 바람을 이뤄가는데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출가 암자수행은 12월 28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사진을 첨부한 자기소개서와 김수영의 시 〈어느 날 고궁이 나오면서〉를 읽고 쓴 에세이 1편을 이메일(kasup@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모임 동참자는 12월 31일 발표한다. 지도법사 가섭 스님 (010)9004-0408


2012년 가을 진행된 일지암 템플스테이의 모습. 참가자들은 운력 · 참선 · 예불 등 스님들의 수행과 인문학서적 강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광주지역 5대 종교인 시국선언 발표



광주지역 5대 종교인들이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천도교, 원불교 성직자 100여 명은 12월 5일 광주YMCA 무진관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촉구 시국선언문' 을 발표했다.〈사진〉

이날 5대 종교인들은 "지난 18대 대선은 불법적으로 치러진 부정선거"라며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명백한 헌정유린이며 민주주의 파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당연한 일임에도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조작하고 있으며,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촛불을 든 수많은 애국 국민들의 염원과 실천을 '종북' 으로 몰아세우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국가정보원 부정 불법 그리고 공동체의 갈등의 근원은 남북분단"이라고 진단하고 "참된 종교는 정권에 대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현지 스님(원효사 주지), 김용성 목사(광주NCC 총무), 이영선 신부(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 이우원 선도사(천도교)이 나섰다. 불교계에서는 현지 스님을 포함해 15명의 스님이 동참했다.

현지 스님은 시국발표를 통해 "북한에 대해 족벌체제, 세습체제 등 온갖 비난을 하는데 우리나라를 보면 남말 할 때 아니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날 종교인들은 촛불대회에 적극 참여하며 시국미사, 시국법회, 시국기도회 등을 진행할 것으로 결의했다. 천도교는 이날 시국선언 이후 20일간 새벽 5시부터 시국을 위한 기도회를 전교인이 펼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완주 송광사, 비행우려 청소년 템플스테이

전북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는 11월 29일 비행 우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비채(나누고 비우고 채우고) 템플스테이' 를 개최했다.

전주 덕진경찰서의 자체 선도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송광사 5차 나비채 템플스테이에는 중학생 11명이 참가해 심신치유를 위한 명상과 108 참회, 발우공양, 스님과의 대화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들 청소년들은 자연친화적인 생활방식인 불교의 템플스테이를 통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고 지역의 문화유적에 대해서도 살펴볼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프로그램에 동참한 백모 군(중2)은 "스님과의 대화시간 중 '마음을 쫓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 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다"며 "다른 친구들에게도 템플스테이를 꼭 추천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덕진경찰서 관계자는 "비행우려 청소년들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평소 학교와 학원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길러 다른 친구들에게도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착한벗들, 다문화 가정 겨울나기 지원


착한벗들 회원 스님들과 겨울나기 용품을 지원받은 사람들이 행복한 미소를 짓고있다.

추운 겨울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자비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지역의 시군단위로 4대종단 지도자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김장 김치 나누기를 진행한데 이어 난방연료와 쌀, 식료품 지원에 나섰다.

사단법인 착한벗들(이사장 회일, 참좋은우리절 주지)은 11월 30일 전주와 완주지역 내 형편이 어려운 이웃과 다문화가족 12가구에 난방용 등유와 연탄, 식료품 등을 전달했다.

매년 참좋은우리절 불교대학이 주관 하던 '자비의 연탄' 전달 행사를 '사단법인 착한벗' 들로 이관하면서 다문화 가정도 수혜가구에 추가해 예년에 비해 7가구 늘어난 12가정으로 확대했다.

회일 스님은 "매년 이맘때면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손길을 펼치고 있지만 전북지역의 경우 불자 중심의 사회단체가 드물어 그간 타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이 적었다"며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자비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불자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착한벗들은 12월 29일 아동, 청소년 총 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3일~5일까지 참좋은우리절에서 열리는 '가자! 어린이겨울캠프' 에 지역내 다문화가정 및 불우가정 자녀 20여명의 참가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주불교계, 김장나누기 봉사 '훈훈'


원봉문화복지회 봉사단원들이 직접담근 김치를 들고 활짝 웃고있다. 이날 김치는 총80가구에 전달됐다.

사단법인 원봉문화복지회(이사장 원봉)는 11월 28일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에 김장담기봉사를 실시했다.

김장담그기 봉사는 태고종 청주 보현사(주지 혜성) 신도회, 조계종 법수사 봉사단, 진천 자재암 자비원 봉사단, 상당구, 흥덕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 총 100여명이 함께했다. 이날 담근 김장은 한 가정에 1박스(10kg)씩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정 등 총 80가구(상당구 40가구, 흥덕구 40가구)에 전달됐다.

이번 김장에 이용된 배추와 양념은 스님들이 직접 재배한 유기농 농산물을 이용하였고, 스님들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달하면서 연말연시 각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기를 기원했다.

(사)원봉문화복지회는 한국불교 태고종 중앙종회 의장을 역임한 보현사 회주 원봉 스님이 설립해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하여 장학사업, 물품 지원 등의 경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주 용화사(주지 각연)도 11월 25일부터 이틀간 용화사 신도 30명, 새터민 20명과 함께 김장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새터민들은 자원봉사에 참여해 일손을 나누며 '북한식 김장김치' 도 선보였다.

용화사는 "추운 겨울 새터민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광주 원각사 수계법회… 12월 5일 봉행

오계 실천을 위한 수계식이 봉행돼 화제가 되고 있다. 광주 원각사(주지 도요)는 12월 5일 대웅전에서 200여명의 수계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5계 수계법회' 를 봉행했다.〈오른쪽 사진〉

이날 수계식에는 송광사 율월장 도일 스님이 계사로 나서 마정수계를 진행했다.

도일 스님은 법문을 통해 "선업을 쌓는 가장 현명한 길이 5계를 수지하고 실천하는 것"이라며 "스님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은 계율을 재대로 배우지 않아서 생긴 일로, 5계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수승한 공덕을 갖는 덕목으로 잘 수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일 스님은 이어 불자들의 5계의 적극적 실천인 방생, 진실된 말, 깨끗한 생활 등을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마음공부로 행복의 씨앗 심는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템플스테이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겨울방학을 맞아 초·중·고생을 위한 마음공부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사진은 지난 1월 겨울 수련 프로그램의 한 장면.

어린이·청소년 겨울 방학 프로그램
'멋쟁이 내 친구' 성장과 변화 기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주지 혜도)은 '멋쟁이 내 친구' 라는 주제로 초·중·고생을 위한 겨울방학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행사는 12월 30일 초등학생 템플스테이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5일까지 초등학생 2회, 중고등학생 2회 총 4회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지 혜도 스님은 "보다 많은 이들을 마음공부로 이끌고 또 내면에 행복의 씨앗을 심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하다가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의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며 "이 시기에 가질 수 있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내 안의 힘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법당 준공 이후 마련된 첫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인 만큼 준비하는 정성도 지극하다. 참가자들의 수련복을 자원봉사자들이 손수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마련했고, 기간 동안 건강사찰음식을 식단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할 예정이다.

'멋쟁이 내 친구'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불교라는 이름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렇다면 주요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 첫째, '마음으로 그리는 춤' 은 불가의 지혜와 마음 작용을 담고 있는 선법가의 뜻을 음미하며 마음에서 느껴지는 바를 몸으로 표현 내면의 무한 에너지를 깨운다. 춤 명상, 춤 테라피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둘째, '대긍정의 말씨앗' 은 자신의 미래를 밝게 변화시킬 힘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소리명상이다. 성장기에 누구나 겪게 되는 시기 질투, 후회, 집착 등으로 힘든 마음을 목탁을 치면서 대긍정의 말씨앗을 함께 독송하는 시간이다.

셋째, '다도야 놀자' 는 실용다법을 통한 소통과 나와 상대를 향한 존경의 마음을 연습한다. 넷째 '촛불재' 는 마음의 불을 밝혀 스스로가 이미 갖추어진 멋쟁이임을 자각하는 시간이다. 다섯째 '미래여행' 은 10년 뒤, 20년 뒤 미래의 구체적인 모습과 꿈을 그려 보고 꿈과 목표를 통해 자신이 진정 원하는 행복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다. 이외에도 캠프파이어, 자유 선택프로그램으로 염주 꿰기, 단청그리기, 탁구, 배드민턴 등이 마련돼 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공부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산다. 왕따, 학교폭력, 자살 등 부정적인 요소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기 위해선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겨 낼 수 있는 마음의 무한에너지를 스스로 찾게 하는 것"이라며 "행복의 길은 멀리 있지 않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을 일깨우는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으로 행복한 사회의 주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051)403-7077

박경수 부산지사장

'선다를 통한 내면 여행' 이색 진로 체험

동명대 불교문화학과
고3 위한 프로그램 진행


동명대 불교문화학과는 부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선다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부산 동명대(총장 설동근) 불교문화학과가 동계방학을 앞두고 중고생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동명대 불교문화학과(학과장 박재현)는 지난 12월 2일 동명관 세계선센터에서 부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61명을 대상으로 '선다(禪茶)를 통한 내면여행' 행사를 개최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명상과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 챙김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동명대 불교문화학과와 세계선센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박재현 불교문화학과 학과장은 "수능을 끝낸 청소년들이 요즘 같은 시기에 자칫 들뜨기 마련인데 이럴 때 잠시 동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정서적 안정과 진로탐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취지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차맛을 음미하며 한국, 중국, 일본 차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해하고 참선체험과 지혜 계발, 명상요가 체험 등을 3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홍원사 낙성 법회


홍원사 부처님 점안식 및 낙성 법회

칠곡 동명 홍원사(주지 홍원)는 12월 1일 부처님 점안식 및 낙성 법회을 봉행했다.

김호철 신도회장은 "점안과 낙성 법회에 동참한 인연공덕으로 온누리 모든 중생이 삼독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와 행복속에 맑고 향기롭게 삶을 살아갈 힘찬 날개 짓을 시작하려한다"고 발원했다.

2부에는 테이프절단 공로패 증정,경과보고, 홍원 주지스님인사, 보운 스님의 격려사와 축사가 이어졌다. 이날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은 법문을 통해 "이 자리에 동참한 불자는 상을 버리고 신심을 가져야 한다. 번뇌와 망상을 버리고 삼독심을 이겨내야 한다. 이를 위해 홍원사 법당을 귀의처로 삼아 정성껏 발원 기도하라"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호스피스 사례집
〈정토의 하얀 연꽃〉 발간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대표이사 지현, 관음사 주지)은 환희불교복지대학 창립 15주년을 맞아 불교호스피스 사례집 〈정토의 하얀 연꽃〉 발간행사를 개최했다.

환희불교복지대학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 지혜, 원력을 바탕으로 15년간 호스피스 정기교육 30기까지 1,23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또한 이곳에서 배출된 600여명의 봉사자들은 병원과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사찰 정원 보존은 교리 수호하는 일

우리나라 정원의 조성은 불교의 전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교전래 초기단계에 지어진 부여 정림사의 쌍지(雙池)나 경주 불국사의 구품연지와 같은 정원유구들이 그러한 사실을 증거한다.

일본의 경우 유명한 정원은 대부분 사찰에 남아있는 것이다. 헤이안(平安)시대에 만들어진 모쓰지(毛越寺)나 뵤도인(平等院)의 정원은 정토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가마쿠라시대에 만들어진 교토의 텐류지(天龍寺)나 사이호지(西芳寺), 료안지(龍安寺), 다이센인(大仙院)의 정원은 선사상에 기초한다. 이러한 정원은 대부분 그 사찰에 주석하는 스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원을 만드는 스님을 석립승(石立僧)이라고 불렀다. 이것을 보면 정원 만드는 명인들은 대부분 스님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가마쿠라시대에 살았던 무소오 소세키(夢窓疎石)나 무로마치시대에 활동했던 화성(畵聖) 셋슈(雪舟) 같은 스님들이 증거하고 있다. 이 스님들의 작품은 아직도 일본 각지의 사찰에 잘 남아있어 스님들의 솜씨가 후대에 전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정원의 원류가 사찰의 정원이었음을 확인해준다.

우리나라에도 스님들이 만든 정원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정원들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사찰의 정원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한 곳이 없는 것을 보면 그러한 사정을 알 수가 있다. 심지어는 연못을 메워버리는 일도 있고,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나, 일본식 정원유구를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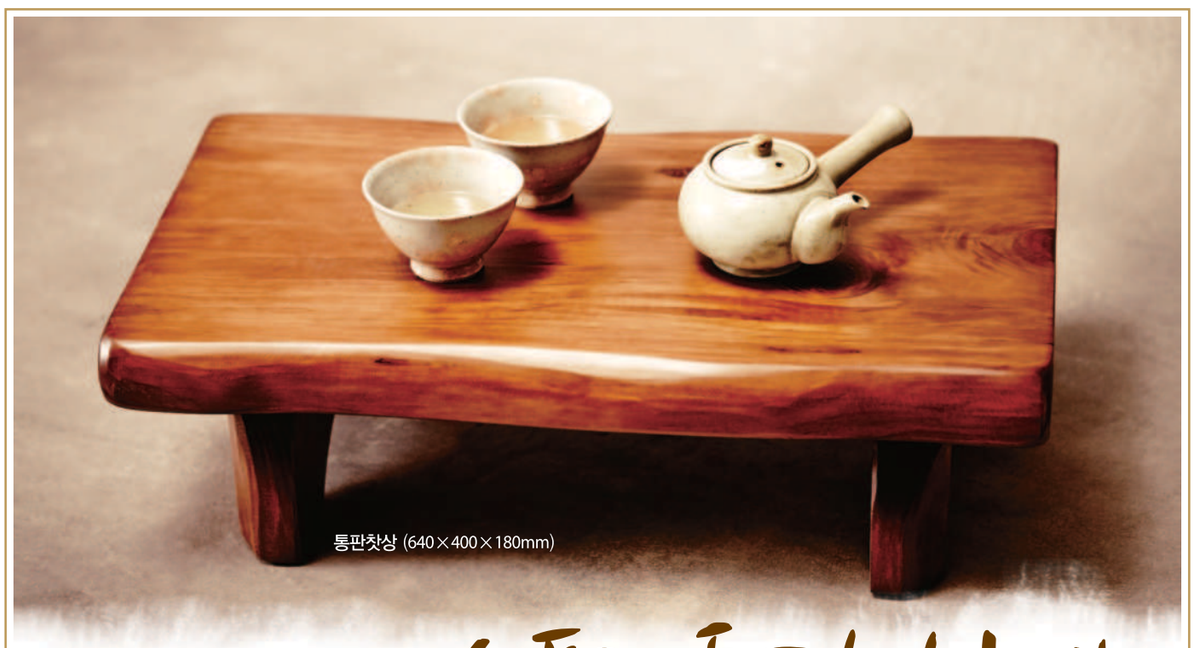
사찰의 정원은 분명한 조성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다. 우리나라에는 관무량수경에 근거해서 만든 정토정원이 많은데, 연꽃을 심은 연지가 바로 정토정원의 중심이 된다. 부처님의 그림자나 탑과 산봉우리의 그림자를 비치도록 만든 영지 역시 부처님이나 탑이나 산봉우리를 가까이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조성한 정원이었다.

우리나라 사찰들은 풍광이 아름다운 곳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정원을 만들지 않아도 정원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생각도 있다. 자연이 곧 정원이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사찰의 정원은 교리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지는 것이지 아름다움을 완상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사찰에 만들어진 고정원을 보존하는 것은 곧 교리를 수호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한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사찰에 만들어진 정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형되어서는 안된다. 사진은 전라남도 ㅅ사찰에 있는 정원 모습.





육도 중생 위해 지장보살님 백천모습 나투셨네

六道

기도하기 좋은 지장도량- 양주 육지장사

살빼는 사찰로 유명한 육지장사는 지장도량이다.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도리산에 위치했다. 원래 지장보살님(육도,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안간천상)은 중생 제도를 위해 백천가지 모습으로 나투하시어 구제하신다. 그런데 대표적인 시현이 육지장 〈일광지장(천사아계) 제계지장(인간계) 지지지장(아수라계) 보인지장(축생계) 보수지장(아귀계) 단타지장(지옥계)〉으로 나툰다. 이 사찰은 육지장 6만불 봉안사찰이기에 절 이름을 육지장사라 부르게 됐다. 우리 고유의 풍수지리학적 입장에서 보면 도리천궁(육지장사)은 아주 좋은 길지로 명당에 속한다고 한다. 대웅전 좌향은 정남향이고 좌측은 일출봉 주봉에서 힘차게 내려 뻗은 청룡등이 견실해 기도 성취와 용문에 들어서는 출세의 근간이 될 기운이 함축돼 있다고 한다. 또한 우측은 어머니의 충만함이 서려 덕의 상징인 백호동이 감싸안았다.

대웅보전에 들어가보면 여섯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다. 그런데 형상과 이름이 각기 다르다. 지장보살은 석가모니의 부촉을 받아, 그가 입멸한 뒤 미래불인 미륵불(彌勒佛)이 출현하기까지의 무불(無佛)시대에 6도(六道)의 중생을 교화 · 구제한다는 보살이다.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좌우에 각각 3개씩 지장보살상이 위치해 있다. 대웅전은 가운데에 기둥이 전혀 없는 130평 통방으로 강북에서는 가장 넓은 법당이다.

대웅전에서 참배를 하고 나오면 뒤쪽으로 좌우 양편에 지장보살님이 서 계신다. 이 곳이 바로 육지장사 '소원 명소' 다. 절터를 따라 놓인 108범종. 하나 하나 따라 치다 보면 먼저 간 조상들과 자신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영물이다. 3명의 지장보살도 보인다. 그 표정들 무심하시다. 일명 포커 페이스다.

회주 지원 스님에 따르면 참배 순서가 대웅전 앞에 서서보면 왼쪽서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 왼쪽에 서 계시는 분이 바로 모자 지장보살이다. 그 옆으로 108범종이 가지런히 정렬돼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수행하는 마음으로 치면서 돌다보면 정중앙에 구병 지장보살이 있다. 다시 범종을 치며 따라돌면 거대한 석조불상이 나타나는데 이 분이 바로 출세지장보살이시다.

모자 지장보살 앞에서는 자식들의 원만성취나 결혼 발원을 주로 한다면, 구병 지장보살앞에서는 병을 깨끗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 한다. 그리고 출세지장보살앞에서는 사회적 출세에 대한 발원을 많이 한다.

다시 대웅전 앞에 서서 계단쪽을 내려다보면 두 개의 건물이 눈에 선명히 들어온다. 왼쪽이 선재당(善財堂)이고 오른쪽이 수선당(修禪堂)이다. 양쪽 대칭의 건물이 조화를 이룬다. 정중앙에는 높은 계단이 대웅전까지 연결해 주는데 모두 옥돌이다. 바닥과 회랑도 옥돌이다. 중국에서 건너온 것인데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방출된다고 한다. 역시 건강템플스테이를 하는 사찰답다. 좌우의 석수(石獸)는 사자인가 했더니 천구(天狗)다. 도리천에 사는 하늘개로서 이승과 저승을 드나들며 지장보살님의 명에 따라 갈 길 몰라 헤매는 자에게는 길을 안내해 주고, 허공을 헤매는 외로운 영혼을 인도해주는 행운의 길라잡이라고 설명한다. 법성게(法性偈)를 바닥에 새긴 돌판도 인상적이다. 화엄경 200여 권의 내용을 30절 210자로 압축해 노래로 만들고 우주법계의 진리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법(法)으로 시작해서 불(佛)로 끝난다.

사찰내 지장보살님 6만불 봉안
108범종치며 누구나 수행 가능
건강다이어트 템플스테이 인기

육지장사는 건강과 힐링 사찰로 유명하다. 공간이 비교적 넓다보니 대규모 템플스테이가 가능하다. 회주 지원 스님이 개발한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특별하다. 다이어트를 원하는 이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해 한달에 2백명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육지장사는 휴식형과 테마형 템플스테이가 활성화 돼있다. 테마형은 건강템플스테이인데, 스트레스성 비만 치료에 대해 마음 수련을 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와 동반하는 비만이나 건강과 관련해서 치료(힐링)를 하고 있다.

단식형 템플스테이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참가 전에 감식기간을 2일 정도 진행하고 템플스테이 하는 동안에는 절에서 제공하는 차를 마신다. 그리고 일상에 돌아가서는 보식을 이틀정도 진행하는 테마이다.

월요일과 화요일을 제외하고는 2박3일, 3박4일 단위로 상시 운영된다. 이외에도 모유정 육각수 체험과 게르마늄 및 쑥뜸 온구 체험 등도 할 수 있다. (031)871-0101

양주 육지장사=김주일 기자



육지장사는 6만 지장보살상이 봉안된 지장도량이다. 사진 가운데 위에 보이는 것이 대웅전이고 좌우에 위치한 건물이 선재당과 수선당이다.



대웅전 안에봉안된 육지장 보살. 가운데는 석가모니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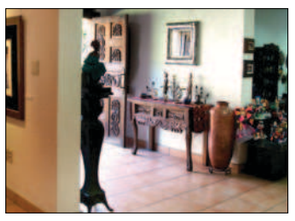
모자지장보살



출세지장보살

주변 볼거리

가볼만한 곳



고양시 벽제에서 송추로 이어지는 길목은 경기북부가 개발되기 훨씬 전부터 예술가들이 들어와 작업장을 만들었던 곳이다. 그 중간에 **중남미문화원**(사진 위 · 031-962-7171)이나 **장흥아트파크**(031-877-0500)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고양시 고양동의 중남미문화원은 중남미에서 30여 년 간 외교관 생활을 한 이복형 대사와 부인 홍갑표 이사장이 중남미 지역 풍물을 모아 만든 박물관이다. 이 곳에는 마야나 아즈텍 잉카 등 중남미의 대표적 문화 유물이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다. 미술관에는 중남미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그림과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다. 또 조각공원을 비롯한 야외에는 중남미 12개국의 현대 조각가들이 만든 작품들이 설치돼 있다. 한 마디로 중남미 문화에 흠뻑 취하면서 라틴 사람들의 열정까지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 전시된 미술 작품 가운데 칸디도 비도(도미니카공화국)의 '생명의 나무와 태양' 이나 빅토르 모헤다노(멕시코)의 '이브' 등을 보면 이들의 미술이 얼마나 열정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장흥유원지 입구에 자리 잡은 장흥아트파크는 전시와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테마파크형 문화공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도 좋은 곳이다. 미술관은 6개 전시장을 갖고 있는데 앤디 워홀이나 리히텐슈타인, 백남준 등 국내외 거장의 작품을 언제라도 감상할 수 있는 상설전시장과 '작가-관객-미술관' 사이의 열린 구조를 지향하는 기획전시실이 있다. 또 3000평 규모의 조각공원과 작가의 창작 활동이나 전시를 연계해 지원하는 아뜰리에,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한 야외공연장,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미술관 등도 있다. 특히 조각공원엔 부르델이나 아르망, 조지 시걸 등 고전과 현대를 대표하는 외국 작가들과 강대철, 문신, 전국광, 한진섭 등 국내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돼 있어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한다.

장흥아트파크 인근에 자리한 **청암민속박물관**(031-855-5100)도 시골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농기구와 생활용품들을 전시하는 곳이다. 물건들을 단순히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원, 대장간, 외양간, 서당, 교실 등 당시 상황에 맞게 재현해 전시하고 있어 보는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맛집



육지장사에서 내려오면 기산저수지 인근에 맛집이 많다. 그중 기산호박돌(사진 오른쪽 · 031-871-6636)의 정식은 값에 비해 반찬이 푸짐하다. 이외에도 송추가마골(031-826-3000), 다담(031-876-8896), 계수나무(031-876-5424), 들꽃피는 언덕(031-876-0072) 등이 있다.

(주)에스굿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초특가"
■ 양곤/바고/시리암 (직항) 5일
■ 출발확정 : 12월 18일
양곤/바고/시리암(아시아나항공) 5일
999,000원 ※ 모든 경비 포함 ※
■ 양곤/바간/헤호 5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황금파고다/철야기도 가능)
- 요금문의
해외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마하-연 여행사가 추천하는 품격 성지순례
마하연 강력추천
● 은둔의 나라 라오스 성지순례 (직항) 5일 139만원
● 스리랑카 정통 성지순례 (직항) 7일 210만원
● 인도8대 성지순례 15일 ..... 요금문의
● 지장도량 / 관음도량 성지순례 7일 139만원
(구화산. 황산. 보타산. 낙가산)
● 지장도량(구화산 / 황산) 성지순례 4일
● 관음도량(보타산 / 낙가산) 성지순례 4일
● 문수도량(오대산 / 석가장) 성지순례 5일
● 보현도량(아미산 / 낙산) 성지순례 5일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중국 · 태국 라오스 현지 직영 사무실 OPEN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해외지사 : 양곤 사무실 (가바이파고다 앞) / 전화 951-667170. HP 95943048476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기사, 각국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 2억원 여행자보험가입

미얀마 불교 이야기
17. 미얀마 불교와 인도

인도는 미얀마 불교 중국 견제책으로 활용

지리적으로 인도가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는 루트의 초입이 바로 미얀마이다. 불교 발상지인 인도 아대륙과 맞닿아 있는 미얀마는 일찍부터 불교를 포함한 인도문화가 전해졌다.

인도와 미얀마 간의 내왕은 석가족의 미얀마 이주 전설과 쉐다곤 파고다 건립 전설 등에서 시사하듯 육로를 통해 서로 내왕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과거에는 육로보다는 해로가 여러 가지로 더 용이했다. 인도 아대륙과 미얀마 사이에는 벵골만이라는 바다를 통해서이다. 이러한 해로로 인도와 동남아가 이미 기원전부터 무역과 함께 민족의 이동 그리고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있어왔다.

인도의 영향은 미얀마를 거쳐 라오스나 캄보디아 그리고 태국 등 광범위한 지역에까지 이르렀다. 미얀마는 몬순의 열대지방으로 동아시아보다는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와 자연환경적으로 더 가깝다. 때문에 오히려 인도에서 자취를 감춘 인도불교문화가 인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미얀마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이다.

다시 미얀마와 인도가 육로를 통한 국경이 무너진 것은 영국지배기간 동안이었다. 미얀마는 영국식민지배 기간 동안 영국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인도의 한 주에 편입됐다가 분리된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영국제국주의자들의 분할정책에 따라 대거 인도인들을 미얀마에 이주시켜 통치하기도 하였다.

이 때 이주한 많은 인도인들은 다시 인도로 돌아갔지만 지금도 미얀마 인구의 2%를 형성하고 있다.(이에 반해 중국계는 3%로 나타난다.)

이러한 시기에 미얀마와 인도 양국 간의 불교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중요한 인물은 다름아닌 고엔까(S. N. Goenka: 1924~)이다.

현재 인도 국적을 지니고 있는 그는 영국식민기간에 이주한 인도 부모로부터 미얀마에서 태어나 1969년인 그의 나이 45세에 인도로 돌아갈 때까지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였다. 그는 31세 때에 미얀마의 재가자인 우 바 킨(U Ba Khin)을 만나 위빠사나 수행을 하였다. 14년 동안을 우 바 킨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미얀마의 위빠사나 수행전통과 불교를 다시 불교의 발상지인 그의 고국에 옮기는 기념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봄베이의 이가뜨뿌리(Igatpuri)에 위빠사나 수행센터와 위빠사나 연구소(Vipassana Research Institute)를 세워 인도는 물론 전 세계에 불교 진흥사업과 위빠사나 수행을 활발하게 전파하고 있다.

인도에 있으면 미얀마 전통처럼 숙식 등 일체를 제공하는 그의 수행 센터를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다. 그의 위빠사나 수행센터에는 수많은 인도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찾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지에 그의 위빠사나 수행센터 분원이 있을 정도다. 그의 역할은 인도에서는 사라진 불교전통을 미얀마에서 체득한 수행을 통해 복원시키는 것이다.

그는 필자가 2012년 12월 미얀마를 찾았을 때 그를 따르는 수천 명의 인도인과 외국인과 함께 미얀마를 방문해 미얀마 국립극장에서 법문을 하는 등 양곤 시내가 떠들썩할 정도로 행사를 치뤘다.

같은 시기인 2012년 12월 15~17일 미얀마에서는 인도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국제불교문화유산학술대회(International Seminar on Buddhist Cultural Heritage)를 개최됐다. 학술대회 이후 20일까지 3일간은 미얀마의 주요 불교유적지와 불교대학 등을 답사가 기획됐다.


The New Light of Myanmar
Waxing of Nadaw 1374 ME
Monday, 17 December, 201
Dhammaçakka Mudra sand stone Buddha Image consecrated
Chancellor of Sitagu International Buddhist Academy Agga Maha Pandita Dr. Bhaddanta Ñanissara, members of the Sangha, Union ister Thura U Myint Maung, Indian External
takadhara title recipient Sayadaws and international
sermon on the lotus throne is the replica of Buddha Image
by the Indian Prime Minister during his visit to Myanmar
Minister, Deputy Mini for Religious Affairs U

미얀마 최고의 불교성지인 쉐다곤 파고다에 인도정부가 기증한 초전법륜상(사진 왼쪽)을 봉안하는 제막식 보도사진. 인도외무부 장관 등의 인도 정부 측 대표들과 미얀마 부대통령과 종교성 장관 등의 정부 수반과 각료들이 참석했다.

이 같은 불교행사는 양국 수뇌부가 합의해 결정한 것으로 미얀마의 테인 세인(Thein Sein) 대통령이 2011년 10월 인도 방문 시에 인도의 맘모한 싱(Manmohan Singh) 수상의 제의에 따라 성사된 것이다.

인도정부의 문화부(ICCR : The Indian Council for Cultural Relations)와 주 미얀마 인도대사관 그리고 미얀마 정부의 종교성(Ministry of Religous Affair, Myanmar)과 씨타구 국제불교대학교 등이 연합해 함께 개최했다. 개최 목적은 표면상으로는 양국과 관련한 종교적 그리고 문화적 행사로서 붓다 성도 기원 2600년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행사였다.

양국은 이같은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양국 간에 기념비적인 관계발전으로 나아가자는 것을 서로 역점을 두어 강조했다.

필자도 이 때 초대받고 모든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미얀마 부대통령(Dr. Sai Mauk Kham)과 인도 외무부 장관(Mr. Salman Khurshid) 그리고 찌따구 국제불교대학교 총장 스님(Dr. Bhaddanta Nanissara) 등이 직접 붓다 찬탄의 독송과 불단(佛壇) 점등식 등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인도 위빠사나 수행을 역수입
모사 성물을 미얀마에 봉안
물류 · 경제 프로젝트 동시 진행

인도 외무부 장관은 인도불교가 끼친 인류문화사에 대한 기여와 인도와 미얀마 간의 역사, 그리고 불교를 통한 관계를 상기시키고 행사를 계기로 획기적인 양국 관계로 발전시키자고 강조했다.

특히 인도 외무부 장관은 인도가 미얀마 불교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주지시켰다. 양국은 행사에서 석가모니 붓다의 성도 2600년을 맞아 불교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임을 또한 강조했다. 행사에는 인도와 미얀마의 불교학자와 교수를 중심으로 동남아의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타이랜드와 스리랑카,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미국, 영국 그리고 한국 등에서도 초대됐다. 하지만 인도와 미얀마의 불교지도자와 학자가 중심을 이루었다.

3일간에 걸친 행사의 마무리는 인도 측에서 담당하고 미얀마 최고의 불교성지인 쉐다곤 파고다에 수많은 인파속에 인도정부가 기증한 불상을 봉안하는 제막식 행사로 진행됐다.

약 5m 높이인 이 불상(佛像)은 인도 국보인 바라나시의 초전법륜 불상을 인도정부가 모사(模寫)한 것으로서 인도수상이 2012년 5월 29일 미얀마 방문 시 미얀마 종교성에 기증했다. 인도외무부 장관과 주 미얀마 인도대사 그리고 미얀마의 부대통령과 종교성 장관 등의 정부 수반과 각료들이 참석했으며 양국의 정부기관과 주요 인사들의 위원회로 구성된 불교문화유산 사진전과 불교영화제와 공연 이외에도 인도– 미얀마 문화교류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제막식 끝에는 미얀마와 인도 정부가 세계불교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킬 것을 결의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공포했다. 이 때 모든 국가의 대표들과 함께 회의를 통해 채택된 성명서의 중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형 무형의 불교유산을 보존(preservation)하기 위해서 유네스코, ASEAN SEAMEO SPAFA, SEAMEO CHAT은 물론 다른 지역적 국가적 또는 NGO 등의 모든 기구와 협력할 것.
- 인도와 미얀마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모든 유형 무형의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보호(protection) 그리고 재건(restoration)하는데 함께 노력을 경주할 것.
- 세계불교문화유산을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와 교육 모든 분야에 걸쳐 교류할 것.
- 이러한 목적 하에서 불교문화유산 보호와 보존을 위한 국가들 간의 정보교환을 이행할 것.
-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불교학자와 불교도서 그리고 불교잡지와 VCD 등을 서로 교환하는 데 노력할 것.
- 불교의 지적 재산은 물론 불교국과 불교공동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
- 지역이나 국가 또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적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
- 불교문화에 대한 관광과 불교 성지순례를 한층 향상시키는 노력을 할 것.

이후 각국의 불교 대표들은 미얀마 불교유적지와 주요불교대학 및 불교기관에 대한 설명회 차원의 답사를 가졌다. 미얀마의 중요 불교성지인 바간, 만달레이그리고 사가잉 등을 순례했다.

미얀마에서 불교는 종교적 영역을 훨씬 뛰어넘어 미얀마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얀마에서 불교를 중국 견제의 동방정책의 주요 발판으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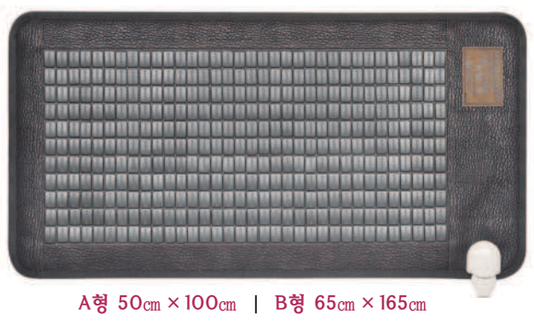
인도는 중국의 실용주의적 외교전략에 맞서 기존에 미얀마를 군부와 민주화 문제와 관련해 미얀마를 비판했던 데에서 정경분리의 입장으로 선회하여 미얀마와의 깔라단 프로젝트와 같은 실리를 위해 불교를 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도는 불교의 발상지답게 중국보다 유리하게 불교를 소프트 파워로 주변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 비추고 있다.

인도는 미얀마의 분쟁지역인 라카인 주(Rakhine state)의 주도인 시뜨웨(Sittwe)에 현대식 항구를 건설하고 이를 동부인도인 꼴꺼따(Kolkata) 항구에 그리고 다시 깔라단 강을 따라 동북부 인도인 미조람(Mizoram)을 연결시키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인도가 동남 아시아로 진출하는 발판으로 삼고 있다. 이를 깔라단 프로젝트(MMTTP : Kaladan Multi Modal Transit Transport Project)라고 한다.

이것이 완성되면 양국 간 엄청난 물류비용 절감과 무역증대 등의 정치 경제적 이익과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인도의 절박한 상황은 인도가 프로젝트의 모든 경비를 부담하며 완공되면 미얀마 측에 양도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즉 인도는 미얀마와의 깔라단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은 정치 경제의 실익을 위한 국가전략 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동남아 또는 아시아에서 불교를 두고 중국의 남진정책과 인도의 동방정책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불교는 현재 국제관계에 있어, 단순한 종교적인 의미가 아닌 정치, 경제적인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조준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교수)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귀사문석(貴蛇紋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 09-651인 의료기기 입니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A형 50㎝ × 100㎝ | B형 65㎝ × 165㎝
기도할 때는 좌복으로,
취심시에는 온열 매트로!!
올 겨울 추위는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 완전 차단)과 함께!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 리베로빌딩 5층
■ 문의전화 : 031)595-8767, 010-4399-4326 선재생활건강(주)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경의로운 최면의 세계!!
전생요법·빙의치유법
인간의 잠재의식 직접 조절– 강력한 개선효과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도 도울 수 있다
한국최면과학원장 임 재 형 박사 직강
최면지도사협회장
심리상담 전문가
최면상담 전문가
대학교,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경찰관서 등 에서 최면학 강의
KBS 굿모닝 대한민국 / MBC 생방송 오늘아침
SBS 미워도 다시한번 / JTBC 부모찾기
그 여자 그 남자 /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23일 월요일 개강 (1회 무료수강 가능)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전생요법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제반 문제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명리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상담 및 공 · 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잠재능력 개발의 산실
한국최면과학원
현재 접수중
http//:www.hypnos114.com
042) 222-0737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불보살이 상주하는
북한산 이야기 ⑪ 승가봉



“아! 승가 스님”

비봉능선의 사모바위와 문수봉 사이에 있는 봉우리로 높이는 해발 567m이다. 이름은 산 아래쪽에 있는 절, 승가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지〉 ‘사실’ 편에 “문수봉에서 한 가지가 서쪽으로 뻗어나가 칠성봉이 되고 …〈중략〉 또 다른 한 가지는 서쪽으로 달려가면서 승가봉, 향림사 후봉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동국여지비고〉의 〈삼각산기〉에도 이와 같은 기록이 남아있다.

신라 경덕왕 때 수태 스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명산을 찾아다니며 수행에 전념했다. 그러나 삼십년이 지나도 자신한테 그런 힘이 생기지 않자 낙담하여 고향인 삼각산 아래 구기리로 왔다.

출가한 지 40년, 고향집에는 본 적도 없는 조카가 집을 지키고 있었다. 수태 스님은 지나가는 객승이니 하루만 재워 달라 청하였다. 다행이 조카는 반가운 얼굴로 저희 숙부님도 스님이라며 편히 쉬어가라 했다. 그날 밤 수태 스님은 머리에 두건을 쓴 스

수태 스님 지은 ‘승가사’에서 유래
승가사는 승가 스님 친견한 곳

님이 자꾸만 따라오라며 손짓을 하는 꿈을 꾸었다. 꿈속의 일이 너무 궁금했지만 마땅히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수태 스님은 그길로 절을 찾았다. 부처님께 참배를 마치고 나오니 나무 아래 참깨를 손질하는 노스님이 보였다. 스님은 다가가 간밤의 꿈을 해석해 달라 했다.

노스님은 두건을 쓴 이는 장안 천복사의 승가 스님 같다고 했다. 당나라 장안의 승가 스님은 인도 스님으로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중국으로 왔으며, 신통을 부려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들어주신다 했다. 순간 수태 스님은 귀가 번쩍 뜨였다.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겠다’ 는 원력은 자신의 원력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스님,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사람들을 이롭게 하셨답니까?”

“어느 해인가 가뭄으로 당나라에 큰 불이 저절로 나 논이고 밭이고 다 타 버려 민심이 흉흉하고 나라마저 위태롭게 되었을 때도, 나라에 괴질이 돌았을 때도 승가 스님이 들고 있던 물병의 물로 불을 끄고 괴질도 고쳤다고 합디다. 그래서 당나라 사람들은 승가 스님을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모신다고도 합디다.”

노스님의 이야기를 들은 수태 스님이 물었다.

“그럼 그 스님이 들고 계신 물병은 관세음보살님이 들고 계신 감로병인가요?”

“글쎄요. 거기에 대해선 내가 말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그 스님을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믿는 걸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 스님은 낮에는 두건을 쓰고 다니다가 밤에 혼자 방에 있게 되면 두건을 벗는데 두건을 벗으면 움푹하게 패인 정수리에서 신비한 향내가 피어올라 방안을 가득 채운다고 합디다.”

수태 스님은 그분이 분명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틀림없으리라 생각하며 노스님께 다시 한 번 꿈속에서 스님이 자꾸만 손짓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물었다. 노스님은 내가 그것을 어찌 알겠느냐며 삼각산 봉우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정 궁금하시면 저 산에 가 보십시오. 저 산에는 문수봉이 있으니 문수보살님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말을 마친 노스님은 부지런히 참깨를 손질할 뿐 더 이상 눈빛조차 주지 않았다.

삼각산을 오르는 수태 스님 앞으로 파랑새 한 마리가 호르륵 호르륵 날아갔다. 처음에는 무심히 보았지만 새가 하는 짓이 마치 자기를 따라 오라며 안내하는 것 같았다. 새는 가파른 산길을 오르다 잠시 쉬는 수태 스님을 따라 날기를 멈추기도 하고, 스님이 자리에 앉아 쉬면 저도 나뭇가지에 앉아 쉬었다. 얼마를 올라가자 파랑새가 커다란 바위 위에 가 앉더니 더 이상 날지 않았다. 수태 스님은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서 바위 주변을 자세히 살폈다. 바위 밑에는 작은 방만한 굴이 있었다. 스님이 굴속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자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동안의 피로가 싹 사라졌다. 스님은 그대로 굴속에 머물고 싶어졌다. 메고 있던 걸망을 벗어서 한쪽 구석에 놓고 주위를 살펴보니 안쪽 바위 밑에 석간수가 고여 있었다. 샘물이라고 하기에는 수량이 많아 거의 맑은 우물 같았다.

“바위 굴속에 이렇게 많은 물이 고여 있다니!”

수태 스님은 신기해하며 허리에 찼던 표주박으로 물을 뜨려 하는데

“그 물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것이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놀란 스님이 주위를 살펴보니 전날 밤 꿈속에서 보았던 두건을 쓴 스님이 벽 쪽에 앉아 계신 게 아닌가.

“아, 승가 스님.”

수태 스님이 감격해서 승가 스님 쪽으로 몸을 돌리려 하는데 스님은 홀연히 사라지고 굴 안에는 신비한 향내가 가득했다. 그 향내는 승가 스님이 잠시 모습을 나타내셨음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저 자리에 승가 스님의 좌상을 모시자. 앉아계셨던 모습 그대로.”

수태 스님은 굴속에 자신이 본 모습 그대로 승가 스님 좌상을 모셨다. 그리고 굴이 있는 자리에 절을 짓고 이름을 승가사라 했다. 그 후 사람들은 그 조상을 ‘승가굴관음보살상’ 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승가사가 있는 뒤 봉우리를 승가봉이라고 불렀다. 승가 스님이 예언한 대로 굴 안의 석간수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었다. 신라, 고려, 조선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종대왕의 비인 소현왕비도 이 물을 먹고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났다고 전한다.

〈얘기꾼〉 김미정

죽음마저 각오한 시코쿠 순례의 시작과 끝



신중일 기자 일본 관서 교찰을 가다
⑪ 고야산 ㊤



일본 진언밀교의 성지 고야산(高野山)의 전경. 8개의 봉우리에 둘러쌓인 분지인 이곳에서 홍법대사 구카이 스님은 전법을 펼쳤고, 지금도 그 가르침은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다.



시코쿠 순례자들은 고야산에서 순례를 시작하거나 회향한다.

구카이의 진언종 개창 성지
日서 가장 종교색 짙은 곳
시코쿠 순례 前後 찾아와
안녕과 원만 회향 기원해

일본 나라와 교토에는 불교 뿐만 아니라 신도, 토착 종교, 도교 등에 걸친 영험한 성지가 곳곳에 존재한다. 이를 대표하는 것이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기이산지의 영지와 참배길(紀伊山地の靈場と參詣道)’ 이다.

요시노/오미네 · 구마노산잔 · 고야산 3곳의 영지(靈地)와 나라와 교토에서 이어지는 참배길을 말하는 이 유산은 일본 종교와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아직도 전국에서 많은 참배객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3곳의 영지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요시노/오미네(吉野/大峯)’ 는 기이산의 북쪽 끝에 있으며, 슈겐도(修驗道)의 본산으로 관련 사원과 수행자들을 만날 수 있다. 슈겐도는 일본의 고대 산악신앙에 불교와 도교가 가미된 종교이다. ‘구마노산잔(熊野三山)’ 은 기이반도의 남동쪽 끝에 있는 구마노혼구타이샤 · 구마노하야타마타이샤 · 구마노나치타이샤 3개의 신사를 말한다.

기이반도 북서부에 위치한 ‘고야산(高野山)’ 은 ‘진언밀교(眞言密敎)’ 의 성지로 일본에서 가장 종교색이 짙은 장소로도 잘 알려져 있다.

지리적으로는 이마키봉 등 8곳의 봉우리로 둘러있는 분지를 총칭하는 고야산은 일본 불교 진언종(眞言宗)의 창시자인 홍법대사 구카이(空海) 스님에게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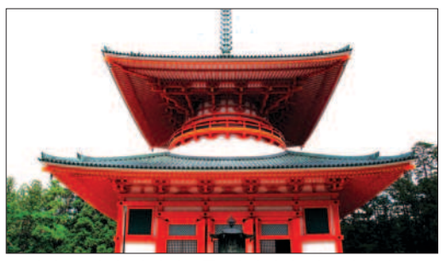
구카이 스님은 774년 시코쿠 사누키국(讚岐國, 현재의 가가와현)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사누키국을 세운 유력한 가문이고 어머니는 헤이안 시대 고승을 배출한 집안출신이었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유교 경전과 중국 〈사서〉를 배웠지만 어느 날 한 승려를 만나 ‘허공장구문지법(虛空藏求聞持法)’ 을 백만 번 외우면 모든 가르침의 참뜻을 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출가의 뜻을 굳혔다.

결국 20세에 출가해 24세 때는 〈삼교지귀(三敎指歸)〉라는 책을 저술해 일찍이 배운 유교와 불교 · 도교를 비교하고 불교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남다른 식견을 보여주기도 했다. 30세에는 당나라로 건너가 청룡사의 혜과 스님을 만난다. 그곳에서 구카이 스님은 밀교를 전수받게 된다.

귀국 후 스님은 고야산으로 들어와 밀교 경전을 널리 전파하고 이른바 진언종 동밀(東密) 일파를 개창했으며 진언종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다가 62세의 나이로 입적했다.

고야산에는 고카이 스님의 진언밀교에 대한 상상을 현실화한 단조가란(壇上伽藍)을 비롯해 117개의 사찰이 존재하며, 일본 국보의 2%가 이곳에 소장돼 있다. 말 그대로 일본 불교와 종교의 한 단면이 고야산에는 존재한다. 이와 함께 고야산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곳이 시코쿠 순례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기 때문이다.

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네 개의 본섬 중에 가장 작은 섬인 시코쿠에 있는 순례길인 ‘헨로 미치’ 는 번호가 붙은 88개의 절을 순서대로 돌아 1번 절로 돌아오는 1,200킬로미터의 장거리 순례길이다.



구카이 스님의 진언밀교를 현실화한 단조가란의 근본대탑.

시코쿠에서 태어나 시코쿠에서 깨달음을 얻은 구카이 스님의 발걸음을 좇는 순례이기도 하다.

현재 연간 15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시코쿠 순례길은 일반적으로 도보를 원칙으로 한다. 88개의 사찰을 전부 순례하는 데 40~60일이 소요되며, 형편에 따라 일주일 혹은 열흘씩 나눠 걷기도 한다.

이 순례길에 오르는 이들은 ‘하쿠이’ 라 불리는 흰 웃옷을 입고, ‘스게가사’ 라 불리는 삿갓모자를 쓰고, 구카이 스님을 상징하는 ‘즈에’ 라는 이름의 지팡이를 들고 걷는다.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시코쿠 순례 도중 사망했고, 현재도 1년에 20명 씩 순례 중 운명을 달리한다. 과거에는 순례 중 죽으면 땅에 묻은 후 그 위에 삿갓을 덮고 지팡이를 꽂았다고 한다. 이는 순례처 어디서도 죽어도 좋다는 순례자의 각오이다.

순례자들은 순례 전이나 순례 후 고야산으로 간다. 구카이 스님이 입적한 오쿠노인을 참배하며 순례의 안녕을 기원하거나 무사히 마침을 감사드린다.

구카이 스님이 안민과 구복을 위한 깨달음의 길은 현재에도 면면히 고야산을 중심으로 내려 오고 있는 것이다.

motp79@hyunbul.com

이 원고는 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프로그램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의 계심을 선언한 영산불교 현지사가 세상에 던지는 사자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 Ⅱ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저.
각 450쪽 475쪽 가격 각권 18.000원
21세기의 금강경. 부처님이 무아속 절대계에 계심을 선언하다
베스트 셀 러

행복하게 잘 사는 길
〈관음태교〉
영산불교사상연구소저. 187쪽. 가격 10.000원
태교를 통해 행복한 삶의 출발을 안내하는 길잡이

〈관음태교에서 부처님 천도까지〉
영산불교사상연구소저. 320쪽. 가격 15.000원
불자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시작, 행복한 죽음을 안내하는 보배같은 책

법문집
〈자재만현 큰스님 법문집 1 ~ 11권〉
자재 만현 큰스님 저. 각권 500페이지, 가격 20.000원
자재 만현 큰스님의 정기법회 법문들을 모으다

〈붓다의 메시지 요해〉
영산불교사상연구소저. 269쪽.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의 사상적 측면만을 요약 해설하다

경전 및 해설서
《영산불교와 본문묘법연화경》 자재 만현 저. 380쪽. 가격 25.000원
〈법화경〉의 근간인 본문8품을 재편집하고 자재만현 큰스님의 해설을 실어서 법화경 이해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 역작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도재〉
영산불교사상연구소저. 30쪽. 무료배포
부처님께서 3악도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베푸시는 특별한 의식인 천도재에 대한 해설

〈붓다의 메시지 존평〉
조우석 외. 512쪽. 가격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 대한 불교 내외의 여러 학자들의 평론들

《영산불교 새천수경》
자재 만현 저. 131쪽. 가격 7.000원
관음신앙을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 기존 〈천수경〉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이 편집한 역작

신불교 영산불교의 법세계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김중섭저. 715쪽. 가격 25.000원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영산불교사상연구소저. 489쪽. 가격 15.000원
영산불교의 법세계를 수행적 측면에서 해설하다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원
〈금강경오가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일불승의 입장에 선 새로운 금강경해설서

〈영혼체 윤회론〉
영산불교사상연구소저. 158쪽. 가격 10.000원
불교역사상 2천년간의 무아와 윤회주체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고 획기적인 영혼체윤회론을 천명하다

〈영상불교의 법세계〉
영산불교사상연구소저. 80쪽. 가격 10.000원
육도윤회의 실상, 칭명염불 수행의 실제, 진정한 효행의 길인 현지사의 천도재를 설명하고 있다

《영산불교 지장보살본원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이대성저. 594쪽. 가격 15.000원
처음으로 지장보살님의 실체를 밝히고 있는 지장보살본원경 해설서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339쪽. 가격 15.000원
금세기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 Ⅱ〉에 대해 불자지성인들이 불교사적인 의미를 천착하고 있는 비평서

〈칙천무후〉
송도현 저. 238쪽. 가격 15.000원
광명 만덕 큰스님의 전신인 칙천무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말한다

춘천본사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5 전화 033)243-1787, 팩스 033)243-4371,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보살은 상을 여의어 모양이 없다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23〉



범어사 주지

지공이 말하기를, '세간을 벗어난 눈 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대승의 법약을 잘못 먹게 된다.'고 하였다. 지금 일체시(一切時) 중 행주좌와(行住坐臥)에 다만 무심(無心)을 닦는다면, 분별할 바도 없고 의지할 바도 없으며 머물러 집착할 바도 없어서 하루 종일 임운등등(任運騰騰) 하여 마치 어리석은 사람같이 될 것이다.

세간의 일은 언제나 이분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출세간의 불법은 불이법이어서, 언제나 주관이니 객관이니 하는 분별로부터 벗어나 있다. 따라서 눈 밝은 명안종사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불법을 이분법의 알음알이로 따지는 나쁜 습관을 떨치게 만들어준다. 만일 이런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 불법을 밝히려고 해봐도, 결국 분별망상 속에서 불법이라는 그림을 그리는 전도몽상 속의 일일 뿐이다. 이런 사람은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음알이만 커져서, 대승의 법약이 오히려 술찌기처럼 냄새나는 법상(法相)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다. 반면 바른 스승을 만나 바른 지도를 받으면, 모든 알음알이를 내려놓고 하루 종일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곳에서 오직 무심을 닦아 근본에 계합해 들어간다. 그러면 본래 마음고향에서 안심입명하기 때문에, 따로 분별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으며 또한 머물러 집착할 것도 없어진다. 어디를 가든 그 자리요,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이미 본래부터 좌(坐)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사람은 다만 흐름에 맡겨 자재하고 있지만, 밖을 향한 시비분별이 뚝 끊어져서 남이 볼 때는 어쩌면 바보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는 무위(無爲)의 일상을 살아가지만, 필요할 때는 또 전광석화처럼 대기대용(大機大用)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그대를 알아보지 못한다 하여도 굳이 그들을 일깨우지 않아서, 알아주든 모르든 상관이 없어진다. 마음이 마치 바위덩이처럼 도무지 틈이 없어서, 일체 법이 그대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울연(兀然)히 집착하지 않게 될 것인데, 이와 같아야만 비로소 조금은 상응할 분(分)이 있다 할 것이다.

그 자리가 분명하면, 저절로 흐름에 맡겨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움직일 땐 움직이고, 멈추면 그냥 아무 일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도무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미 상(相)을 여읜 마음이 근본자리와 딱 계합해서 틈이 없기 때문에, 저절로 바위처럼 올연히 움직임이 없어진다. 겉으로는 종일 분주히 일해도, 속으로는 일한 바도 없고 움직인 바도 없는 것이다. 하루 종일 동서남북 사방을 돌아다녀도, 당처를 한 번도 여읜 적이 없다. 이것이 분명해야만, 비로소 공부의 분(分)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이 밖을 향해 치닫는 업식이 그쳐지지 않은 사람은 좀이 쑤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다. 천지를 쏘다니면서 온갖 일에 간섭해야만 직성이 풀리니, 마음이 잠시도 쉬지를 못하여 무심을 닦을 분이 없어지는 것이다. 여기저기 부지런을 떨며 다니면서 잡다한 지식을 배워 머릿속에 꾸역꾸역 쑤셔 넣는 것을 공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제대로 발심한 사람은 한 생각 돌이켜 선지식을 찾아뵙고 무심에 착안하여 방하착(放下着) 한다.

무심을 닦는다면
분별도 집착도 없다.
마음이 바위덩이처럼
틈이 없어 일체 법이
그대 마음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상에 집착하여
조작하려는 생각만 끊어지면
장애 받고 안 받고
도무지 흔적이 없어져
하되 한 바가 없는
자유로운 삶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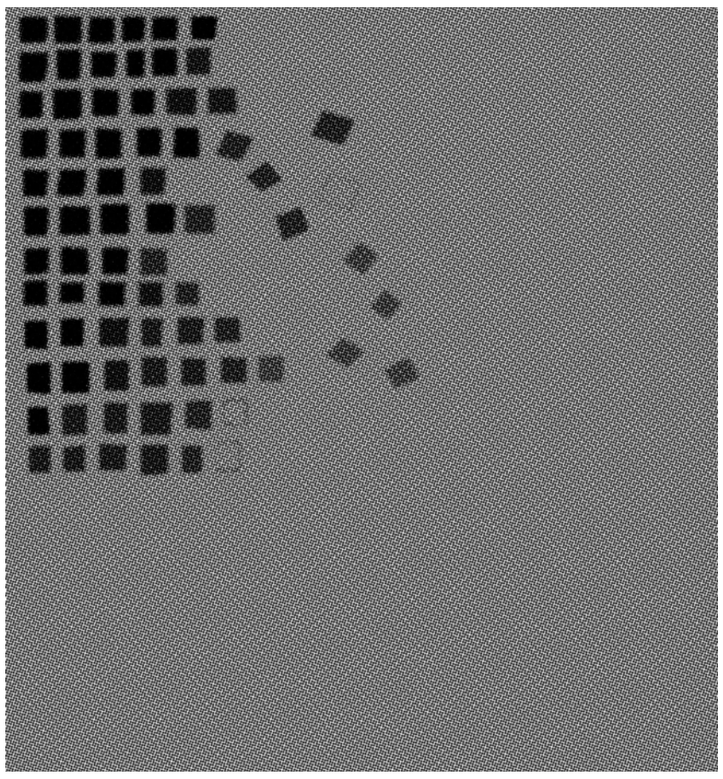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삼계의 경계를 벗어남을 일러 부처가 세간에 출현했다고 하며, 번뇌에 물들지 않는 마음을 일러 무루지(無漏智)라고 한다. 인간과 천상에 태어날 업을 짓지 않고, 지옥에 태어날 업도 짓지도 않으며, 나아가 일체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서 어떤 인연이 와도 불생(不生)이면, 곧 이 몸과 마음의 자유인이 된다.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도 결국 한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마음이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샘이 없음[無漏]'이라고 한다. 마음이 경계 따라 새어나오면 곧 번뇌가 된다. 그러나 그 번뇌조차도 자성의 묘용(妙用)임을 깨달으면, 즉시 번뇌가 보리로 화(化)한다. 일거수일투족, 한 마디의 말, 한 생각이 모두 일심(一心)의 나툼 아닌 것이 없음이 분명할 때, '무루지'가 현전하는 것이다. 일체 경계에서 상이 없으므로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며, 만법이 오직 한 마음의 드러남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기에 매사에 걸림 없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불생(不生)이 아니라, 뜻에 따라 생(生)할 뿐이다. 경에서 '보살에게는 의생신(意生身)이 있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의생신은 부모에게서 받은 몸이 아니라 생각한 대로 생기는 몸을 말한다. 보살은 상(相)을 여의어서 모양이 없다. 그래서 자비심을 일으키는데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몸을 나툰다. 보살의 경계에 들어가면 생각대로 태어나는 것이다. 육도 만행하는 보살로서는 경우 따라 역행 보살이 되는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악업에 물들지 않는 위신력을 지녔기 때문에, 능히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무심을 모르고 상에 집착하여 조작하는 것은 모두 마구니의 업에 속한다. 나아가 정토(淨土)의 불사(佛事)를 이루더라도 모두 업을 짓는 것이니, 이를 일러 부처의 장애[佛障]라고 한다.

마음에 모양이 없는 줄을 알지도 못하고 늘 경계 따라서 집착을 일삼으면, 그게 다 마구니의 속박을 받는 일이 된다. 나아가 염불로써 선정을 익히더라도, 만일 마음으로 조작함이 있으면 곧 업을 짓는 일이 되어 공부에 장애를 받는다. 누구 다른 사람이 장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착각하여 부처를 조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옥상옥이 되어 본래 부처를 가리는 것이다. 다만 상에 집착하여 조작하려는 생각만 끊어지면, 장애 받고 안 받고 도무지 흔적이 없어져 하되 한 바가 없는 자유로운 삶이 펼쳐진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㊾



부모와 스승, 그리고 삼보에 효순(孝順)하며 지극한 진리에 효순하라. 〈범망경〉

약관을 기억하라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누구나 잘 그러는 것 같다. 보험들 때의 일 말이다. 정말 이것저것 꼼꼼히 생각해 보고, 알아보고 난 뒤에 결정해야 하는데…. 주변의 친지 중에 보험을 모집하는 분들이 있게 되면, 권유에 못 이겨서 그냥 들고 말 때도 있다. 정작으로 중요한 약관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을 잘 챙겨보지도 못하고서 말이다.

또한 약관을 읽어보고서 가입하더라도, 이내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일도 많은 것 같다. 내가 어떤 조건으로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이와 매우 유사한 경우가, 수계(受戒)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수계는 계를 받는 일이고, 그 계의 조목을 잘 지키겠노라 부처님과 약속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당연히 그 계율의 조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잘 알아야 함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리라.

절마다 가끔은 보살계를 수계하는 법회를 연다. 전계대화상(傳戒大和尙)으로부터 계율을 받을 때, 우리 모두는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맹서를 한다. 하지만 도대체 지켜야 할 그 내용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나 있을까? 오계나 십선계와 같이 짧은 계율은 외울 수 있지만, 보살계와 같이 총 58개나 되는 긴 계율의 경우에는 그 조항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가 계율을 자주자주 읽어보고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 알지 못한다면, 지킬 수도 없을 것이다.

하필 효라니?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보살계는 〈범망경〉 하권에서 설해지고 있다. 계율을 설하는 계경(戒經)이라서 그런지, 또 새로운 이야기가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보살계를 제정하신 것이라 말하는 것 아닌가.

연기의 이치를 관찰하셨다든가 혹은 〈화엄경〉을 설하셨다는 이야기는 흔히 들어왔지만, 계율을 제정하셨다는 이야기는 잘 듣지 못하던 이야기다. 그러니까 교단 구성원들이 어떤 사건을 일으킬 때마다 "그런 일은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계율을 하나하나 제정하셨다는 종래의 정설(定說)과는 다른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또 있다. 그 보살의 계율이 무엇인지를 연이어서 설명하는 말씀이 특이하다. "부모와 스승, 그리고 삼보에 효순하며, 지극한 진리에 효순하라"고 하신다. 효라? 하필 효인가?

다 알다시피, 효는 유교의 윤리규범이 아닌가. 왜 여기서 효가 나올까? 물론, 우리는 알고 있다. "부모님께 효순하라"고 할 때의 효가 어찌 하필 유교에만 있는 것이겠는가. 인도의 힌두교에서도 있고, 인도 불교의 여러 경전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어찌 보면 인류 보편의 윤리 감정이 아닐까 싶다. 자식이 부모님을 잘 모신다는 것은 말이다.

그런 맥락에서의 효라면 무엇이 문제될까. 내가 '가족윤리로서의 효'라고 이름한



그림 · 박구원

것도 그런 것이다. 그러한 효는 분명 우리 불교의 경전에서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는 초기경전인 〈선생경(善生經)〉에서이다.

그런데 여기 〈범망경〉에서 설하는 '효순'의 의미는 다만 그러한 '가족윤리로서의 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효순의 대상에 '부모'가 있는 만큼, '가족윤리로서의 효'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효순이라는 말이 쓰이는 맥락을 살펴보면, 그 말의 뜻에는 다만 '효도'만의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수순(隨順)한다'의 의미를 담고 있다. "보살은 효순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모든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고 설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효는, 이제 모든 중생을 향하고 있는 '열린 개념'으로 쓰여야 한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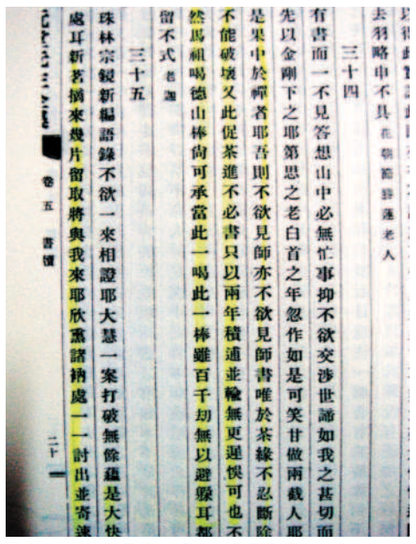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나는 간절한데 그대는 보리심 놓았나”

추사가 그의 편지에 사용한 호(號)는 활동 시기에 따른 변화와 관조, 성숙과 관심사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립박물관 소장본인 〈나가묵연첩〉엔 제주 유배시절, 그가 불교에 천착했음을 드러낸 노가(老迦)라는 호(號)를 사용했고, 〈〈완당전집〉〉〈여초의〉34신의 말미에도 노가라는 호를 사용했다. 따라서 이 편지는 제주 유배시절에 보낸 것이라 짐작된다. 특히 제주 유배 시절 편지에는 초의에게 차를 재촉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천박한 생활환경을 극복하고, 병마와 싸우던 그가 차를 통해 얻은 위안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차를 얻기 위한 그의 노력은 초의가 좋아하는 글씨를 보내기도 하고, 혹은 위협적인 강변(强辯)을 구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걸명의 말 속에 담긴 그의 희언(戱言)은 천재다운 재기와 초의에게 보인 인간적인 신뢰가 함께 묻어난다. 〈여초의(與草衣)〉 34신에 드러난 걸명의 변은 다음과 같다.


추사의 서운한 감정이 담긴 〈완당전집〉 여초의34

편지를 보냈지만 한 번도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산중에는 꼭 (그렇게) 바쁠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혹 세제와 어울리고 싶지 않아서 나처럼 (그대와 사귀기)간절한데도 먼저 보리심(금강)을 내려놓은 것인가. 생각해보면 늙은 나이에 갑자기 이처럼 하시니 우스운 일입니다. 둘로 갈라진 사람이 되어도 좋다는 것인가. 이런 일이 과연 수행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것인가요. 나는 그대를 보고 싶지 않고, 또 그대의 편지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차의 인연을 차마 끊을 수 없고, 깰 수도 없어서 다시 차를 재촉하는 것이니 편지는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두 해 동안 쌓인 빚을 함께 보내고, 다시 지체하거나 빗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조의 할과 덕산의 봉을 오히려 받을 것입니다. 이 할과 이 봉은 설령 백 천겁이 된다하여도 감추거나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나머지는 이만 노가 (有書而一不見答 想山中必無忙事 抑不欲交涉世諦 如我之甚切而先以金剛下之耶 第思之 老白首之年 忽作如是可笑 甘做兩截人耶 是果中於禪者耶 吾則不欲見師 亦不欲見師書 唯於茶緣不忍斷除 不能破壞 又此促茶進 不必書 只以兩年積逋ㅈ輸 無更遲ㅇ可也 不然馬祖喝德山棒尙可承 當此一喝此一棒 雖百千劫無以避ㄴ耳 都留不式 老迦)

제주 유배시절 초의에게 차를 재촉
‘지체하면 마조의 할을 받을 것’
불교에 천착 호를 ‘老迦’로 사용

여러 차례 보낸 자신의 편지에 초의의 답신이 오지 않았던 듯. 퉁명스런 말투로 “산중에는 꼭 (그렇게) 바쁠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혹 세제와 어울리고 싶지 않는”것인가. “나처럼 (그대와 사귀기)간절한데도 먼저 보리심(금강)을 내려놓은 것인가”라고 거듭 힐난하였다. 점점 늙어가는 사람이 취해야할 일이 아니며, 정말 “수행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것인가”라고 하였다. 이는 그의 걸명의 변을 드러내기 위한 전초전임이 분명하다. 차를 보내 달라는 그의 진심은 “오직 차의 인연을 차마 끊을 수 없고, 깰 수도 없어서 다시 차를 재촉하는 것”이라는 대목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울화에 시달리던 제주 유배 초기, 그는 맑고 청아한 초의차(草衣茶)에서 위안을 얻었다. 그러하기에 초의에게 차를 재촉할 뿐 “그대를 보고 싶지 않고, 또 그대의 편지도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한 것. 하지만 이들의 사이가 어찌 차로만 맺어진 인연일까. 초의가 그립고, 벗의 선미 가득한 위안의 편지를 기다리는 절절한 심정을 이리 드러낸 것이리라. 한편 초의가 보낸 차가 늘 충분한 것이 아니었음은 “두 해 동안 쌓인 빚을 함께 보내”라고 한 것에서도 분명하다. 지체되거나 빗나가면 마조의 할과 덕산의 봉을 맞게 될 것이고, 이 봉과 할은 백 만겁이 지나도 감추거나 피할 수 없다는 추사의 강변(强辯)은 차가 그만큼 절실한 물품이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www.shcandle.com

2014 신상품 삼 환 양 초



상담문의 031)766-0242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팩스 031)766-0233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원빈’처럼 신세대 사로잡는 포교할 터”

신세대 행복론 전하는 SNS전법사 원빈 스님

불교계에도 ‘원빈’이 떴다. 커피 광고에 나오는 유명배우 ‘원빈’이 아닌 페이스 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신세대 포교에 나서고 있는 원빈 스님(圓彬 · 29)의 얘기다.

스님은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법명을 지녔다. 사실 처음부터 스님의 법명으로 얘기를 꺼내는 것은 결례일 수도 있지만 이 얘기를 꺼내지 않고는 스님의 인기를 설명할 길이 없다.

사실 원빈 스님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서 유명배우 원빈과 맞먹는 인기인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즉문즉답으로 우리사회의 대표적 멘토로 떠오른 법륜 스님, 온라인 상에서의 교감을 시작으로 대중과 친숙해진 혜민 스님에 이은 신세대 전법사다.

SNS는 현대사회에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일상의 감정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각박한 현대인들에게는 부처님의 따스한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다.

차곡차곡 노력을 쌓으면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너질수도 있지만 약점을 보완할 기회이기 때문에 더 튼튼해질 수 있죠.

멈추지만 않는다면, 새로운 한주도 당신 인생의 디딤돌 하나를 쌓아 올리도록

땀 흘리는 한주 되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스님의 페이스북 친구들은 5000여 명. 스님의 페이스북을 가보면 스님의 글 한 구절에 삶의 청량감을 얻은 이들이 많음을 느낄 수 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웃음’ 속에 불법이

원빈 스님의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가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2012년 12월 31일.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부터였다.

스님은 아동복지시설 진여원에 봉사활동을 갔다. 당시 스님은 아이들과 함께 명상프로그램 함께하고 해뜨는 것을 볼 예정이었다. 평소 경전의 부처님 말씀을 올리던 스님은 베르베르 베르나르의 ‘웃음’을 페이스북에 올리게 됐다.

“당시에 배터리가 10% 밖에 없어 글을 올리고 나니 곧 핸드폰이 꺼졌어요. 해뜨는 것을 보고 들어와 핸드폰을 켜니 반응이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어요. 댓글 친구추가가 500건이 넘게 들어와서 머가 잘못된지 알았죠.(웃음)”

페이스북에서 공감의 표시로 표현하는 ‘좋아요’의 경우 스님은 평균 300개 정도를 받던 것이 이날 하루에만 2만개를 넘었다고 한다. 스님을 알던 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 친구들이 ‘제 친구가 스님얘기를 해요’라며 스님에게 연락해왔다.

연령대마다 제각각 다른 사람들의 고민에 관한 가벼운 유머일 뿐인데, 왜 이리 열광할까. 평이한 소재와 편안한 말투, 무엇보다 청정한 수행자인 스님이 하는 이야기에 대중이 크게 위로받는다는 사실을 깨우쳤다.

“페이스북 친구 신청이 하루에 100명을 넘어섰어요. 다른 종교인들보다 스님들의 말이 ‘먹힙니다.’ 무엇보다 신앙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에선 철저하게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해요. 일방적인 가치관의 주입이나 편향된 내용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스님은 그 이후부터 위트있는 글을 싣기 시작했다. 굳이 불교경전의 말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말을 싣기 시작했다. 동영상 또한 적절히 활용했다.

“스님들은 대중의 ‘마인드 큐레이터’라고 생각해요. 마음을 놓이고 행복할 수 있는 길, 또 그 길을 걷는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이죠. 불교 안에는 그런 가르침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래된 고전부터 재해석해 현대인들에 맞게 풀어내는 역할, 또 직접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즐겁게 출가했습니다.

스님이 SNS를 통한 포교원력을 느낀 것은 오래되지 않는다. 사실 출가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스님이다. 2005년 동국대 산업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이던 스님은 ‘발렌타인데이’에 출가해 스님의 길을 걸었다.

젊디 젊은 스님을 보면 항상 궁금한 것이 ‘어떻게 출가하셨을까’가 아닐까.

“스님을 보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출가하게 되셨습니까. 왜 출가하셨습니까.’라구요. 제답은 항상 간단해요. ‘그냥 출가했습니다.’라구요.”

막 스무살의 태를 벗은 청년이었던 원빈 스님이 출가의 이유가 있겠지만 스님은 이렇게 간단히 대답했다.

“행자생활 때 많이 혼났습니다. 행자실에 처음가면 물어보는 질문이 ‘왜 출가했는지’에요. 그냥 출가했다고 하자 엄청나게 혼났습니다.(웃음)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하느냐’ 면서요. 그 이후로는 어른 스님들이나 대중들에게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서원으로 출가했다고 하지요. 근데 그 대답을 할 때마다 닭살이 돋네요.”

출가 이후 은사 혜능 스님에게 받은 법명이 바로 원빈. 해나 달처럼 둥글게 빛나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도반 스님들은 처음 법명을 듣고 모두 웃음을 터트렸다고 한다.

“좋은 점이 훨씬 많아요. 일단 상대방이 한번 웃는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웃음이 있어야 해요. 한번 웃고 나면 가까워지기 쉽습니다. 또 잘 기억되기도 하구요. 은사 스님께서 정말 잘 지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빈은 연예인 중에 T.O.P 잖아요.(웃음)”

위트있는 글에 감동 담아 전해
페이스북 비롯 SNS서 인기
2005년 출가, 2010년 군법사지내
군장병 만나며 신세대 포교 서원

승가대서 대중설법 연구, 박사과정
‘SNS전법’ 불광전법상 대상 영예
‘쉬운말 · 공감형성이 포교에 가장 중요’
생활에세이 〈같은 행복 다른 하루〉 펴내

군법사 생활 중 포교원력 느껴

스님은 비구계를 받자마자 군법사로 갔다. 2010년 임관한 스님은 파주 1사단 11연대 호국백성사, 1사단 12연대 호국무선사, 의정부 306보충대 호국관문사 주지를 지냈다.

“비구계를 받자마자 예비교육에 들어갔어요. 은사스님께 인사도 못 드리고 필요한 짐 챙겨서 훈련 받았죠. 도착하자마자 하루 딱 쉬고 2달간 입대 전 훈련을 받았습니다.”

숨돌릴 틈없는 일정 속에 스님은 갑갑함을 느꼈다. 특히 군장병들의 힘든 고민을 들을 때 마다 마치 자신의 얘기처럼 공감됨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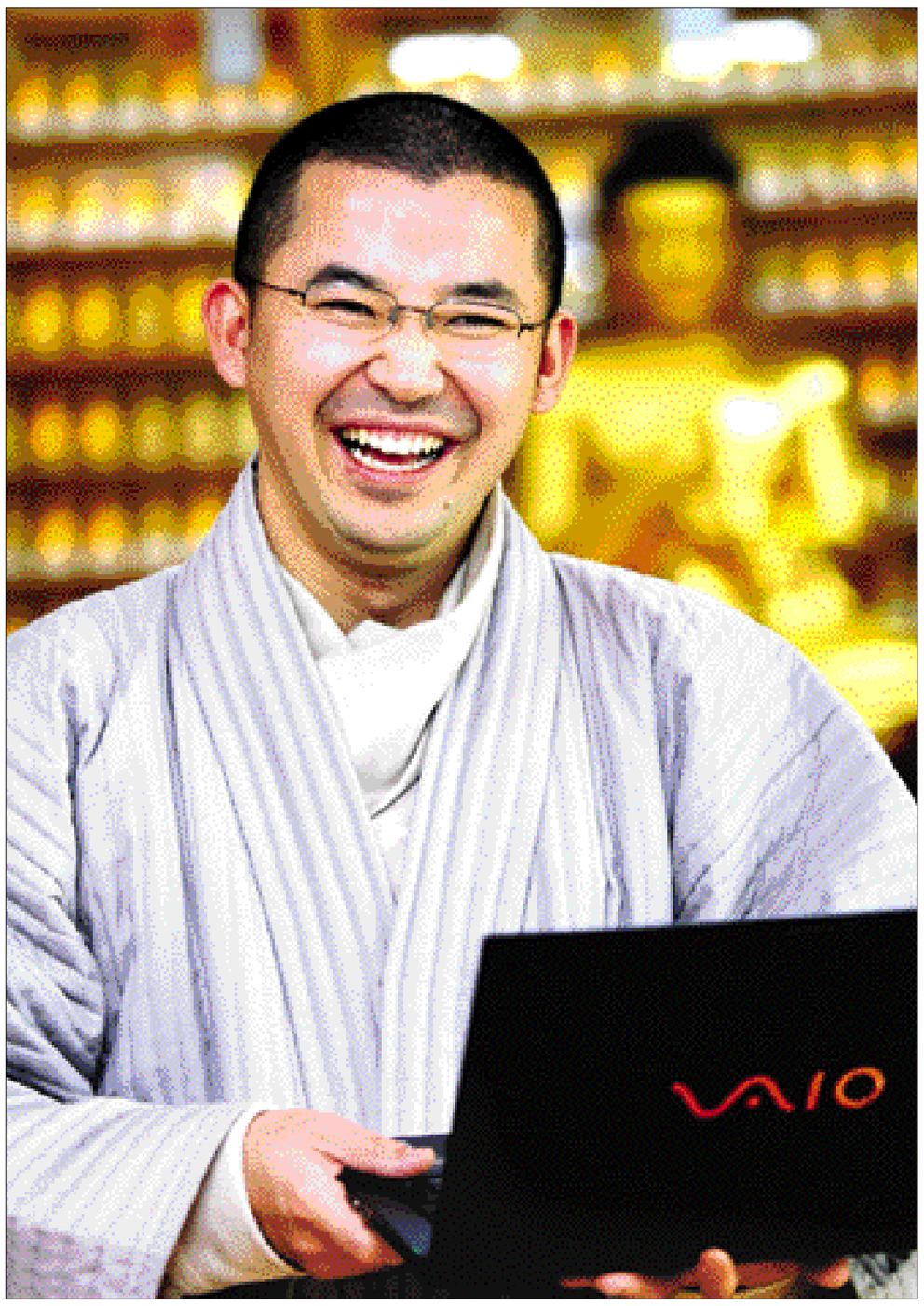
스님은 군에서 청년들을 만나며 느낀 점이 많다고 털어놨다. 첫째가 불자 비율이 낮아도 ‘너무’ 낮다는 것이었다.

“2000만 불자라고 하는데 거짓말 같아요. 군대 내에서 종교조사를 하면 50%가 무교, 50% 중에 다시 50%가 개신교 신자입니다. 남은 25%에서 12.5%가 천주교, 12.5%가 불교인데 불교라고 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선임이 불교라서’, ‘초코파이를 주니까’ ‘작업 안하고 잘 수 있어서’ 등으로 불교를 택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100명 중에 1~2명 만이 자신을 위해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죠.”

스님은 더 큰 문제는 불자가 아닌 청년들이 불교를 배우고 싶더라도 불교와 문화적 괴리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법사 당시 장병들과 법회하는 모습. 스님의 부처핸섬 별명은 여기에서 나왔다.


청계천을 걷고있는 원빈 스님. 스님은 다양한 사진 · 동영상 · 글귀로 행복을 전달한다.



원빈 스님은 … 천안에서 출생해 2005년 밸런타인데이에 해인사로 출가했다. 혜능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후, 죽림정사에서 불심도문 스님을 시봉했다. 2006년 중앙승가대학교에 입학해, 2년 연속 설법대회에서 우승했다. 2008년 시작된 승가대 수행모임 '행복 명상'에 동참해 만일수행정진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0년 군종장교로 임관해 호국백성사, 호국무선사 호국관문사 주지를 역임했다. 2011년 독서모임 '행군스(행복한 군인과 스님)'를 조직해 군인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알렸다. 현재 페이스북과 트위터, 이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행복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무의식적으로 불교를 택한 청년들이나, 종교가 없는 청년들과 얘기를 해보면 불교를 배우고 싶어해요. 문제는 설법 시에 너무 어렵고 이상적인 것만 얘기한다는 점이죠."

원빈 스님은 2011년 독서 모임 '행군스(행복한 군인과 스님)'를 조직했다.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었다. 책을 주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불교를 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행군스는 매달 장병들에게 책 100권을 전달했다. 참석자들도 점차 늘어 2012년에는 300여 장병들이 행군스에 참여했다. 스님은 보통 틱낫한 스님의 책 '화'를 선물하지만 불교신자가 아닌 장병에겐 제럴드 G 잼폴스키의 '사랑수업'을, 전역을 앞둔 장병에게는 티머시 페리스의 '4시간'을 선물하기도 했다.

군법사 시절 스님은 법명 '원빈'과 잘 어울리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바로 '부처핸섬'이다. 강의가 무료해지거나 말문이 막히면 '풋 유어 핸즈 업(Put your hands up · 양손을 올리세요)'이라고 외치다보니 장병들이 스님을 '부처핸섬'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대중들은 불교를 원한다

"젊은 군 장병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행복'에 대해 생각해볼 여유조차 없이 지내는 것 같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페이스북과 e메일로 짧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군법사 시절 일반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SNS를 시작했다. 페이스북, 팟캐스트, 유튜브 채널, 트위터, 블로그, 까페, 카카오스토리까지 한마디로 요즘 나온 SNS는 모두 섭렵했다.

"팟캐스트 종교채널 900여 개 중 90%가 교회 채널이에요. 웬만한 대형교회는 다 만들어 놓은 거죠. 하지만 팟방(순위 프로그램)을 보면 1위는 법륜 스님 채널입니다. 스님들이 만들어 놓은 채널이 10개도 안되지만 모두 상위권이에요. 이것을 보면 대중들이 스님들, 그리고 불교에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빈 스님이 만든 팟캐스트 채널은 이틀 만에 100위권 순위에 들었다.

"불교계는 아직까지 언론홍보 전략이 많지 않아 오히려 파급효과가 큽니다. 교회는 너무 노출이 많아요."

스님은 이런 흐름이 불교에는 호기이자 위기라고 진단했다.

"최근의 흐름은 성철-법정 스님 이후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목을 받는 것 자체가 한국불교의 전통적인 부분이 아니라 힐링, 웰빙, 또 콜링 등 현대화한 부분이 받는 것입니다. 한국불교 전통과 이러한 현대화부분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불교의 정체성으로 끌어오느냐가 과제에요. 이러한 것들을 불교가 끌어안지 못하면 사회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기현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위기죠."

전법 연구를 통해 광장에 목소리 내다

스님은 중앙승가대학을 다니며 SNS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석사 논문을 냈다. 그 논문으로 불광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제2회 전법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법 교화는 설법이 핵심입니다. 설법은 정보전달이라는 관점에서 논문을 썼어요. 정보 전달의 원칙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좋은 정보도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해야 한다. 둘째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한다. 셋째는 감동과 공감을 일으켜야 한다는 겁니다."

스님은 이런 지론과 스님의 일상을 담은 내용을 책으로 내기도 했다. 〈같은하루 다른행복〉이 그 것이다. 책을 내게 된 계기도 페이스북을 통해서였다.

"책을 내는 것을 지도교수님에게 추천을 받고 원고를 출판사에 다 보냈어요. 근데 저는 아무런 이력이 없으니 아무데도 연락이 없더군요. 어느날 한 출판사에서 페이스북에서 메세지가 왔어요. 있는 곳을 알려드리니 회사 대표님이 그날 저녁에 달려오셨습니다. 책에서는 행복에 대한 메세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만일기도 세번하면 금생 마무리

현재 스님은 주석처가 없이 중앙승가대 연구소인 일산 '행복한절'과 중앙승가대학을 오가고 있다.

"온라인에서의 포교활동은 오프라인과 결합돼야 효과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입문자 문턱까지 이끌 수 있지만 높은 수준까지 이끌기는 힘들어요. 사실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하면 어디로 오라고 해야 할 지도 모르겠네요. 오프라인 기반이 있소야 온라인에서 만난 인연이 흩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빈 스님은 다시 해인사에 적을 두고 12월 중순 미얀마로 출국할 예정이다. 3월까지 미얀마 쉐우민 센터에서 수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승가대 2학년 때부터 선정에 대한 열망과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수행자는 기본으로 선정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또 군대에서는 포교활동을 하느라 가행정진을 못했는데 방학기간만이라도 내려놓고 정진할 계획입니다."

사실 원빈 스님은 2008년부터 만일기도에 입재했다. 스님은 2008년 시작된 승가대 수행모임 '행복명상'에 동참해 만일수행정진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요즘 출가하는 스님들과 출발점이 조금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불교 수행, 포교활동을 경험하고 해제 때는 대중들과 또 어울리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이들과 함께 찬불가 부르며 포교활동을 할 것이란 겁니다. 그 원을 갖고서 만일기도 세 번을 하면 한 평생이 가지 않을까요?"

일산 행복한절=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슬퍼말라, 모든 것은 강물처럼 흘러간다

갠지스강에서의 깨달음

갠지스강으로 향하였다. 2명씩 각각 10대의 릭샤에 올랐다. 어느덧 어둠이 짙게 깔리고 거리는 힌두교 의식을 하러 강으로 가는 사람들과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뒤엉켜 빠른 물결을 이룬다. 가끔씩 도로에 소들도 나타나고, 자전거와 자동차등이 엉켜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아슬아슬하게 비껴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다. 내가 탄 릭샤를 끄는 노인은 많이 말랐다.

그는 가끔씩 뒤를 돌아보며 우리의 안전을 체크하고는 씩익 웃는다. 미안하다. 내가 깡마른 노인이 끄는 릭샤를 타다니… 그래도 그는 행복해 보인다. 복잡한 시내를 요리조리 피하며 한참을 열심히 가는데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릭샤를 멈추고 그가 뒤편으로 달려가서 주워 온 것은 릭샤의 안장이다. 그의 얼굴이 어두워 진다. 완전히 부러??하지만 속상해 하면서 다시 패달을 밟는다. 안장이 없으니 앉지도 못하고 패달 위에 발을 올린 채 서서 밟는다.

한참을 달려 도착하니 힌두의식 아르띠뿌자의 마무리를 하고 있다. 밤의 갠지스는 화려한 축제의 주인같이 화려한 옷과 화려한 미소로 손님을 보낸다. 강가의 고대 건물들을 뒤로 하고 다시 같은 릭샤에 올라 호텔에 도착했다. 이렇게 하여 그가 받는 돈은 겨우 1달러.

다음날 새벽 아침, 갠지스강을 만나러 다시 갔다. 배에 올라 강을 건넜다. 어떤 젊은 인도청년이 한국말로 '방생'을 하라며 물고기가 그득한 배를 옆에 갔다 댄다. 누구는 돈을 주고 물고기를 놓아주고 누구는 그 강에서 다시 잡고….

여하튼, 우리 일행은 모두 한 양동이에 2불을 주고 사서 각자 강에 놓아 준다. 금새 부자가 된 물고기 파는 청년은 신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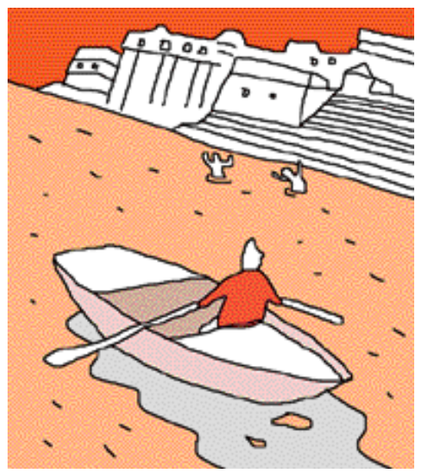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강을 건너 모래사장에 도착했다. 해가 뜨기를 기다리며 강변을 걸었다. 2500여년 전 이 땅을 걸으셨을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하다. 부처님이 호흡했던 공기를 마시며 부처님을 느낀다. 갠지스강의 모래를 손끝으로 만지니 부처님을 만지는 듯 한 것은 왜일까?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 속에 흐르는 붓다의 외침을 듣는다. 볼을 차갑게 스치는 바람 속에서 전해오는 붓다의 향기를 맡는다. 지금 이 순간 붓다가 내앞에 계신다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모든 감각을 멈추고 붓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눈가가 촉촉해진다. 어느새 시뻘건 해가 지평선으로 솟는다. 2500년전 붓다가 이곳에서 보던 해와 지금의 내가 보는 해는 같은가? 다른가? 나의 상념을 아는지 모르는지 붉은 해는 말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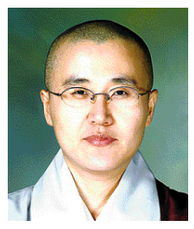
갠지스강은 또한 제일 큰 규모의 화장터로 유명하다. 우리배가 화장터 가까이 갔다. 인도사람들은 갠지스강에 몸을 씻게 되면 죄와 허물이 모두 없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이강에서 화장을 하고 그 재가 강가에 뿌려지면 영원히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 믿는다. 4명의 사람들이 시신을 대나무로 만든 들것에 올려 '람람싸드야해'(라마신은 알고 계신다)라고 외치면서 온다.

이들에게 죽음이란 무엇일까? 노래는 슬프기 보다는 생과사를 초월한 깨달음의 노래 같다. 작년 서른 살 아들을 갑자기 잃은 한 보살님이 하염없는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일년 전에는 분명이 있었던 아들, 1년이 지난 지금은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다. 화장 후 뼈 무더기로 만난 아들. 무엇이 그녀의 아들인가? 아들을 살릴 희망이 없음을 알면서도 희망을 갖고 싶었던 그 시간들. 커다란 슬픔은 그녀만의 소유물인듯 갠지스강은 아무일도 없었다는듯 고요히 흐른다.

한쪽에서는 빨래를 하고 한쪽에서는 목욕을 하고, 한쪽에서는 화장한 시신을 버린다. 모두가 성스러운 어머니 갠지스의 품에 안긴다.

이렇듯 갠지스는 새로 태어난 사람과 죽은 사람을 모두 가슴에 품고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내 귓가에 속삭인다. 삶을 너무 슬퍼하지도, 괴로워하지도 말라고, 언젠가는 강물처럼 지나 갈 것이라고 하면서.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사단법인 등록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 반명함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회 장 석무겸 석만월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부 의 장 석월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만오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총무부장 석윤오
재무부장 석법담
정보부장 석보각
행사부장 석지혜
사무총장 석초오
부 원 장 석용암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혜주
동원부장 석법원
의전부장 석근홍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법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법승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강원원장 석법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제 14기 영남(통도소리)범음범패 교육생모집"
범음(홋소리, 짙소리) 범패(강쇠, 북, 태징)
- 기초 2개월 _ 도량석, 종성, 각단 예불, 불공, 시다림,
- 고 등 1년 _ 중노릇하는법, 상주권공, 구병시식등, 천도재,
- 전 문 2년 _ 시왕각배, 예수재, 영산재, 수륙재,

(기초의식부터 ~ 전통전문분야등 범패의 모든 것)
개강일 2014년 양력 1월 6일 (매주 월요일)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불교용품, 코끼리 학살의 주범인가?

2012년 한 해만 2만 2천마리 죽어





상아를 얻기위해 학살당한 코끼리들은 땅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다〈사진 왼쪽〉. 그렇게 얻은 상아로는 불교 사원, 코끼리, 부처님 상 등 여러 불교 용품이 조각된다. 〈사진 오른쪽, 출처:내셔널 지오그래픽, 브렌트 스터튼〉

살생을 금하는 불교. 하지만 불교 때문에 죽어가는 동물들이 있다.

모순적인 상황의 주인공은 바로 코끼리. 야생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작년 한 해 학살된 숫자는 2만 2천마리에 달한다. 오로지 상아를 얻기 위해서다. 사진에서 보듯 마구잡이로 포획되어 상아를 제거당한 코끼리는 쓸모없이 버려지기 마련이다. 불편한 사실은, 이러한 무자비한 학살의 뒤편에 불교가 상당부분 관련되어 있다는 것. 불법 포획된 코끼리의 상아로는 코끼리 조각상이나 행운을 비는 부적 등 불교용품을 만든다. 상아 시장의 최대 거래국이 중국과 태국이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소비자 역시 불교도가 많다.

불교에서 코끼리는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진 지 오래. 마야 부인이 부처를 잉태했을 당시 코끼리 꿈을 꾸었다는 것에서부터 석가모니를 협시하는 보현보살 또한 코끼리를 탄 모습으로 자주 그려지는 등 코끼리는 불교에서 위용과 덕을 상징한다. 때문에 코끼리 형상 등을 지니고 있으면 행운이 올 것이라는 믿음 또한 불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자리잡았다.

'코끼리 스님'이라고 알려진 태국의 크루바 다르마무니 스님은 자신의 사찰에서 아시아코끼리들을 기르지만, 동물보호 활동가들은 그가 상아로 부적을 만들기 위해 코끼리 한 마리를 굶겨 죽였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지는 '상아 숭배(Ivory Worship)'라는 제목으로 "중국은 상아 최대 밀수국이다. 2008년만 해도 아프리카에서 상아 66톤을 합법적으로 사들였다. 그 이후 코끼리 밀렵과 상아 밀수가 모두 급증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물웅덩이에 청산가리 넣어 떼죽음 시키기도

급증하는 코끼리 상아 수요 감당키 위해

불교 용품 등 종교 의식에 상아 활용

이렇게 모은 상아로 만든 불교 용품 시장 규모는 한 해 15조원에 달한다. 상아 가격 역시 지난 8년 사이 킬로그램당 1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20배 가까이 올랐다. 때문에 손쉽게 상아를 얻으려는 밀렵꾼들만 급증하고 있다. 코끼리들은 그럴수록 무자비하게 학살당하고 있다.

얼마 전 짐바브웨에서는 밀렵꾼들이 청산가리를 물웅덩이에 타놓아 80마리가 넘는 코끼리들이 떼죽음을 당했으며, 카메룬에서는 수류탄과 소총으로 무장한 밀렵꾼들이 한번에 300마리가 넘는 코끼리들을 죽였다.

코끼리들만 죽는 것은 아니다. 케냐에서는 작년에만 국립공원 경비대원 6명이 코끼리를 보호하려다 목숨을 잃었고, 공원 경비대가 사살한 밀렵꾼은 23명이었다.

코끼리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and Flora, 이하 CITES)에 지정되어 포획은 물론 상거래가 규제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CITES는 "이런 상황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코끼리 개체수의 20%가 사라진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물론 일부 아시아 지역의 타 종교에서도 코끼리 상아와 관련된 수요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필리핀에서는 성상으로 조각돼 다른 나라로 밀반출되기도 하는 등 종교 의식에 상아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는 상관없이 불교 지도자들 또한 이런 현실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 눈에는 코끼리로 만든 성상이 아니라 오로지 신만 보인다"고 말한 타 종교인의 몰지각적인 말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CG덕분에 '환골탈태' 한 금강역사

도쿄대, 2년 걸친 작업 끝에 화려하게 원형 복원 마무리



원형의 색을 돌리기 위해 조사작업에만 2년의 시간이 걸렸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화려한 모습을 되찾은 도다이지의 금강역사.

8세기 경 만들어진 금강역사상이 컴퓨터그래픽 덕분에 화려한 새 옷을 입게 됐다. 만들어진 지 1300년이나 된 탓에 색이 벗겨진지 오래였지만, 남아있는 염료의 색과 성분을 파악하는 과학 작업을 통해 복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원형 그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금강역사상의 모습은 바로 전 모습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화려하다. 연두 노랑 주황 파랑 빨강 등 쓰여진 색만 수십 가지. 입고 있는 옷의 무늬도 복잡하며 다채롭다.

복원하기까지 2년이나 걸린 이번 작업은 도쿄 예술대와 과학대의 협업 덕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나라 시대(729~749)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역사상은 1미터 73센티미터 길이로 일본 도다이지(東大寺)에 보관돼 일 년에 한 번씩 공개된다. 도다이지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길이 16미터의 대불과 세계최대의 목조건물로 유명하다.

일본의 불교는 백제에 의해 6세기 중반 전래되었다.

배현진 기자

부처님 사리, 포트워스 기독교계 영성 자극

'Loving Kindness' 展, 12년 간 65개국 150만여 명 관람



마리쯔 피켄(Marzi Pecen 사진 오른쪽) 박사가 포트워스(Fort Worth)에서의 'Loving Kindness' 展 오프닝 행사로 '부처님 유골 사리'를 포트워스 불교 공동체 대표 이자벨 우마나(Isabel Umana)에게 건네고 있다.

노르부 린포체(Norbu Rinpoche)의 'Loving Kindness' 展이 6일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Fort Worth) 전시회를 끝으로 멕시코를 필두로 남미 순회 전에 나섰다고 〈달라스 뉴스(Dallas News)〉지가 12월 4일 보도했다.

특히 〈달라스 뉴스〉 지는 "부처님 유골 사리가 포트워스 유니티 교회(Unity Church)의 교도들에게까지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고 밝히고, 유니티 교회 교도인 헤레나(Herrera · 32)의 말을 인용, "부처님 유골 사리에서 전해지는 숭고함은 기독교와 불교라는 종교의 벽도 허물 정도"라고 보도하고, "우리는 깊은 연민에 함몰될 수밖에 없었다"는 반응을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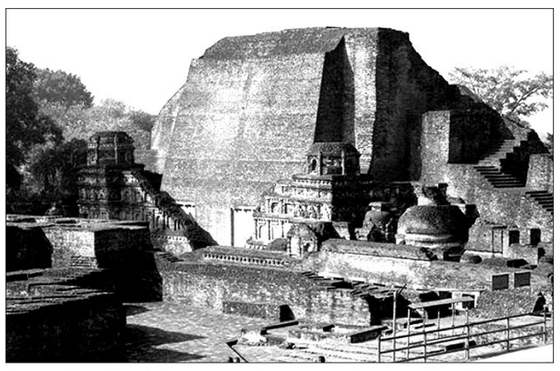
'Loving Kindness' 전은 12년 전 노르부 린포체가 부처님 유골 사리 등의 소장 유물을 이운하며 세계 전시 투어를 시작한 이래 미주 · 유럽 지역의 65개 국가, 150만여 관람객의 영성을 자극한 순회 전시로 알려져 있다.

'Loving Kindness' 전의 수석 큐레이터 마리쯔 피켄(Marzi Pecen) 박사는 "지난 2011년 세상을 떠난 노르부 린포체는 'Loving Kindness' 展을 통해 '인내와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담기를 희망했다"고 전하고, "바로 이 점이 종교를 허물을 벗고 누구나 관람하고 영성을 자극받을 수 있는 성공적인 순회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라지기르, '친환경 불교성지' 선언

비하르주 관광청, 40 마이크론 미만 폴리에틸렌 제품 금지





인도 비하르주에 있는 라지기르는 8대불교 성지이자 왕사성으로 최초 불교대학인 나란다 대학 등의 불교 유적이 많은 곳이다. 라지기르는 친환경 지역을 만들기 위해 비닐 백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은 나란다 대학 유적 일부(사진 왼쪽)와 비닐백 사용금지 표시.

인도의 8대 불교 성지이자 왕사성으로 널리 알려진 라지기르(Rajgir)가 '폴리에틸렌' 없는 '친환경 지역'으로 탈바꿈 할 전망이다.

인도 언론매체인 〈포스트(Post)〉 지는 12월 4일(현지시간) 비하르주(州) 관광청 대변인의 말을 인용, "불교도의 순례지인 라지기르에서 '폴리에틸렌 제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보도했다.

비하르주 관광청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라지기르를 방문한 관광객 대부분 거리는 물론 하수구 등에 버려진 비닐 백에 적잖게 혐오감으로 보인다는 데 주목해 기획된 것으로, 호텔, 상점 등에서 40 미크론 미만의 폴리에틸렌 제품(비닐 백 등) 사용을 금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관광청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40 미크론 미만의 폴리에틸렌 제품'의 사용을 모니터링 하는 '감시단'을 발족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위반 업체를 적발, 처벌과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비하르주 관광청은 "위반자는 600 루피(약 10,300 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성공하면 인도의 8대 불교 성지 가운데 첫 '친환경 불교 성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지기르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교화에 나섰던 주요 도시 중의 하나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바이바르산(山)의 성(城), 〈법화경〉과 〈무량수경〉을 강의하였다고 하는 영취산, 최초 불교대학인 나란다 대학 등의 불교 유적이 많아, 매년 수 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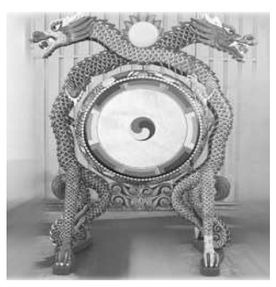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자못자'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聖鐘社 SUNG JONG SA

성종사, 대만 최대 불광산사 범종 수출!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불광산사 범종 (중량 6700관)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 범종을 수주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대만 최대 규모인 6,700관(25.5ton)으로 제작된 본 범종은 성종사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되어 표면과 문양이 매우 매끄럽고 섬세할 뿐만 아니라, 음향측정 결과에서도 소리가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하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聖鐘社
●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광식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활기찬 노년 위한 '지금은 실버시대'

BBS 교계 최초 노인전문 프로그램
목판화가 황남채 씨 진행 맡아


실버시대 진행을 맡은 목판화가 황남채 씨.

우리는 지금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노인층 비율이 증가했다는 얘기다. 때문에 노인층을 배려한 프로그램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해졌다.

불교방송이 이런 사회적 추세에 발맞추어 노인들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개설해 눈길을 끈다. 매주 월~금요일 4시 5분부터 35분간 청취자들을 찾아가는 '지금은 실버시대'(연출 황재훈)는 이른바 675세대라 부르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교계 최초 실버세대를 위한 방송이다. 진행은 목판화가이자 독실한 불자로 알려진 황남채 씨(우리는선우 이사)가 맡았다.

'지금은 실버시대' 연출을 맡은 황재훈 피디는 "어르신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건강 여가생활, 노인 취업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라며 "판화가 황남채 씨의 진행으로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버시대는 △인생은 아름다워(월) △지금은 백세시대(화) △도전 취업시대(수) △건강하게 삽시다(목) △힐링과 스토리가 있는 선시 여행(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인생은 아름다워'는 코칭 강사, 구연동화 강사, 광고모델로 활동중인 실버모델 등이 나와 활기찬 노년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펼친다. 또한 한의사 의사 등이 출연 건강 상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온라인 전화 연결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여기에 어르신들의 봉사 · 취업 등의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는 어르신들이 뜻 깊은 여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진행을 맡은 황남채 씨는 라디오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이 활기찬 인생을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한다. "배운다는 마음으로 진행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덧 실버세대에 접어들었는데요 육십이 되어도 마음은 늘 청춘입니다. 그래서 실버보다는 골드세대라고 말하죠. 어르신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방송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정혜숙 기자

한국불교미술협회 기획전 '무여불'

12월 11~17일 경인미술관서


이상배의 '관세음보살'

제 23회 한국불교미술협회 기획전 '무여불(無女佛)'이 12월 11~17일 경인미술관 2전시관에서 열린다. '뜻을 펼치다'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전시에서는 김창균, 강순형, 이상배 등 40여 명이 회원들이 참여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한국불교미술협회 회장 김창균(동국대 불교미술 담당) 교수는 "우리 한국불교미술협회는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사회에 어울리는 불교미술의 현대화라는 새로운 방향 모색하고 있다"며 "그간 회원들의 노고가 담긴 작품을 모아 전시를 열게 되어 기쁘다"며 소감을 전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김창균의 '기원' 강순형의 '부텨가 무언고' △이상배의 '관세음보살' △박경귀의 '달빛에 비친 숲' △양선희의 '지권인' △서칠교의 '어린관음' △김석곤의 '나무승' 등의 작품을 통해 한국불교미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만날 수 있다.(02)733-4448

정혜숙 기자

김경미 금니 사경전

'금운 김경미 금니 사경전'이 12월 30일까지 남산골 한옥마을 전통공예관에서 열린다. 작가 김경미 씨는 이번 전시에서 〈묘법연화경〉〈법화경변상도〉〈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금강반야바라밀경〉〈지장경〉〈무구정광대다라니경〉〈불설아미타경〉 등을 전통사경 기법으로 제작했다. 또한 창작 금니사경도 준비했다.

(02)2266-6923 정혜숙 기자

연말 맞아 나눔·힐링 공연 '훈훈'


연말을 맞아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공연이 마련됐다. 사진은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해 불자가수 라마와 개그맨 오종철 씨가 마련한 '모발나눔콘서트'.

2013년 송년음악회 '다채'

추운 겨울이 왔다.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붙는 추운 날씨에 따뜻한 음악은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연말을 맞아 나눔과 힐링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공연들이 우리의 시선을 끈다. 어려울수록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보듬어 주다보면 더 행복한 하루하루가 이어지지 않을까? 소아암 어린이돕기 콘서트에서 수화사랑 음악회까지 다양한 공연을 모았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의 **수화사랑음악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의 편견을 버리고 하나 되는 세상을 수놓는다.

연화원 이유신 사무국장은 "장애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문화행사를 통해 그들의 잠재능력을 개발시키고자 마련된 음악회다. 또한 비장애인 역시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12월 15일 오후 2시 전국비구니회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이준형 · 김양희가 '연꽃 피어오르리'를, 능인스님이 '소리 꽃'의 무대를 펼치며 해성 스님 등이 우쿠렐레를 연주한다. 또한 이창환(건아들)이 '젊은 미소'를 임희숙이 '진정난 몰랐어'를 고은이 MTM 아카펠라를 연주하며 수화사랑합창단이 '무조건, 사랑을 위하여'를 연주한다. 또한 쇤리가 출연해 체중관리법을 설명해준다. 이밖에도 자비의 쌀 및 장학금 지급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더한다. (02)2202-5831

좋은벗풍경소리도 연말연시를 맞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송년음악회**를 마련한다. '덕신 스님의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부제가 붙은 이 공연은 좋은벗 풍경소리의 붓다콘서트의 일환으로 지역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무대를 펼친다. 12월 16일 오후 7시 성남시청 온누리관에서 열리는 공연에는 '뉴트리팝스 오케스트라(지휘 이종만)'를 비롯, 불교성악가 '(테너) 이준형' '(소프라노) 김미정 김양희' '(메조소프라노) 연정숙' '꼬마풍경' '원적정사합창단' '선불남성합창단' '청련암합창단' 등이 출연 성남시 청소년들에게 불음의 향기를 전한다. (02) 723-9836

불자가수 라마(인디밴드 요술당나귀 리더)가 기획한 **'모발나눔콘서트'**(이하 모나콘)도 눈길을 끈다. 12월 23일 오후 8시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리는 재능나눔콘서트 모나콘은 가수 라마와 개그맨 오종철이 이끄는 릴레이콘서트로 소아암을 앓는 어린이들에게 특수가발을 선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불청의 '행복의 씨앗을 찾아 떠나는 템플스테이 음악여행'. 연말에는 '종로 경찰서 경찰 · 전의경을 위한 힐링 콘서트'가 마련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연화원의 수화사랑음악회. 올해로 10회째를 맞아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

연화원, 10년째 수화사랑음악회
라마, 소아암 환우 돕기 콘서트
풍경소리 청소년 송년 음악회

가수 라마는 "우연히 병원 공연을 갔다가 소아암 어린이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다. 이후 개그맨 오종철 씨와 가발 100개 기부를 목표로 매달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공연료와 기부금을 모아 현재 52개까지 가발을 기부했다. 매달 200석 규모로 진행했지만 이번 공연은 연말을 맞아 1200석 규모의 공연장에서 진행되며 가수 장혜진 씨 공연은 물론 인기강사 김미경 씨도 출연해 무대를 펼친다. 1544-1591

대한불교청년회가 주최하는 **'행복의 씨앗을 찾아 떠나는 템플스테이 음악여행'**도 연말연시를 맞아 힐링 음악여행을 떠난다. '종로 경찰서 경찰관 및 가족, 전의경을 위한 힐링 콘서트'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홍보관에서 12월 26일 오후 7시 열린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가수 김현성씨와 노래패 움직이는 꽃이 법정 스님의 산문과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시를 음악에 담아 들려준다. (02)738-1920

이밖에도 영종불교회관(주지 자명)과 (사)170원의 생명나눔(회장 이 만기)에서는 12월 15일 오후 3시 영종도 하늘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영종 주민과 불자들을 위한 **'제 2회 자명 스님과 함께하는 땡큐붓다 콘서트'**를 연다.

'땡큐붓다콘서트'는 1부 인도불교전공 철학박사 백도수 거사의 '아름다운 치유'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펼치며 2부에서는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010)-9343-300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붓다의 미소 꽃으로 피어나다

조재익 개인전…12월 14일까지 아이원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꽃으로 피어났다. 조재익의 개인전 '붓다 꽃이 피다'가 12월 14일까지 문화예술 나눔터 아이원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미얀마에서의 출가 경험과 그간 수행을 통해 깨달은 바를 세계 각국의 불상의 미소에 녹여냈다.

작가는 부처님 깨달음의 순간을 표현하고자 불두에 꽃을 결합해 작품을 완성했다. "한국 중국 캄보디아 태국 인도의 불상과 불두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아냈습니다. 이 불상을 만든 예술가들이 부처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신심을 다해 만들어낸 불상들은 그곳의 사람들을 닮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재익의 '붓다-봄의 정원'

오랜 시간 위빠사나 수행을 해오던 작가는 2007~2008년 미얀마에서 비구계를 받고 수행하다 환속해 다시 붓을 들었다. 현재에는 조사선에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앞으로도 작가는 자신의 수행경험을 작품 속에 녹여 내고자 한다. "앞으로도 불두와 다른 자연물이 결합된 작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붓다의 얼굴에 녹여 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니까요."

작가는 향후 대형 사찰에서 전시를 해보고 싶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02)2246-0071

정혜숙 기자

(사)대한불교승가종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동참 감사의 인사말씀


호국연무사 큰법당에서 5천여 훈련병들에게 설법하고 있는 석월인 종정 스님

귀의삼보하옵고
입동지절에 종도여러분들의 사내에 부처님의 가피로 건승과 행운이 항상 깃들기를 합장 기원드립니다. 지난 23일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에서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위문법회에서 5천여 훈련병들에게 위문품과 함께 호국연무사 발전기금을 전달하면서 사기진작을 복돋아 주는데 함께 동참하여 주신 종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매년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 위문법회를 봉행하오니 종도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동참하시여 호국불교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국연무사 현조 법사님과 원담 사무장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종도 여러분들의 사내에 건승과 행운을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불기2557(2013)년 11월 25일

종 정 석 월 인 화남, 총무원장 법 수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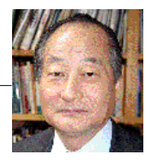
- 동참 종도스님 -

◎ 종정 월인 대종사 ◎ 원로원장 혜공 대종사 ◎ 원로의원 동하 대종사
◎ 원로의원 운성 대종사 ◎ (전)월인 문도장 법산 스님
◎ 종회의장 혜륜 ◎ 총무원장 법수 ◎ 포교원장 도안 ◎ 총무부장 도일
◎ 서울종무원장 정행 ◎ 부산종무원장 봉선 ◎ 대전종무원장 법지
◎ 울산종무원장 도성 ◎ 대구, 경북종무원장 지운 ◎ 경남종무원장 월곡
◎ 강원종무원장 부루나
◎ 성주암 주지 법등 ◎ 무량사 주지 고시근 법산 ◎ 일원사 주지 보련
◎ 고성 서래암 주지 법해 ◎ 재무원장 무착 ◎ 몽불사 주지 법관
◎ 문수사 주지 문수 ◎ 진불암 주지 무구 ◎ 보타암 주지 법전
◎ 용암사 주지 선궁 ◎ 총무원재직 무찰 ◎ 전혁란(구미) ◎ 정광 ◎ 혜전
◎ 보명 ◎ 범성 ◎ 묘전 ◎ 묘운 ◎ 묘주 ◎ 운정사 주지 도성 ◎ 도광
◎ 선조 ◎ 선견 ◎ 선웅 ◎ 혜언 ◎ 도안

총무원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2동 177-15
전화 : (051)556-0278, (051)552-8554 전송 : (051)556-8551

고려청자 국화꽃 무량보주는 우주의 충만함 상징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국화꽃, 국화당초문 → 영기꽃(보주꽃), 영기문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국화문(菊花文) 모양은 매우 많은데 현실에서 보는 국화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국화꽃 종류에는 한 가지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다른 모양이 있으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국화문 모양은 반드시 국화에만 한정하여 있는 것도 아니다. 국화문의 정체는 지금까지 매화점이 무량보주임을 밝히면서 저절로 풀리게 되었다. 국화꽃 모양이 아니고 무량보주의 조형임을 좀 더 본격적으로 증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흔히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을 보고 '무늬'를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무늬가 전공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무늬라는 조형을 새로이 해독하여 건축 전체, 조각 전체, 회화 전체, 공예 전체 등을 다루고 있으며 조형미술의 모든 장르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있다. 조형미술에서 몇 가지 중요한 조형에 따른 개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보주(寶珠)'이다. 보주의 본질이 풀리니 미술사학의 수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풀려지고 있다. 결국 보주의 올바른 개념을 모르니 현실에서 보는 국화꽃과 비슷하다고 하여 국화꽃이라 부르거나 매화꽃 같다고 하여 매화점이라 부르고 있으므로 그 조형의 상징적 의미를 밝힐 수 없었다. 국화꽃 모양이 왜 보주꽃인지 그 성립하여가는 과정을 명료하게 밝혀보려 한다.(도 1)

그러면 특히 고려청자 가운데 국화문이라고 흔히 부르는 조형이 많은데 그 모두가 영기꽃, 즉 보주꽃이다.(그림 ② ③ ④ ⑤) 영기꽃[靈花]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영화된 모든 꽃을 뜻한다. 왜 영화된 꽃이냐 하면 모든 꽃의 중심에는 씨앗을 무량하게 지닌 씨방이 있는데 그 씨앗들이 보주들로 변하는데, 즉 매우 고차원적 변화를 이루므로 보주꽃[寶珠花]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보주나무[寶珠木]라는 용어도 만들어낼 수 있다. 심증은 가지만 오래 동안 그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 노력하였으나 좀처럼 발견할 수 없었다. 과연 국화꽃 모양이 국화가 아니고 보주나무라는 것을 명징하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러던 차에 2012년 가을,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천하제일 고려청자〉 기획전에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작품을 감격스럽게 찾아낼 수 있었다. (그림 ⑥-1)

그 고려청자 접시의 중심에 상감된 조형을 백묘(白描)하고 채색분석하여 보았다.(그림 ⑥-2) 그 조형의 전개과정을 다음에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① 중심의 무량보주(無量寶珠) 안에 작은 알갱이 같은 검은 색 보주들이 네 군데 있으며 중심에 빨간 색 보주들이 다섯 개 있으며 주변에 네 개의 잎이 있는데 국화꽃의 잎 같지만 실은 제3영기싹이다. ② 즉 제2영기싹 갈래에서 만물이 생기는 조형을 잎처럼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만물생성의 근원인 중요한 보주들과 제3영기싹들이므로 중심에 집중하여 모여 있을수가 있다. ③ 그 무량보주의 양쪽에서 강력한 영기문이 발산하고 있다. ④ 봉황의 꼬리는 영기문으로 길게 뻗어나고 있는데 실은 이 꼬리의 영기문에서 봉황이 화생하고 있는 것이다. ⑤ 꼬리의 영기문의 전개 원리는 제2영기싹이 두 번 연이어 나오다가 한 줄기 영기문이 길게 뻗어나가는 제2영기싹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기문의 표현원리를 틀림없이 따르고 있다. ⑥ 봉황의 부리는 '보주 꽃' 가지를 물고 있는데 끝에 둥근 빨간 보주가 있다. 그러나 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량한 보주를 발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⑦ 즉 봉황에서 무량한 보주가 나오는 것을 중앙의 무량보주의 조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⑧ 무량보주를 중심으로 두 봉황이 회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우주에 충만한 영기의 역동적 대 순환을 상징한다. ⑨ 이 도상은 큰 원 안에 있는데 큰 원은 영기창(靈氣窓)이다. 즉 영기창을 통하여 대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국화꽃'이 올바르지 않은 용어라면 국화꽃들을 각각 끝에 맺으며 전개하는 '국화당초문(菊花唐草文)'이 그릇된 용어임은 자명한 일이다. 다음 회에 그 수많은 국화당초문이 만물을 탄생시키는 영기문임이 밝히려 한다. 회화에는 물론 도자 공예, 금속공예, 나전칠기, 복식 등에 보이는 수많은 국화문이란 용어로는 한국미술 더 나아가 일본미술이나 중국미술은 풀리지 않는다.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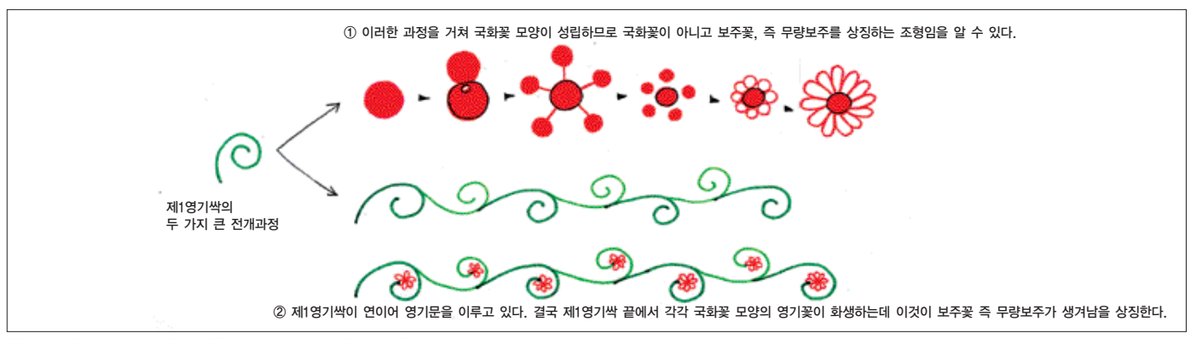


그림 ① 제1영기싹이라는 조형언어의 두 가지 전개과정



그림 ②. 고려청자 합, 중앙의 것이 국화가 아니고 보주꽃.



그림 ③. 고려청자 합, 모두가 보주꽃, 그래서 주변에 보주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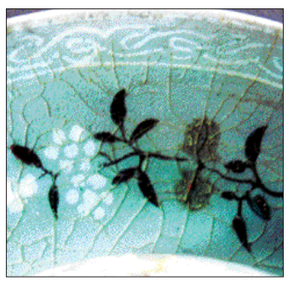


그림 ④. 고려 청자 잔 받침, 보주꽃(우리가 매화점이라고 잘못 부르고 있는 조형)이 무량보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⑤. 보주꽃과 보주꽃 봉오리-봉오리가 바로 보주이다.



그림 ⑥-1. 봉황의 입에서 무량한 보주가 발산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그림 ⑥-2. 채색분석

藥이 되는 사찰음식

식이섬유 부각 변비에 효능



부각

△재료(4인 기준)

○ 김(다시마) 10장, 당귀 100g

○ 찹쌀풀(다시마국물 2컵, 찹쌀가루 1컵, 콩가루 3큰술, 국간장 2큰술)

△만드는 법

① 다시마국물에 찹쌀가루와 국간장, 콩가루를 넣어 끓으면 중약불로 낮추어 5분 정도 끓인 후 완전히 식힌다.

② 김은 4등분 후 찹쌀풀을 얇게 입혀 3장 정도를 겹쳐 바른 후 통깨를 뿌린 후 그늘에서 말린다. 앞면이 마르면 뒷면에 풀칠을 한 번 더 해서 말린다.

③ 당귀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없앤 후 찹쌀풀을 두세번 덧발라 그늘에서 말린다.

④ 잘 건조된 부각은 그냥 먹어도 좋고 기름에 살짝 튀겨 먹는다.

부꾸미

△재료(4인 기준)

○ 찹쌀가루 2컵, 물 1/3컵, 소금 1/2작은술, 치자, 백련초, 쑥가루 등

○ 소 – 삶은 거피팥 1컵, 유자청 다진것 2큰술, 소금 약간

△만드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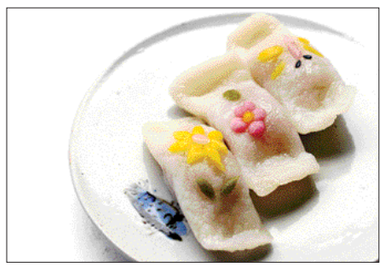
① 찹쌀은 소금을 넣어 골고루 섞은 후 뜨거운 물을 부어 많이 치대어 반죽을 한다.

② 색을 들일 경우 치자나 백련초, 쑥가루 등 천연 색소를 넣어 반죽을 한다.

③ 거피팥은 깨끗이 씻어 5시간 정도 불린 후 김오른 찜솥에 15분 정도 찐 다음 소금으로 간을 한 후 다진 유자청을 넣어 단맛과 촉촉한 정도의 농도를 낸다.

④ 찹쌀은 직경 5cm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 프라이팬에 앞뒤로 익혀낸다.

⑤ 익힌 찹쌀 전병에 납작한 모양으로 소를 넣고 양쪽 가장자리를 접어 모양을 만든다.



손쉽게 만들어 먹는 간식 '부꾸미'

부각은 신선한 재료에 삭힌 찹쌀풀을 골고루 발라 말리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여서 예로부터 귀한 손님상에 올리는 음식중의 하나였다.

부각은 고소하고 바싹거리는 담백한 맛이 특징으로 주재료는 해조류나 산간 약용식물 등을 사용하여 반찬이나 영양간식 등의 웰빙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각은 알카리성 식품으로 체질의 산성화를 막고 각종 풍부한 무기질과 섬유질 성분이 많은 식이섬유 식품으로 변비에 유효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

조리시 주의할 점은 튀길 때 발연점이 너무 높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낮은 온도에서 튀기게 되면 흡유량이 많아져 바싹한 맛이 사라지고 반면 너무 높은 온도에서 튀기면 타기 쉬우므로 적정온도에서 재빨리 튀겨내야 한다. 대표적인 부각으로 김이나 다시마를 많이 사용하는데 다시마는 예로부터 피를 맑게 하고 혈압을 내리는 식품으로 오랫동안 먹으면 체중감소 등의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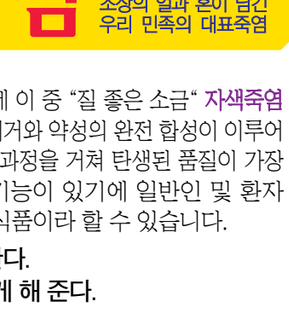
부꾸미는 찹쌀가루나 수수가루 등을 반죽하여 동그랗게 번철 즉, 프라이팬에 구운 지진떡으로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많이 알려져 왔다. 부꾸미 반죽에 수수 등의 주재료를 사용함에 따라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는데 수수 등의 잡곡을 섞어 쓸 경우는 반죽시 물의 첨가량이 증가되며 오래 치대어 반죽해야 쫄깃한 느낌의 부꾸미가 된다.

소의 경우는 기호에 따라 팥, 녹두 등 다양한 곡물을 사용할 수 있고 꿀이나 설탕 등으로 촉촉한 정도로 번죽을 해야 잘 굳지 않고 부드러운 떡이 될 수 있다.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이 세계에 속한 모든 것은
인식의 표상에 불과하다"



불교심리학의 정수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 강의
이계묵 역해
246*178mm | 흑백 | 332쪽 | 15,800원

마음 밖에 따로 대상이 없음을 설한 대승 심리논서

대소승을 막론하고 〈유식삼십송〉은 불자라면 꼭 연구해야 할 필독서다. 마음을 닦아, 마음을 깨달아 안심(安心)을 얻고 완전한 자유를 얻는 불교심리학의 정수가 바로 이 경전에 담겨 있는 까닭이며, 마음을 주제로 하여 교학을 일목요연하게 체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유식삼십송 해설은 동학사 강원본을 참조하였으며 일본 龍名大學 불교학 교수인 深浦正文의 唯識三十頌論 解說本을 관응노사가 번역한 譯本(역본)을 참고하여 현대어로 풀어 엮었다.

비움과소통 www.facebook.com/BiumSotong (02)2632-8739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의 길잡이!
-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배와 함께 하면 전생의 악연이 사라져 모든 장애가 없어지게 하는 108 참회문
108 진(眞)참회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저서는 현재 31종 62권이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 010-9043-1016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27 ~ 12/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알고 보면 괜찮은	마가	불광출판사
4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청전	한겨레출판사
5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6	대승기신론 강해	한자경	불광출판사
7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8	참선 잘하그래이	김형효	김영사
9	인간세계의 근본을 밝히다	정목	비움과소통
10	괴로움 어디에서 오는가	정준영 외 4인 공저	운주사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신라 점찰법회란 무엇인가

불교의 세계관인 업과 윤회 알게 해주는 법회



신라 점찰법회와 신라인의 업·윤회 인식
박미선 지음
혜안 펴냄
2만2천원

신라의 불교는 왕에 의해 공인되었으나, 왕과 귀족만을 위한 정치사상이 아닌 일반 백성과 노비까지도 신봉하는 종교로 자리 잡는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책은 '점찰법회'에서 그 단서를 찾고 있다.

현존하는 자료상에서는 이 법회가 삼국 중 신라에서만 행해진 것으로 나타나며, 신라에 전해진 7세기 초부터 신라 말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기별로 점찰보, 점찰예참, 육륜회, 과증법회 등 그 명칭이 달라 이 법회를 통해 신라불교의 흐름과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종교를 믿는 이유는 알 수 없는 사후에 대한불안, 그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일 것이다. 불교는 영혼이 불멸하지만 사후 내세에서는 현세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윤회적 세계관을 내세웠다. 나아가 그러한 윤회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인 '업(業)'이라고 역설했다. 이로써 신라인들은 보다 나은 세계로의 환생을 바라거나 윤회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했고, 이것은 왕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라인의 염원이었다. 이 업·윤회사상이야말로 신라인들이 불교를 신봉한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불교교리와 사상이 발전할수록 신라인들의 불교이해가 깊어지고, 이는 곧 업과 윤회에 대한 인식의 심화로 이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신라인들의 업과 윤회사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점찰법회이다.

점찰법회란 〈점찰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무막대기를 던져서 과거의 업이 선한지 악한지를 관찰하며, 악할 경우 참회한 후 계를 받으며, 마지막으로 삼세의 과보를 알아보는 의식으로, 곧 불교의 세계관인 업과 윤회를 알게 해주는 법회라고 할 수 있다.

600년 중국에서 돌아온 원광(圓光)이 가서갑(현재 경북 청도)에 점찰보(占察寶)를 둔 것이 신라 점찰법회의 시작이다. '보(寶)'는 곡식이나 돈을 시주하여 본전은 남겨두고 이자로 이익이 되게 하는 것으로, 점찰보라는 것은 점찰법회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두었다는 의미이다. 당시 중국 광주(廣州)등지에서는 과거의 선악 업을 점치는 탑참법(塔懺法)이 유행했고, 장안(長安)에서는 실천 방식으로 무진장시(無盡藏施)라는 보시행을 강조하는 삼계교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다만 〈점찰경〉은 황제의 명에 의해 유포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원광은 이 경전에 근거하기보다 중국에서 체험한 탑참법과 무진장시를 표본으로 가서갑에 점찰보를 두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원광이 실시한 점찰법은 과거의 선악 업을 관찰하는 방식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로써 원광은 신라인에게 업과 윤회의 관계를 쉽게 설명하면서 보시를 강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점찰법회는 통일 후에 더욱 활발히 시행되었고, 8세기 중엽 진표(眞表)에 의해 신라만의 점찰법회를 확립했다.

점찰법회가 '점'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었으나, '여래장사상'이라는 불교의 심오한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장신앙·미륵신앙 등과 결합하며 신라 왕경과 지방의 다양한 신분의 사람

중국서 돌아온 원광의 '점찰보'가 시작
신라의 국가적 종교되는데 결정적 역할
8C 진표에 의해 신라만의 법회 확립

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또한 업·윤회를 설명하고 있었으므로 현세에서 악업을 제거하기 위한 참회나 선업을 위해 보시를 강조함으로써 자연히 신라인의 윤리의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점찰법회에서 신라불교가 수용 초기의 정치사상적 성격에서 종교·사회적 성격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점찰법회가 숙세의 업과 과보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점찰법회와 연계된 지장신앙과 미륵신앙의 유행도 당연히 업·과보, 윤회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책은 점찰법회의 변화와 더불어 이러한 신앙의 유행을 통해 신라인의 업·윤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했다.

또한 신라인의 업·윤회사상의 변화는 불교가 어떻게 신라사회에 뿌리내리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나아가 불교가 전통사상과 문화로서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에 주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원동력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양심'이 우리의 당면 문제를 해결할 것

양심이 답이다

윤홍식 지음·그림 | 봉황동래 펴냄 | 1만8천원



'철학자이자 양심리더십 전문가', 저자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오랜 시간 '인간의 길'에 대해 탐구했는데, '인간의 길'이란 '양심에 따르는 삶'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양심만이 우리의 앞길을 비춰줄 빛이요 진리라는 것을 실감하고, 양심으로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장 고귀한 삶이라는 것이다. '양심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다.'이라는 것이 책의 요지다.

책은 '인간의 길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 양심적인 삶의 실천을 위해 저자가 그동안 트위터에 올린 짧은 글들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홍익학당에 올렸던 글들, 양심콘서트에서 했던 강의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그 글들은 저자가 부처님을 비롯한 옛 현인들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정리한 글과 현인들이 남긴 것들이다.

'양심'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자주 쓰면서도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말도 흔치 않을 것이다. '양심'을 단순히 다양한 사회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가변적인 도덕적 판단기준으로만 이해한다면, '양심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다.'라는 저자의 주장에 동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저자는 양심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맹자의 글을 소개하며, 양심이란 이기적인 마음인 욕심을 잠시 내려놓을 때 느껴지는 맑고 밝은 마음을 말하는 것으로, 욕망이나 이기심 등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양심이란 생각과 욕심, 감정을 초월한 나, 순수한 상태를 말하며, 개인이 생각하고 욕망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상태이므로 인위적인 것이 아니어서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이나 종교, 사상에 따라 양심을 본심, 신성, 성령, 참나, logos, 초월적 자아, 선의지 등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양심(혹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건 혹은 부르지 않건 간에)은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 생각과 감정을 초월한 상태를 지칭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찾아가야만 비로소 '양심을 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책을 통해, 양심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고, 항상 양심을 찾고서 욕망과 괴로움을 바르게 다스리며, 양심의 힘을 이용하여 늘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함을 추구해 간다면 우리가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확언한다.

"정치 경제 환경 사회 종교 등등 어느 분야 하나도 아픈 소리를 내지 않는 곳이 없다. 그 주에서도 가장 아파하고 소외감에 떨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책은 '양심'이 해결해야 할, 현 문명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는 인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 인류 스스로 겪게 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며, 그 부작용들로 인해 생긴 괴로움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단순한 이데올로기나 제도의 변혁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책은 '선'과 '양심'으로 자신에게 펼쳐진 우주를 스스로 경영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직관적이고도 강력한 지침을 전해줄 것이다.

또한 공자, 노자, 맹자, 예수, 붓다, 소크라테스 등의 성자들, 주희 왕양명으로부터 칸트와 김구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을 망라한 여러 철인과 현인들이 저자를 통해 인류를 격려한다. 글쓴이의 강연을 녹취한 글에는 QR코드를 첨부하여, 바로바로 저자의 생생한 유튜브 강의를 연결하여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저자가 한지 전시회를 통해 전시한 그림도 함께 소개했는데, 마치 선화(禪畵)를 연상케 하는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도 차분해지면서 글을 '보는' 흥취도 더해 갈 것이다. 또한 인터넷 카페 '홍익학당'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양심노트'의 양식도 제공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우리불교 지켜낸 '실천불교' 연구

불교정화 선구자 청담대종사의 실천불교사상연구

진관 지음 | 초롱 펴냄 | 2만원



일본불교의 잔재를 청산하고 한국불교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청담(1902~1971) 스님의 생애와 스님의 실천불교사상을 연구한 책이다. 청담 스님이 실현하고자 했던 불교개혁운동과 불교정화운동에 대한 역사성을 조명하고 있다.

청담 스님은 진주제일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진주고등농림학교에 진학했다. 여름방학 때, 진주 비봉산 호국사에 갔다가 박포명 스님을 만나 불교와 인연을 맺고 해인사, 백양사 등을 돌며 출가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졸업 후 25세 때 일본으로 건너가 불법을 배우고 이듬해 귀국하여 고성 옥천사(玉泉寺)에서 박한영 스님을 은사로 수계(受戒)하고 청담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광복 후에는 교단 재건과 불법 중흥을 위해 고성 문수암(文殊庵), 해인사 등지에서 대중을 교화하고 도제(徒弟)를 양성하였다. 또한 합리적인 종단의 제도를 역설하여 출가와 재가를 구분하고, 그들이 해야 할 5개 조의 행동지침을 발표했다.

1954년 서울 선학원(禪學院)에서 전국비구승대회를 소집하여 36년 동안 조선에 전해진 일본불교의 잔재를 청산하고 조선불교계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불교정화운동을 주도하였고, 그 해 가을 사찰이 청정도량으로 정화될 때까지 목숨을 바쳐 싸우겠다는 결의로 약 400명의 비구와 함께 단식했다.

이듬해 대한불교조계종 초대 총무원장에 취임, 이후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해인사 주지, 도선사(道詵寺) 주지, 동국학원 이사장을 거쳐 1966년 대한불교조계종 통합종단 제2대 종정, 전국신도회 총재, 조계종 장로원장 등을 역임했다.

1968년 도선사에 호국참회원을 건립했고 1969년에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종단 탈퇴를 선언했다. 1970년 총무원장에 재임했고, 세계불교연합 장로원장을 역임하였으며, 1971년 11월 15일 나이 69세, 법랍 46세로 원적에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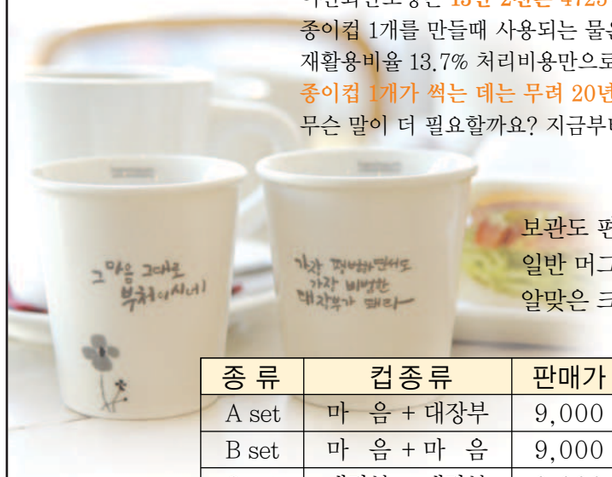
책은 '서론', '청담 스님의 탄생과 조선불교의 태동', '일본 식민지 통치시대의 선학원 설립', '해방 이후의 대승보살정신과 참회정신', '청담의 불교정화운동과 개혁운동', '박정희 군정시대의 불교', '결론' 총 일곱 개의 장에서 청담 스님 시대의 시대적 배경, 스님의 개혁사상, 일본 조동종과의 관계, 조선총독부 치하에서의 한국불교, 해방 이후의 한국불교, 불교정화운동, 박정희 군정시대의 한국불교 등을 살펴보고 있다.

박재완 기자

법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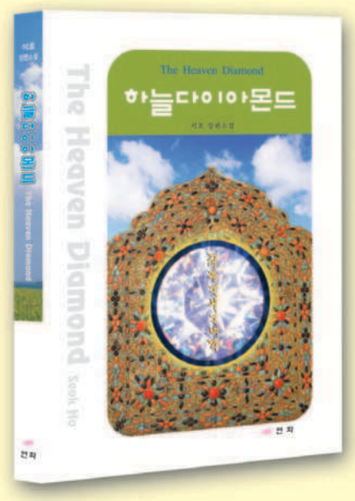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컵 종 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 낱개당 5,000원 (택배비 별도)
- 세트당 (2개) 9,000원
-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현 불 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스님이 쓴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이 작품이 세계명작이 되는 건
한국불교가 세계명작이 되는 것이다.
불자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 보자!
지혜와 감동이 살아있는 소설!
스님이 쓴 소설! 재미있는 소설!

불자님이 반드시 읽어야 할 이야기가 이 책속에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간화선 마스터! 금강경 마스터! 깨달음 마스터!
당신 삶의 질이 확 UP 달라집니다.



이 세계는 당신의 성숙을 위해 당신을 끝없이 돕고 있습니다. 기쁨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당신은 그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세계는 내 모자란 부분을 이런 방식으로 채워주는구나.' 그런 태도를 가질 때 당신의 삶은 커 갑니다. 당신은 이 세계가 빛(완성체·부처)으로 계획한 존재입니다 . – 저자 석호스님의 메시지

※ 선물, 법보시용으로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지은이: 석호 A5(145×210) 291쪽 값 13,000원 ☎ 053) 253-1923 연화뀌

교보문고, 영풍문고, 인터파크, 알라딘, YES24 및 전국불교서점 판매 중
이 책의 홍포에 인생을 걸어보실 시·도별 책임자 1분씩 모십니다. (포교사 및 퇴직자 환영)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32-27 연화출판사 ☎ 011-9377-1923

붓다 가르침 실천… 업그레이드 되는 삶



붓다수업
법상 스님 지음
민족사 펴냄
1만5천원

경전과 수행, 명상, 자연과 여행을 주제로 쓴 사유의 글들로 인기를 얻고 있는 법상 스님이 3년 만에 새 책을 출간해 화제다.

현재 태릉 육군사관학교 내 호국화랑사 주지인 스님은 사이버 수행 공간 목탁소리 지도법사로 더 알려져 있다. 스님의 글을 읽고 뜻을 모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사이버 모임 '목탁소리' 를 만들었고, 목탁소리는 종교와 계층을 초월해 마음을 맑히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고향과 같은 귀의처로 불교와 명상 분야의 대표적인 웹사이트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면서 이 사회의 많은 이들이 기존 불교 교리서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 있으면서도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불교 교리서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소망의 결절물이 바로 이 책이다.

법상 스님은 이 책의 머리말을 통해 "이 책은 붓다의 그 신성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어떻게 흡수해야 하는지,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썼다"며 "고리타분하거나, 현학적이거나, 교리적인 해설이 아닌, 붓다의 가르침들이 어떤 방식으로 현실에 접목되는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존재의 근원을 뒤흔들어 놓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금의 시대가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출간 취지를 밝혔다.

이 책은 저자가 불교 교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닮아가게 되고 마침내 붓다가 될 수 있도록 원력을 세워 집필했다.

저자는 불교교리 속에는 선지식들이 펼쳐낸 인류 정신 자산이 모두 담겨져 있고, 종교와 사상, 철학을 비롯해 현대의 힐링, 뉴에이지, 치유, 명상 등 그 모든 것의 근원적 가르침이 들어 있음을 강조한다. 아울러 저자는 불교 교리를 제대로 알면 우리 존재의 근원을 알게 되고, 붓다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게 되면 중생의 삶이 아니라 붓다의 삶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고 말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불교 교리가 단순한 사상이나 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직접 실천 가능한 생활 속의 수행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지침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불교 교리만 제대로 이해해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어려운 길목이나 풀리지 않는 의문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 직접 풀어내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 책 〈붓다 수업〉을 통해 '그 모든 것의 원천이자 근원' 인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우주의 근본, 삶의 근원적 의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내적인 힘과 지혜를 쌓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는 불교 교리의 중요한 용어인 무아(無我)를 홀로그램으로 이뤄지는 소녀시대 공연의 원리를 들어서 흥미진진하게 해설해 준다. 첨단과학문명이 발견한 것들을 이미 부처님

법상 스님의 신개념 불교교리 해설서

교리만 이해해도 삶의 의문 해결

딱딱한 교리 부드러운 필체로 풀어

께서 2,500년 전에 알았고, 불교 교리 속에 '그 모든 것에 대한 진리' 를 풀어 놓으셨다는 것을 밝혀낸다. 이와 같이 모든 불교 교리들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실증 사례와 연구 결과를 예로 들어 설명, 독자 스스로 '붓다의 가르침' 에 몰입케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책을 통해 불교교리 속에 담긴 생활 속 삶의 지침들을 살펴보고, 불교리를 통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삶의 근원적인 의문들을 풀 수 있는 지의 배려가 행간에 있다. 저자 특유의 자상한 필체로 풀어내 독자로 하여금 불교 교리가 현학적이거나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고 감동적으로 다가오게 만든다. 이 책은 단순한 불교 교리서가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자기계발서이자 마음공부 안내서이기도 하다. 김주일 기자

▲저자 법상 스님은?

인연 닿는 도량에 여행하듯 머물며 수행과 전법에 매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인터넷 생활 수행도량 '목탁소리(www.moktaksori.org)' 와 다음 카페 '목탁소리 지대방' 지도법사, 화랑호국사 주지, 불교아카데미 학장으로서 생활 속에서 마음을 닦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수행을 이끌어 가고 있다. 사이버모임 '목탁소리' 는 바쁜 생활인들이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소중한 깨침의 공간이 되었고, 종교와 계층을 초월하여 마음을 맑히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고향과 같은 귀의처가 되면서 불교와 명상 분야의 대표적인 웹사이트로 자리 잡았다. 저서로는 〈금강경과 마음공부〉 〈생활수행 이야기〉 〈마음공부 이야기〉 〈부자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라〉 〈삶을 창조하는 행복수업〉 등이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세잎 클로버 꽃말 '행복' 은 삶에서 추구할 큰 가치

세잎클로버

안직수 지음 | 올리브 그린 펴냄 | 1만원





불교신문사에 재직중인 안직수 기자는 참 부지런한 사람이다.

조금 안보인다 싶으면 무슨일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바쁜 기자 생활에도 불구하고 일본책을 번역해 펴낸 〈울어버린 빨강 도깨비〉가 그렇다. 또한 〈암자를 찾아서〉 〈아름다운 인생〉 등도 출간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성세대를 위한 질문 30가지' 란 부제로 된 〈세잎클로버〉를 펴낸 것이다. 그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 민주당 경기도당 교육환경개선 특별위원인 안 기자는 내년 6월에 도의원에 도전한다. 그의 삶은 도전의 연속인 것 같다.

이 책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핸드북 형식이다. 책 내용도 누구나 한번쯤 느끼고 생각한 삶 속에서의 이야기와 우리 사회에 대한 저자의 생각들을 서술한 것이어서 부담없이 읽을 수 있게 구성돼 있다. 주제도 '조기학습' '왕따' '캠핑문화' 등 우리의 삶 속에서 익숙한 용어들이 등장한다.

저자는 아이들의 조기학습을 어른들의 병폐라고 주장한다. 보통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적어도 12년간 영어와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공부는 뒷전으로 미룬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의 생각은 좀 다르다. 외국인을 만나 영어로 오랫동안 대화해야 하는 직업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인가라고 오히려 저자는 되묻는다. 저자는 그렇다고 무작정 영어교육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영어를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큰 아이를 예로 소개한다.

저자의 큰 아이가 5학년이 되기 전에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1년간의 생활 후 돌아와서 아직까지 영어학원 근처에도 가지 않고 영어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행복하게 공부하는 것이 그 비결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인생에서 어린아이나 어른이 가장 추구해야할 가치로 저자는 행복을 꼽는다. 저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서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버리고 비우고 낮추는 것이다. 특히 기성 세대는 하심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하심은 자신의 아상을 버리는 작업이며, 아상을 버리지 못하면 자신의 불행은 물론 다른 사람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는 것이다. 어린아이들도 존중할 수 있는 하심은 중요한 행복의 덕목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일례로 40~50대 남자들은 특

행복 위한 습관…비우고 낮추기

삶에서 느낀 30가지 단상 소개

저자, 내년 6월 도의원에 도전

히 지고 살라고 조언한다.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지고, 양보하고 살라는 것이다. 진다고 해서 내게 작은 피해나 문제라도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고 살면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 지고 가족과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도 평온해 진다고 주장한다.

'참을 인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란 주제도 가슴에 와 닿는다. 저자는 욱 하는 성격을 스스로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매일 사경을 하라고 처방전을 내린다. 익숙하지 않은 한자를 쓰려다보면 적지 않은 인내심이 생겨나기 마련인데, 그 인내의 습관은 생활에서 화를 참는 절제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그리고 덧붙인다. 화를 참는 교육은 어려서부터 해야 큰 효과가 있다고.

저자는 머리말에서 "우리 사회가 아름답고 평화롭게 변해야 우리의 후손들이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상생과 화합의 문화가 널리 퍼져 물질은 수단이며 정신이 귀중한 가치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고 실천하기를 발원하며 이 책을 펴냈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학담 스님 교리 학술서 세 권 펴내

현수법장으로 읽는 반야심경
학담 스님 지음 | 큰수레 펴냄 | 2만1천원

선으로 본 붇다의 세계 | 2만5천원

반야심경통석 | 1만3천원



학담 스님은 1970년 도문화상을 은사로 출가해 동헌선사 문하에서 몇 년의 선 수업을 거친 뒤 상원사, 해인사, 봉암사, 백련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스님은 선이 언어적 실천, 사회적 실천과 둘이 아닌 창조적 선풍을 각운동의 이름으로 제창하며, 용성진종선사 유업계승의 일환으로 서울 종로에 대승사 도량을 만들고 역경불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물들이 〈사십이장경강의〉 〈돈오입도요문론〉 〈원각경관심석〉 〈육조법보단경〉 등 불전 해석서다.

이번에 학담 스님은 학술서 책을 세 권 펴냈다. 〈현수법장으로 읽는 반야심경〉 〈반야심경 통석〉 〈선으로 본 붇다의 세계〉 등이 그것이다.

우선 현수법장 스님은 중국 당조때 화엄종을 수립했다. 〈반야심경약소〉는 반야불교와 유식 · 여래장 불교를 회통해 화엄종교를 건립한 스님의 대표저술 가운데 하나다.

〈현수법장으로 읽는 반야심경〉은 이미 20년 전에 발간됐지만 편제를 새로 바꾸고 술어를 재점검해 재개정판으로 낸 해석서이다. 천태지자선사의 경전해석 관점으로 현수소를 다시 이해한 것이 특징이다.

용성 스님은 조선조말에 태어나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선사다. 한문에 갇히고 억불의 시대적 암운에 가린 조선조 불교의 봉건성을 깨뜨리고 불교사에 새 빛을 연 선사이다. 용성 선사는 세종조 '간경도감' 이후 한글역경을 새로 시작한 민족운동가이기도 하다. '석가사' 는 용성선사가 붇다의 생애를 선(禪)의 관점으로 기술한 100쪽 이내의 짤막한 책이지만, 500쪽에 가까운 분량으로 재해석했다. 마지막 책은 '반야심경현수소' 를 재편집하면서 현수소의 번쇄성에서 벗어난 심경의 대의를 저자의 견해로 자유롭게 풀이한 책이다. 김주일 기자

부처님 초기말씀 42주제로 서술

방어할 두려움 없는 자유

순일 이동호 지음 | 순일출판사 펴냄



삶에 지친 이들에게 세상은 수많은 처방전을 제시하는 책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영적 스승들은 한결같이 '모든것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라' '너의 내면의 욕구를 뒤돌아보라' '명상하라' 고 외쳐댄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을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으로 되돌아가라는 가르침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관념이고, 에고이고, 의식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진정한 이해야말로 이세상에 대한, 관계에 대한, 그리고 자신으로부터의 해방이 될 것이다. 저자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부처님의 초기 말씀을 예를 들고 있다.

저자는 "부처님은 무아를 먼저 이야기하고, 무지에서 비롯된 오온에 집착함이 괴로움이며, 그 집착을 끊고 무지를 소멸시키면 해탈이라 했다"며 "부처님은 무아로 시작해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 집착을 끊을 것을 설했다"고 말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부처님의 초기 말씀을 42주제로 세분화해 이야기한다. '얽매임' 이란 주제에서 저자는 흔히 얽매인다고 할 때에는 그 얽어매는 대상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속적인 종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주인이 얽매이는 법은 없다는 것이다.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뭔가 바라는게 있는, 갈등하는 사람들이 얽매인다는 것이다. 얽매이지 않으려면 서로 바라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서로 바라는 것이 없는 독립적인 관계일때 얽매이지 않으며,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저자는 조언한다.

이외에도 저자는 이 책에서 업(業)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불교에서 업이란 의지적 힘인데 이것은 지은대로 선업과 악업을 쌓아서 받는 결과가 업보라고 말한다. 업은 실체가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되며, 누군가 참나가 됐다면 업은 없다고 주장한다. 행위자가 없는 행위에는 의지적 힘을 발할 행위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업이란 일종의 관념과 같다고 설명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도 관념이 형상화된 틀이며, 생각이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김주일 기자

양초보시

현대불교신문사와 삼환양초는
「불기 2557년 동지」를 맞이하여 양초를 무료로 보시합니다.
이 초는 불기 2557년 동지를 기념하는 육각초
(길이 45Cm, 판매가 25,000원 상당)입니다.

전국 사찰에 한하며, 선착순 500여 사찰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팩스주문만 받사오며,
'제목 양초 보시', '받으실 사찰 주소'
'전화번호' 를 기입 후
삼환양초 팩스로 보내주세요.

단, 택배비는 받으시는 사찰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선착순 500셀 한정!!

신청 : 삼환양초 FAX 031)766-0233, 6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 수강생 모집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30~9:00
■ 수강자격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에서는 심리상담 및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금강경과 경제 ㊦

정재락 (前 영산대 교수)

불교식 자본주의는 이익 분배하지 않아

승단의 비구 위주로 붓다의 원래 가르침을 계승했다고 자처하는 상좌부와, 붓다의 진정한 가르침을 계승했다고 자처하는 대중부로 1,2차 결집은 나누어진다.

이러한 초기 불교 교단은 세월이 지나면서 출가 승단 위주로 전통을 유지하기위해 보수화 되었다. 또한 붓다의 교설인 만유의 무상, 무아, 연기설은 논의과정중에 체계화, 교조화되어 히말라야보다도 높은 아비담마라는 '유(有)' 의 교학체계를 이루게 된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재가 대중을 중심으로 붓다 본래의 뜻으로 돌아가자는 불교 중흥의 사회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은 상좌부 불교를 소승이라 폄하하고, 스스로는 중생을 위해 자기희생과 헌신을 지향하는 보살의 행을 통해 성불하기를 추구하는 대승이라 하였다. 이로부터 불교교단은 전통적인 계율을 고수하려는 보수적 경향의 상좌부와 계율을 자유로이 해석하려는 진보적 경향의 대중부로 분열하게 되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실의 괴로움에 대해 연기설에 입각하여 고찰하고 바른 지혜와 수행으로 해탈하는 것이다. 이런 기본 원칙 위에 교리를 세운 것이기는 하지만 점차로 실제 수행보다는 번쇄한 교리해석에 치우치는 경향이 강해졌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반발하고 비판하는 집단에 의해 대승불교가 싹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부터 일반 대중들은 붓다에 대한 소박한 믿음으로 예배하고 공양함으로써 구원을 바라게 되었고, 그것이 행해진 대상은 불탑이었다.

또한 소승불교가 아라한의 불교라면, 대승불교는 보살의 불교이다. 대승경전은 오로지 보살의 이념과 실천에 대해 설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보디삿트바란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마하삿트바란 위대한 사람이라는 의미이며 불타가 되겠다는 커다란 서원을 세우고 고된 수행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자기인식의 차이가 바로 대승불교와 부파불교의 근본적인 차이인바 불타가 되고자 하는 보살의 수행은 필연적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수행이다. 즉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자기 수행을 완성하는 길이다. 이것이 육바라밀의 수행이다. 따라서 대승불교의 무대는 보살이 육바라밀을 행하는 광대무변한 불세계가 되는 것이다.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개인중심의 경제생활과 복리를 추구하는 소극적 경제관에서 이를 전 우주적으로 확장하여 적극적인 경제생활 추구와 대중적 사회 복지를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금강경〉 제8품 의법출생분에 나오는 '이게 불법이라고 규정하면 바로 불법이 아니다' 라는 말처럼, 〈금강경〉의 가르침은 불교라는 틀에 한정되지 않는 우주적 진리다.

4. 금강경과 유식론

붓다의 초기불교 연기론에 입각한 반야경의 공사상을 더욱 확장시키면 그 위에 건설된 초기 대승불교의 마명 · 용수보살 등이 중심이 된 중관사상, 이를 더욱 확장시켜 정립 발전시켜 나간 무착, 세친 보살에 이르러서는 모든 것이 오직 마음뿐이라는 유식사상으로 발전되어 공을 깨닫는 것에 만족치 않고 공을 깨닫는 인식의 저장고로 장식(藏識, Alaya-vijnana 혹은 아뢰야식)을 제시한다. 이는 인류의 보편적 의식과 아울러 개인의 특성을 아우르는 것으로 한없는 시간에 걸친 우리의 인식과 인상이 여기에 저장되므로 우리는 심식을 정화하고 계발함에 따라 무한한 지혜와 잠재력을 계발해 나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과 지성의 가능성을 극대화하여 인생과 우주의 창조와 주체가 오직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유식론적 시각으로 경제를 본다면 우리는 외부 세계의 경제적 상황전개도 우리의 책임임을 알게 된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경제적 세계의 창조와 유지 및 진행도 다름 아닌 우리 의식의 발현으로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인식된다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자신에게 두어야지 남에게 돌리거나 원망하지 않으며 혹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반성하며 해결을 위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대안 모색과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대승불교 특히 후일 유식학으로 발전하는 우리 인식 바탕의 잠재력을 계발하는 유식론적 연기에 바탕을 둔 경제 행위는 그 범위가 무한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다. 어떻게 우리가 무한 잠재력을 지닌 우리의 장식(아뢰야식 혹은 업식)을 컨트롤 할 수 있겠는가. 그게 가능한 일인가.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널뛰듯 출렁이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업식(業識)을 정화시킬 수 있단 말인가.

말하자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처럼 한없는 시간을 지나오며 자아의 분별 망념으로 일어난 업식이 켜켜이 저장되어 있는 우리의 아뢰야식을 포맷하여 깨끗이 비워야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내가 원하는 어떤 그림이라도 그대로 실현 된다' 는 논리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금강경으로 돌아가게 된다.

불과 삼사십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의 절에서 금강경 읽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다. 일반 대중들은 말할 것도 없고 스님들조차 금강경 독송하기를 권유하는 분들을 거의 만날 수 없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경전이니 생전예수제때나 한 번씩 스님들이 독경 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이처럼 일반 대중들에게 금강경이 널리 보급되어 독송되고 활발하게 논의되고 관련된 저술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 한가운데에는 동국대 총장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친 후 소사에서 목장 경영을 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침저녁으로 금강경 독송을 권장하던 백성욱박사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업식을 비우고 또 비워 비운다는 분별조차 비우는, 비운다는 인식 행위를 부정의 부정을 거듭하여가며 우리의 분별 망념이 전혀 미치지 않는, 바로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무한 창조주가 되는 무위의 세계로 안내해 가는 위대한 가르침이다. 또한 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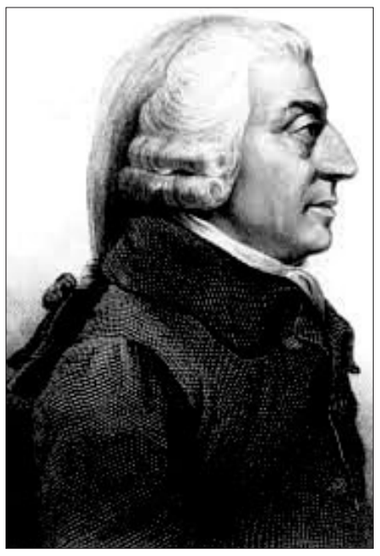
3대 종교 중 경제 관해
가장 많이 얘기한 불교,
재물에 대한 탐착 경계했을 뿐
재물을 공덕 증거로 본 경제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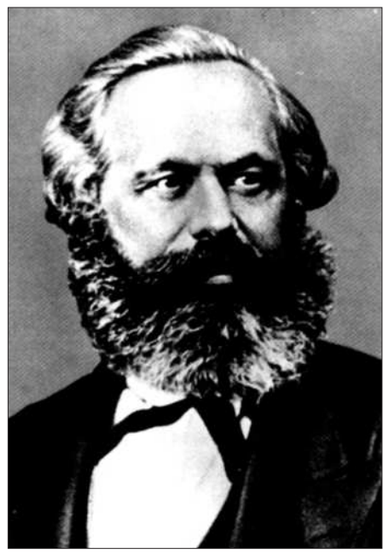
이기심에 기초한 무한 경쟁 아닌
육바라밀 수행, 공존 경쟁 해야

같이 마음을 비우는 행위는 관념적인 것이 아닌 복과 지혜의 양변을 동시에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금강경의 32품 전부를 통해 강조되고 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불교는 초기 불교 때부터도 인류의 3대 종교 중에서 경제문제에 관해 가장 많은 내용을 설한 종교로, 경제 윤리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많다. 재물에 집착하고 재물 때문에 타락하는 점을 경계하였을 뿐이지, 재물을 공덕의 증거로 보았다.

근대사회의 경제철학을 대표하는 두 사람을 뽑는다면 '국부론' 의 저자인 아담 스미스와 국부론에 제시된 자본주의 단점을 분석한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아담스미스는 이상적인 형태로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세 가지 중요한 질서를 요약하고 있다(박순성, 1992, 230p). 첫째 한 사회의 소득은 모든 사회적 생산물의 교환가치, 즉 임금, 이윤, 지대라는 세 가지 본원적 소득의 합과 일치한다. 둘째 개인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행동한다. 이것은 합리적 경제행위라고 부를 수 있다. 셋째 이러한 개인의 사적 이익의 추구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해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한다. 그리고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일을 해서 임금을 받는 것이고, 둘째는 땅을 빌려주고 지대를 받는 것이고, 셋째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라 말한다. 이러한 형태의 경제 활동은 초기불교 경전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재가 신도들에게 권장되었으니 불교적 관점에서 본 경제 철학은 자본주의에 뿌리를 두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국부론〉의 저자인 아담 스미스와 국부론에 제시된 자본주의 단점을 분석한 〈자본론〉을 쓴 칼 마르크스 두 사람이 원했던 것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었다.

반면 마르크스는 '자본론' 에서 "왜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가난할까?", "자본주의는 정말 이상적인 형태일까?"라는 새로운 의문을 던진 사람이었다. 마르크스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기계부품처럼 일하면서도 비참하게 사는 현실을 보면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파괴시키는지 밝혀내고 싶었다.

두 이론은 권력의 야망을 성취하려는 정치가들에 의해 변질되었지만 그들 모두 원했던 것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며 집필했던 것이다.

정천구 박사는 〈금강경 공부하기〉의 제8품 의법출생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 손이 모르게 하라' 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머무름 없는 보시의 물질적 공덕을 인정하셨고 아울러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다 보시했다 해도 성리를 밝게 해주는 금강경의 한 게송이라도 일러주는 공덕이 물질의 공덕보다 더 크다고 하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아담 스미스가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개인의 능력과 창의를 최대한 발휘하여 인류의 행복을 추구했던 정신과 그 결과로 인한 빈부의 격차, 독점기업의 탄생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불행을 가져온다는 모순점을 지적했던 마르크스의 정신을 다 아우르는 연기(緣起)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연기적(緣起的) 경제관계는 자신(자신의 기업)을 다른 사람(거래처)과 구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연기적 관점에서 소비자는 기업과 밀접한 관계위해' 내가 누구를 위해 일을 한다는 생각을 비우며 그저 열심히 노력한다. 연기적 관점에서 경쟁은 이기심에 기초한 무한 경쟁이 아니라 육바라밀을 실천하기 위한 무아(無我)적 경쟁이며, 공존적 경쟁이다. 그러나 내가 육바라밀을 실천한다는 생각도 비운다. 그건 다 보살이 저 니르바나의 세계로 가기 위한 뗏목에 불과하므로.

5. 맺는 말

붓다께서는 초기 불교승단의 출가자들에게는 철저한 무소유에 의한 금욕 생활을 권하셨지만 재가 신도들을 위해서는 근대 자본주의에 필적할 만한 경제 행위를 권장하셨다. 대승의 일어남은 말 그대로 모두를 위한 큰 수레이고 그 수레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여러 요소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경제행위와 관련된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무한 경제적 성취의 실현도 가능하다는 점을 이상과 같이 고찰하였다. 특히 무착, 세친 보살의 유식론에 입각하여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아뢰야식의 업식을 정화하는 단계가 불교적 수행이라고 한다면 그 수행의 기초는 바로 금강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수지해서 실행하는 것이며 여기 반드시 뒤따르는 실천적 덕목이 보시, 인욕, 지계,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인 것이다. 이 육바라밀의 실천은 막스 베버가 그의 저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에서 주장한 프로테스탄트의 윤리관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종교개혁으로 등장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는 근검절약하며 성실하게 일할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웠고 이는 자본을 낭비하지 않고 축적하거나 재투자를 해야 하는 자본가의 윤리와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또한 구교에서 속된 행위로 여겨졌던 상업의 종사가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구원을 향한 행위로 자본가가 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불교는 오히려 우리의 기존 관념과는 달리 매우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자본주의에 입각한 경제 철학을 갖고 있는 것이다.

금강경 내용의 핵심을 표현한 사구게를 경제 원리로 풀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應無所住 而生其心
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1.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 집착을 버려라.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보여질 뿐 실체가 없으니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경제의 원리를 깨칠 것이다

2. 應無所住 而生其心 – 무위로써 하라
대상에 대한 선입견을 비우고 또 비워서
일의 판단을 하라

3. 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 – 그릇된 경제행위의 주범은
몸뚱이착이다
무슨 일을 하건 제 소견을 고집한다면
반드시 일을 그르치리라

4.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 내가 이룬 모든 것을 회향하라
이처럼 하여 크게 성공했더라도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였을 뿐
영원한 것 아니니 부처님께 회향하라.

이 원고는 본각선교원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미리 간추려 소개한 것입니다. 본각선교원 (02)762-4848

무주상 보시한 불자님,

강원도 동해안 조그마한 암자 향운암은 약사기도 도량으로 불자님의 심신의 건강과 기도 정진의 귀의처였으나 진입 통행로의 임야를 경기도의 어느 재력가가 2억 미만에 매입하여 약 8억 원에 매입을 하라고 해서 너무 고액이라서 매입치 못한다고 하니 진입 통행로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고 **철조망으로 폐쇄**하여 출입이 불가능 하였으나 매월 일정금액을 지금까지 무주상 보시한 불자님들의 간곡한 성원으로 법원 승소 판결 및 산주의 협조로 진입로 소통 및 일부 포장까지 하였습니다. 무주상 시주한 불자님의 연락을 꼭 바랍옵고 항상 불은이 함께 하시길 부처님전에 기원합니다.

향운암 대웅전이 퇴락하여 대웅전
중창 불사를 발원 합니다.

향운암에 원기둥 10개 대들보 2개가
있으면 중창 할 수 있습니다.

이 불사가 원만히 회향 할 수 있게
불자님들의 동참을 발원합니다.

심신의 건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동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약사기도 도량 약수가 있고 약쑥 뜸 식이요법 및 요양으로 건강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부담 없이 상담 및 방문 바랍니다.**

여생을 절에서 생활 하실 분1인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양주 구함. 노보살님(불심 있는 분)

연락처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496-4
향운암 주지 무진
☏ 033) 532-1773. 010-2873-2888

삼 보 양 초

삼보양초의 장점

1) 심지가 견고하며, 최고급의 파라핀으로 제작되며 그을음이 적으며 오래 탑니다.
2) 냄새는 맑고 향기로우며, 촛물이 깨끗하고 투명하다. (최상품의 삼보향초)
3) 신상품 금초는 모양이 아름답고 불빛이 찬란합니다.

삼보양초의 종류

1) 원기둥 홈초 (대) 1박스 20개 9만원
2) 돈타레 홈 (중대) 1박스 40개 9만원
3) 밀대 1박스 50개 7만 5천원
4) 등신불 (소) 1박스 40개..... 9만원
5) 신상품 금초 1박스 40개.....11만원

▣ 삼보양초는 종도사찰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종단차원에서 공급하여
▣ 품질은 우수하게, 가격은 저렴하게, 주문은 편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불교용품상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택배비 포함)
▣ 전화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주 문 전 화 : 010-9421-0772
010-5789-6630
사업부계좌 : 농협 301-0121-9593-41 소원사
(사)대한불교삼보종 소원사

호법봉사단원 모집

삼보에 귀의하옵고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여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 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 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 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며 언제나 법향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대일불교조계종
호 법 봉 사 단
선원장 **구룡** 합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건 장 사 (建將寺)
누워서 허리뜸 · 배에는 단전뜸 · 앉아서 좌훈뜸 · 편안히 무릎뜸
악성피부 · 아토피 · 버거씨병 · 파킨스병 · 통풍 · 관절 · 무좀
고통 · 통증 · 허리디스크 · 협착증 · 건선 · 수족냉증 · 비염
황토 · 상황 · 훈증 · 좌훈 · 쑥뜸 · 침대 (특허번호 제 10-2011-011722호)
대구 수성구 두산동 82번지 건장사(스님은 무보시 치료)
011-573-4438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영남범패학인 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3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아 래

〈진주교육원〉
* 입교일시 : **2014년 1월 13일 〈월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 수 강 일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 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① 상용의식 및 재의식
② 사물 다루는 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문의전화 : ☎ 055)747-8419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검색해 보세요.

영남범패불음원장 원명 합장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조용히 앉아 있어도 비난한다.
말을 많이 해도 비난한다. 말을 조금해도 비난한다.
이것은 옛날부터 그래왔다.
이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 직접상담
1.역학 : 사주, 궁합, 택일, 성명학
2.최면, 전생요법, 귀신들린빙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 전생, 우울, 공포증, 상담
011-772-4606
02)588-4606
비룡정사 제행스님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대웅전 불사 원만 성취 발원
영남소리,사물,바라,작법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최 면
전생 • 미래
빙의 • 퇴마
• 심리치료, 습관교정, 성격개조 (개인지도 및 직접 상담)
• 최면요법 전과정 7회 완성
1회 무료강의 후 상담접수
• 역학(정통명리) 개인지도
(부산 현불사 최면센터)
010-9342-9794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역학 · 빙의퇴마
지장기도를 통해 그 자리에서 영가천도
환자의 몸속에 숨어있는 빙의령 확인
빙의,우울증,신병,대인기피,암,원인불명,
질환,악성피부질환,아토피,인생상담
지장보살님의 빛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낀다
스님,보살님,법사,일반인 치유 및 제자양성
인체전기파동의학원
010-9242-5259

백발백중 귀장술
초보자 환영
쉽게보는 원판제공
다음. 네이버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아주 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 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
천도재,사십구재,점안식,
용왕제,산신제,
시다림,구병시식
010-7264-8474

바라무, 화청 및 회심곡 강의
● 장 소 : 부산, 서울
● 시 간 : 3시간
● 수강료 : 3만원(1회)
(민재스님 직강)
010-7601-6937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단체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강좌, 불교문화활동,
불교문화 수련사업 하실분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자비 미륵암 (청학동)
미륵암 자비도량에서
삼신봉의 원력과 氣를 온 육신으로
받으시고 참선기도 하십시오.
(1일 만원)
미륵암에서 함께 수행하며
지내실 분 모십니다
011-759-0183
055)883-7385

법당화주 겸 종무보살 모십니다
– 불심이 돈독한 법당 일천불 분양 권선할 유능한 화주보살을 모십니다
– 불심으로 귀의할 줄가 여행자 모집합니다.
꼭 필요한 분만 전화주세요
(부산 금정구 소재 사찰)
010-6390-1899

비구니스님과 형제처럼 마음공부하며 평생 함께 하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6656-8117

인로왕보살은 스님들입니다
춤으로 인도 하십시오
승무 · 관음춤 · 지전춤 · 살풀이 · 오행춤
반야용선춤 · 길배춤 외 기타 의식춤
스님 직강
010-8510-0108 보성 합장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특수한 비법
●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초중생 한문학당
1차 : 12월 30일 ~1월 4일
2차 : 1월 6일 ~ 1월 11일
새로운 나를 발견하자
안면암 홈페이지 템플스테이
'일정안내란' 참조
대한불교조계종 안면암
041)673-2333
010-9407-0108

범음범패 학인모집
초급과정 : 사물(목탁,요령,태징,법고) 다루는 법
사시예불, 도량석, 쇳송, 각단예불,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 천도재,49재,점안식,예수재,수륙재 등
작법과정 : 바라무(요잡바라,천수바라), 나비무
수시모집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연락처 : 010-8612-6914 (총무스님)
각종 법회 행사 모셔드림(상담문의)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대승불교염불원

젊은 비구승
스님 안계신 빈 절이나
작은사찰, 암자
전세 및 구입 원합니다
(경상도 지역)
010-7726-235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심니다
(대구 수성구 포교당)
010-5367-134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영가 찾는법 강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운영자 등)
○ 강의내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스님을 모십니다
요양원에서 이생을 마무리 하고자 하시는 요양이 필요한 스님을 모십니다
파주 약수암스님이 운영하는 거북마을노인요양원에서 스님의 가족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010-9067-4801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11-774-4099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화요일 저녁반, 목 · 금요일 오전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힘" 책과 기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노후를 절에서 사실 분
1인 1실. 신축건물 청정지역
5천만원 시주하시면 평생 생활비 없이 지낼 수 있음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다음카페 "연꽃마을 복지관" 검색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914번지
054) 383-8553 / 010-8585-4908
〈혜봉스님 직통〉

의를 알고 자비를 이해사시는 분과 수행하고 싶습니다
(토굴 준비하였습니다)
010-6607-5308

부전소임을 원합니다
010-2991-1147

보 시
꿈과 노력이 있으면 성취할 수 있다지만
방법을 알고 있다면 더더욱 쉽게
성취 할 수 있겠지요.
부처님의 진리를 담은 전심법해
삶의 방식과 지혜로 부자되는 방법
참회하고 노력하여 부자되는 방법
언행일치로 참 행복 얻는 방법



4가지 책을 원하시면 전남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설산 사자봉 사자암 송암스님
010-8224-1688 전화문의하세요.
책 발송을 원하시면 1만원 입금하시고
농협 : 351-0515-8213-93 예금주 : 사자암
책 받으실 법우님 주소를 문자 주세요.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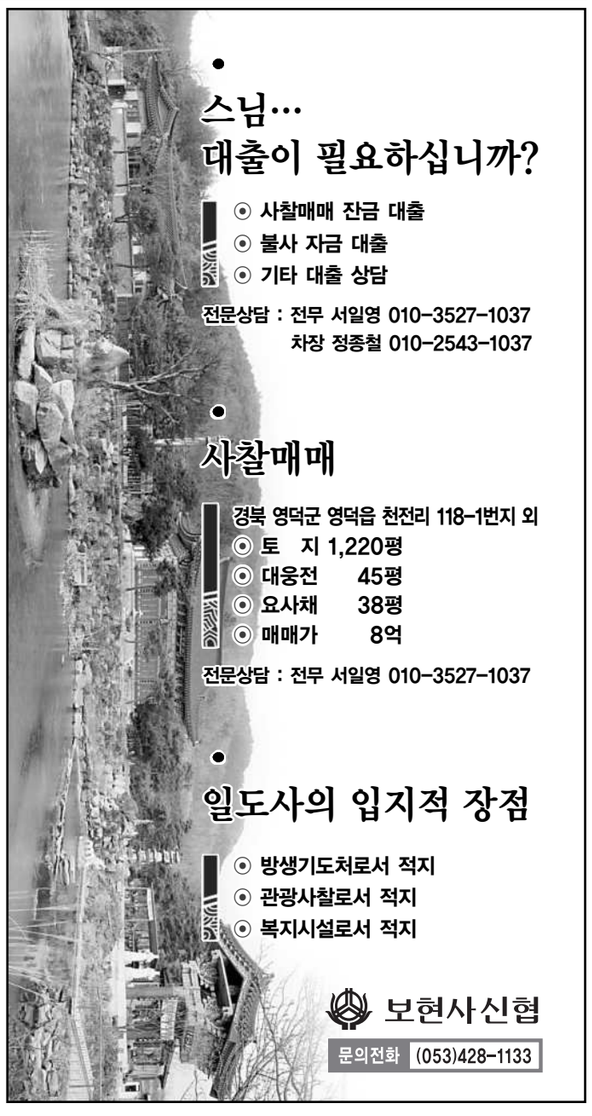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설법·화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교육내용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회의진행법 등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일시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종합반"
◆ 장소 : 서울 종로 3가 16 고영빌딩 '국민은행 7층'
◆ 지도 : 40년의 경륜을 지닌 인성교육 스피치 임상 심리에 전문가인 설법 연수원의 "又佛 김철회 원장"이 총괄 지도함.
※ 한국 설법연수원장 김철회 박사는 현재
사)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이사장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으로서
최면치료 지도사이기도 함.
◆ 문의 : 010-7248-1567 / 02)747-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시 종로 3가 16 고영빌딩 국민은행 7층
1. 3. 5호선 종로 3가역 1번, 2번 출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 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접수일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02)2004-8215
▷ 가 격 : 1회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이 세상에는 섬기고 공경할 만한 일곱 종류의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연민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남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남을 보호하고 감싸는 마음을 가진 사람,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비운 사람, 부질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 법구경 -

삼 보 사 찰 안 내

상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부산
- 법당 : 25
- 요사 : 35*2동
- 총부지 10,000
- 대지 650평
- 가액: 12억

- 위치 : 의령
- 대지 : 목조25
- 법당 : 30방4개
- 대지 : 200
- 가액 : 4억

- 위치 : 포항시내
- 대지 : 55평
- 법당 : 25평
- 요사 : 방2개
- 가액 : 1억 3천

※서울 경기 경남 부근 매도사찰 급히 구합니다.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전화 환영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함양 사찰
- 목조법당54㎡ 요사채85㎡
- 토지 10.00㎡
- 수십년된사찰임
- 마을부근 위치좋음
- 양도금액2억5천만원

010-7347-1010(사찰전문)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대출 1억 가능
- 가액: 2억 7천만원

010-8725-319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 중심부
- 대지 2013㎡
- 법당. 요사채 : 약 100평
- 후원, 창고 약 15평
- 주차공간 넓고, 경관 수려함
- 가액 : 답사 후 결정
- 직거래-부동산 사절

010-7582-0098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 3층 중 2층
- 약 60평
- 위치,시설, 환경 특 A급 (넓은 법당, 넓은 공양간, 방3, 샤워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2700만원(조절불가)

010-5667-0577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산사
- 대지 : 10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60평
- 가액 : 9억4천

- 위치 : 수도권
- 부지 : 4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외 2채
- 가액 : 19억8천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사찰 (급) 안내

아름다운 토굴 안내

- 총부지 970평 (칠보 삼존불 봉안)
- 법당 및 요사채, 산신각, 용왕각, 독성각
- 50년역사와 정원수 다량, 나비형 큰호수
- 양도가액 : 1억 8천만원

양산(급)사찰

- 위치: 양산 신도시 10분거리
- 대지: 1350평
- 법당: 33평 산신각 및 용왕각 기타등등
- 버스주차장, 산세수려, 계곡물 철철
- 은행 안고 3억인수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 주소 http://cafe.daum.net/temple0
직통 011-560-8522, 051-863-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 칠보산 아래
- 산세 수려한 사찰
- 대지 324평, 인법당(40평), 창고(40평), 산신각
- 가액: 1억 5천만원(절충가능)
- 건강상 급 안내

010-2008-0377

사찰(급)안내

- 위치: 서울 상계동에서 15분
- (별내신도시인근,주차장있음)
- 대500평, 건 147평(3개동)
- 2011년 재건축, 경관좋음
- 양도가격 : 17억 (융자 6억포함)

010-4299-5388 삼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 (북영천 IC 5분거리)
- 평수 : 2천평, 2차선 접 관광버스 진입
- 시설: 법당, 요사채, 공양실, 주지실, 조경탑, 연못, 기도실(펜션형)
- 가액: 3억 + 융자
- 동양 최고의 명당절터로 최고의 기도터

054)334-444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소재(남김천 대로변 김천역에서 차편 약 20분)
- 건물 : 기와형 32평, 개인등기 법정보장
- 대지 : 도지료 연 35만원
- 내용 :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교통 좋은 요지 남향 법당 넓고, 현대식 시설, 생활 편리함
- 가액 : 6천 5백만원(시설비 포함)

010-7295-1259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구포동
- 평수: 대지 47평, 3층 슬라브
- 3층법당 1, 2층 요사채
- 삼존불, 신중, 산신, 칠성탱화, 소불
- 가액: 1억 7천 5백만원 (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010-3426-9393(사찰전문)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신암 2동 강남약국 건너편
- 3층 4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2878-33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제주시 삼도 일동
- 지하 100평
- 관음, 지장, 소불 200불
- 보증금 500만원, 1년세 30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0-2464-4579

절하면 좋은 건물

- 위치 : 경남 양산
- 천혜의 자연경관 계곡접
- 부지 1120평
- 건물 200평
- 요양원, 연수원 가능
- 가액: 12억

010-8676-227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재래시장 앞 버스정류장
- 2층 25평. 공양간 방1
- 3층 25평, 법당(삼존불),방1,
- 옥상, 옥탑방1
- 가액 : 보증금 1천원, 월 40만원
- 시설비 2300만원

010-7139-5566

별장같은 아늑한 포교원

- 위치 : 거제시 최요지
- 거제시 양정동 936-96번지
- 아파트밀집지역 등산로 입구
- 대지 약 270평 건물 약 40평
- 1층 법당, 공양간, 방2, 욕실2
- 2층 방1, 주차장 약 30대
- 전세 8000만원 월세 없음
- 시설비 1000만원
- 모든 비품 있으니 즉시 입주 가능

010-6393-5352

사 찰 안 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사 찰 안 내

- 종단사찰, 복지원, 요양원, 장례 결혼식장 가능
- 교통조건 매우 좋음
- 20억의 50 프로 확보된 분
- 년 후불도 가능

010-4880-7890

청 평 한 옥

- 대지 199평
- 건평 30평
- 방3, 욕실2, 거실, 주방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가액: 2억7 천 5백만원

010-9411-5302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구포시장 신협 옆
- 평수 75평
- 2층건물 중 2층 독채, 시설완벽
- 삼존불, 지장전, 신중전, 삼성전
- 소불 108불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85만원
- (주차장 운영수입 45만 발생)
- 시설비 3500만원

010-7601-6937

사찰(급)안내

- 위치 : 양산 사찰 최고자리
- 대지 1400
- 법당 목조건물기와 약 40평
- 건물 3동
- 버스주차완비
- 은행5억안고 5억 인수

010-3808-4499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신림동 3층건물중 2층
- 석가모니, 관음, 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봉안 지장보살 원불 297분
- 법당외 방1, 주방1, 화장실
- 약 30평 도심속의 포교 최적지
- 보증금 2000만원 시설비 3500만원 / 월 77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가능)
- 20년 포교, 꼭 맡아서 포교하실 스님만 연락주세요

011-309-3535

별 장 같 은 토 굴 안 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종교용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가액: 8억 8천만원

직)010-3858-8335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사진 열람) ※ 주소 http://cafe.daum.net/temple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 본사 소임관계로 급 안내
- 평수 : 약 9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방2, 종무소1, 서재1, 공양간1
- 즉시 법회 가능

010-8606-791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남산역 1번 출구 3분 거리
- 4층 건물 중 2층, 50평
- 조용함, 정남향
- 최고급 새 시설, 법당, 거실, 방3개, 냉난방완벽, 필름난방
- 보증금 1500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4000

010-9317-91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마산 3층 건물에 3층 (160평)
- 포교원 10년 한 자리
- 삼존불,후불탱화,법당, 종무소, 방4,
- 화장실(실내1, 실외2)법당과 모든 방에는 난방필름 되어 있음
- 시설완비,불사소임관계 부득이 양도
- 옥상사용 주차장완비 일체민원없고 조용함
- 보증금 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협의
- 바로법회가능

055)221-5182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송파구 문정역 약 3분거리
- 5분내로 고속도로 진입 가능
- 4층건물 중 2층, 45평, 방3, 베란다에 주방
- 에어컨 2대. 포교, 철학, 최적지(주차장)
- (보)이천만원 : 120만원
- 시설은 보시고 이사비용 정도
- 언제든 법회가능

02)762-0108
031)541-010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강원도 속초시
- 평수 90평
- 3층, 방3개, 친견실1, 시설완벽
- 삼존불, 아미타, 관음, 지장, 대세지(새로 조성)
- 전세금 2천만원 월세 無 시설비 3천만원
- 스님 사정상 급 양도함

010-3750-5424

하늘내린강원도 청청명당사원

- 위치 : 배산임수, 사계절계곡, 정원조성
- 도로접, 총부지 3100평, 대지 200평
- 주택 43평, 연못 100평, 하천 1500평별도
- 동호회펜션 600평 허가. 춘천역에서 15 분
- 양도가액: 7억 (융자 4억 8천 포함)

학산 010-2762-8235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 문산 혁시도시 인근
- 총평수 400평 (전 300, 대 100)
- 건물, 슬라브 벽돌 요사채 (방5개) 법당 (어법히 잘 모셔져 있음) 15평 산신각 3평
- 가액: 1억 9천만원 (대출금 6천) 1억 3천 양도
- 주지 소임 관계로 급히 양도함

010-3563-010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가흥2동 472번지 금명사
- 법당, 산신각, 방2개, 욕실, 주방
- 월세 1년에 200만원 (가격조절가능)
- 전세도 가능요

011-9370-7513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 삼존불, 방2, 주방시설완비,
- 텃밭 있습니다.
- 몸만 오시면 됩니다. 즉시법회가능
- 집세 1년 백만원
- 시설비 900만원, 약간 절충할수 있습니다
- 건강상 급 양도 하오니 꼭 필요한 분만 연락주세요

010-4582-247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봉덕동 (봉덕시장 맞은편)
- 앞마당 있는 아름다운 한옥
- 법당 60평
- 방4개(공양간,상담실 등)
- 보증금300만원 월40만원

011-9675-7766
010-6357-8751

신축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임실군 국립 회문산 천마봉 옥정호 섬진강 IC 입구
- 2012년 신축 한옥 법당 2동 (토지매입 3억, 건축비 2억 5천만원)
- 호남 8대 명당터, 전+토지 3천여평
- 전세 3천만원 5년 장기 임대 가능
- 종교시설완비, 부처님 3분 모셔져있음
- 추가법당 불사비 협의 인정해 드림

010-9647-0723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박 경 수	010-9819-83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의식 혁명

데이비드 호킨스 (미국 정신의학자)

〈2〉 의식의 스펙트럼

기쁨으로 가는 열쇠…전 생명에게 무조건 친절해야

의식 지도

이 연구의 목표 중 하나는 인간 연구의 미답의 영역이 갖는 범위와 그 일반 지형을 묘사할 수 있도록, 의식의 에너지 장에 관한 실용적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다. 독자들이 그 지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에너지 장에 관해 나온 수적(數的) 지시를 반올림해서 상대적 수치로 만들었다.

의식 지도를 볼 때, 측정 수준은 의식의 특정 과정, 즉 감정, 지각, 태도, 세계관, 영적 신념과 상관있다는 것이 분명해지게 된다. 지면이 허락한다면 도표를 인간 행동의 전 분야를 망라하도록 확대할 수 있다. 시종여일하게, 연구 결과들은 서로가 서로를 뒷받침했다. 조사가 자세하고 광범위할수록 상호 뒷받침은 더욱 커졌다. 의식 척도에서 임계적 반응점은 200 수준으로 측정되는데, 그것은 온전성 및 용기와 결합된 수준이다. 그 수준 이하의 모든 태도, 생각, 느낌, 단체, 실체, 역사적 인물은 사람을 약하게 한다. 그 이상으로 측정되는 것은 피험자를 강하게 한다.

200 이하의 수준들에서는 개인의 생존이 일차적 추진력이지만, 희망 없음과 우울의 지대인 의식 척도 맨 밑바닥에는 그러한 동기조차 결핍돼 있다. 두려움과 분노라는 보다 높은 수준들은 개인의 생존 욕구에서 일어나는 에고 중심적 충동을 특징으로 한다. 자부심의 수준에서는 생존 동기가 타인의 생존 또한 포섭할 만큼 확장될 수 있다. 사람이 부정적 영향력과 긍정적 영향력 사이의 분계선을 넘어 용기로 진입하면서 타인의 안녕이 점점 더 중요해지게 된다. 500 수준까지는 타인의 행복이 본질적 동기부여 요인으로 출현한다. 500대 후반의 특징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한 영적 앎에 대한 관심이고, 600대는 인류 이익과 깨달음의 추구가 일차적 목표다. 700에서 1000까지 삶은 전 인류의 구원에 봉헌된다.

이 도식에 대한 앎의 인식론적 효과는 미묘하지만 널리 미칠 수 있다. 여기서 발견된 것들이 갖는 함의는 스포츠, 의학, 정신의학, 심리학, 인간관계, 일반적 행복 추구에 실용적으로 적용된다. 예컨대, 의식 지도를 성찰하면 인과에 대한 이해가 변형될 수 있다. 지각(知覺) 자체가 사람의 의식 수준과 함께 진화함에 따라, 세상이 원인의 영역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결과의 영역임이 자명해지게 된다. 자신의 지각의 귀결에 책임짐으로서, 관찰자는 피해자 역할을 초월해 '저 밖의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하는 힘을 갖지 못한다.' 는 이해에 이를 수 있다. 인생사가 삶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지 부정적 효과를 갖는지 여부, 그것이 기회로 경험되는지 아니면 스트레스로 경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인생사 자체가 아니다. 그러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인생사에 반응하는 방식과 그것에 대한 태도이다.

심리적 스트레스는 사람이 저항하고 있는 어떤 조건의 총 결과다. 그러나 그 조건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 없다. 아무것도 스트레스를 '창조' 하는 힘을 갖지 못한다. 이 사람에게는 혈압을 높이는 시끄러운 음악이 저 사람에게는 즐거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원치 않은 이혼은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원하는 것일 때 그것은 자유를 가져다주는 해방이 될 수 있다.

의식 지도는 또한 역사 진보에 새로운 빛을 던져준다. 위력(force)과 참된 힘(power)의 구별은 이 연구의 목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인도의 영국 식민주의 말기 같은 역사적 시기를 조사할 수 있다. 그 당시 자기이익과 착취에 속해 있던 대영제국의 위치를 측정하면 의식 척도 상에서 200이라는 임계 수준 훨씬 이하로 나오는걸 보게 된다. 마하트마 간디(700으로 측정되는)의 동기는 인간 의식의 정상(正常) 범위에서 거의 정상(頂上)에 가까웠다. 간디가 그 투쟁에서 이긴 것은 그의 위치가 훨씬 더 큰 힘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영제국은 위력을 나타냈는데(175로 측정), 위력은 힘과 맞닥뜨릴 때 백이면 백 결국 궤멸된다.

우리는 사회가 전 역사에서 입법 행위, 전쟁, 시장 조작, 법률, 금지령 등 위력의 모든 현시를 통해 사회 문제를 '처리' 하려고 했다는 것과, 그런 요법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지속되거나 재발됐을 뿐이었다는 걸 관찰할 수도 있다. 비록 위력의 위치에서 일어난 정부(또는 개인)들은 근시안일 수도 있지만, 예민한 관찰자의 눈에는 사회적 갈등상태는 저변의 기원이 노출되고 '치유' 되기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이 결국 명백해지게 된다.

치료와 치유의 차이는, 전자는 맥락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후자는 임상적 반응이 맥락의 변화를 통해 유도된다는 것이다. 맥락의 변화는 단순히 증상에서 회복되기보다는 그 상태를 일으킨 원인이 절대적으로 제거되게 해 준다. 고혈압에 항고혈압제를 처방하는 것과, 환자가 더 이상 화내고 억압하지 않도록 그의 삶의 맥락을 확장시키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 의식 지도를 성찰하는 데서 비롯되는 공감이 기쁨에 이르는 길을 더욱 단축시켜 주기를 바란다. 기쁨으로 가는 열쇠는 자신의 생명을 포함하는 전 생명에 대한 무조건적 친절이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연민이라고 한다. 연민 없이는 인간 노력에서 그 어떤 유의미한 것은 거의 성취되지 않는다. 우리는 개인의 치료에서 더욱 큰 사회적 맥락으로 일반화시킬 수도 있는데, 더욱 큰 맥락에서 환자는 자신과 타인 모두를 향한 연민의 힘을 불러일으키기 전까지는 진실로 낫거나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없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연민을 갖게 된 지점에서, 치유된 이는 치유하는 이가 될 수도 있다.

인간 의식의 수준들

인간 의식의 다양한 수준들이 그 자체를 표현하는 방식은 심원하고도 광범위하다. 그리고 그 효과는 굵직하고도 미묘하다. 200 이하의 모든 수준은 개인과 사회 전반에 걸쳐 생명에 파괴적이고, 200 이상의 모든 수준은 힘의 건설적 표현들이다. 200이라는 결정적 수준은 위력과 힘의 일반 영역을 가르는 지레받침이다.

△에너지 수준 20 '수치심'; 수치심의 수준은 위험하리만큼 죽음에 가깝다. 죽음은 수치심으로 인해 의식적 자살로서 선택될 수도 있고, 혹은 삶을 연장하기 위한 조처의 불이행으로 보다 미묘하게 결정될 수도 있다. 수치심은 성격의 전 수준을 끌어내리기 때문이 다른 부정적 감정에 대한 취약성으로 귀결되며, 따라서 그릇된 자부심과 분노, 죄책감을 흔하게 일으킨다.

△에너지 수준 30 '죄책감': 조종하고 처벌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그토록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죄책감은 후회, 자책, 피학성애, 피해자역의 그 모든 증상 같은 각양각색의 표현으로 그 자체를 나타낸다. 무의식적 죄책감은 심인성 질환, 사고 경향성, 자살 행동으로 귀결된다.

△에너지 수준 75 '슬픔': 우리들 대부분은 일정 기간 슬픔을 경험하지만,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들은 지속적 후회와 우울의 삶을 산다. 이것은 습관적 패배자들의 수준이며, 실패를 자신의 생활양식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상습적 노름꾼들의 수준이다. 그런 삶은 돈과 건강의 상실은 물론이고 직업, 친구, 가족, 기회의 상실로 귀결된다.

△에너지 수준 125 '욕망': 이 수준에는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한층 더 많다. 욕망은 경제를 포함하는 인간 활동의 방대한 분야에 동기를 부여한다. 돈과 명망 혹은 권력에 대한 욕망은 삶의 유력한 동인으로서의 두려움(에너지 수준 100)을 넘어선 많은 이들의 삶을 지배한다. 명백히 욕망은 무감정이나 슬픔보다는 훨씬 높은 상태다.

△에너지 수준 150 '분노': 비록 분노는 살인과 전쟁으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에너지 수준으로서의 분노는 그 밑에 있는 것들에 비해 죽음에서 훨씬 멀어져 있다. 분노는 건설적 행위에도 혹은 파괴적 행위에도 이를 수 있다. 분노는 좌절된 욕구에서 비롯되므로, 분노의 바탕에는 그 밑의 욕망의 에너지 장이 있다. 분노는 쉽게 증오에 이르는데, 증오는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 수준 175 '자부심': 자부심은 오늘날 인류 대부분이 동경하는 수준이다. 사람들은 그 밑의 에너지 장들과는 대조적으로 이 수준에 도달할 때 긍정적으로 느낀다. 그런 자존감 상승은 낮은 의식 수준들에서 경험되는 모든 고통에 대한 진통제다. 문제는, 모두가 알다시피 "자부심에는 멸망이 따른다."는 것이다. 자부심은 방어적이고 상처받기 쉬운데, 왜냐하면 자부심은 외적 조건에 의존하고 있어서 그러한 조건 없이는 더 낮은 수준으로 갑자기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팽창된 에고는 공격받기 쉽다.

△에너지 수준 200 '용기': 200 수준에서 처음으로 힘이 나타난다. 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만큼의 에너지를 세상에 돌려준다. 낮은 수준에서는 개인은 물론이고 집단은 보답하지 않으며 사회로부터 에너지를 빨아들이기만 한다. 성취는 긍정적 피드백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자기보상과 자존감은 점차 강화된다. 이곳이 생산성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인류 의식의 집단적 수준은 여러 세기 동안 190에 머물러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지난 10년간 현재 수준 207로 뛰어올랐다.

△에너지 수준 250 '중립성': 우리가 중립으로 명명한 수준에 이를 때 에너지는 매우 긍정적으로 된다. 고정된 위치를 갖는 것은 극성(極性)을 창조하고 극성은 차례로 대립과 분할을 창조한다. 무술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정된 위치는 허점이 된다. 휘어지지 않는 것은 부러지기 쉽다. 사람의 에너지를 흡어 놓는 장벽이나 대립을 넘어서면서, 중립 상태는 유연성을 그리고 문제에 대한 비분별적이고 현실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해 준다. 중립적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결과에 집착하지 않음을 뜻한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더 이상은 패배, 끔찍한 일, 혹은 좌절을 안겨 주는 것으로 경험되지 않는다. 중립 수준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글쎄, 이 일을 못잡으면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뭐." 그것은 내적 자신감의 시작이다. 자신의 힘을 느낄 때, 사람은 쉽사리 겁먹지 않으며 뭔가를 증명하려는 충동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에너지 수준 310 '자발성': 예를 들면 중립 수준에 있는 이들은 일을 적당히 하지만, 자발성 수준에 있는 이들은 일을 잘하고 또 모든 노력에서 성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수준에서 사람들은 진정으로 우호적이 되고, 사회 · 경제적 성공이 자동적으로 뒤따르는 듯하다. 그들은 서비스직에 종사한다거나 '밑바닥' 에서 시작한다고 해서 품위가 떨어진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남을 도우며 사회에 기여한다. 그들은 자부심을 놓았으므로 기꺼이 자신의 결함을 보고 타인으로부터 배우고자 한다.

△에너지 수준 350 '수용': 수용 수준에 있는 개인은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데 관심이 없는 대신, 쟁점 해결에 전념하고 문제 처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내는 데 전념한다. 힘든 일이 불편함이나 낙담을 불러일으키진 않는다.

△에너지 수준 500 '사랑': 무조건적이고, 변치 않으며, 영속적인 한 사랑의 발달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한 사랑은 동요하지 않는데, 그것은 그 근원이 외적 요소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은 위치를 점하지 않으며 분리를 넘어서 전역적(全域的)이다.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어떤 장벽도 없기 때문에 '다른 것과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사랑은 포용하며 점진적으로 자기감(自己感)을 확장시킨다.

△에너지 수준 600 '평화': 이 에너지 장은 초월, 참나 각성, 신 의식 같은 용어가 지시하는 겨험과 관련된다. 이것은 지극히 드물어서, 천만 명 중 단 한명이 거기에 도달한다. 이 상태에 이를 때 주체와 객체 간의 구별은 사라지고, 지각에는 특정한 초점이 없다. 600과 그 이상의 수준에서는 지각은 슬로모션으로 일어나고 시간적 공간적으로 멎어 있다는 보고가 이따금씩 흘러나온다. 아무것도 죽어 있지 않으며, 전부가 살아 있고 광채를 발한다. 600에서 700사이로 측정되는 미술, 음악, 건축물의 걸작품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의식의 높은 수준으로 데려갈 수 있다.

△ 에너지 수준 700~1000 '깨달음': 이것은 역사 속의 위대한 이들의 수준이다. 이들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전 시대를 통해 뒤따른 영적 패턴의 기원이 됐다. 이 수준에는 타인과 분리된 개별적인 사적 자기의 경험은 더 이상 없고, 오히려 참나는 의식(consciousness) 및 신성(Divinity)과 동일시한다. 나타나지 않은 것(Unmanifest)은 마음 너머에 있는 참나로 경험된다. 에고의 이러한 초월은 그런 상태가 결국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지를 타인에게 가르치는 사례로도 기여한다. 이것은 인간계에서 의식 진화의 정점이다. 1000의 수준에 도달한 이들은 크리슈나, 붓다, 예수 그리스도 들이다.

의식 지도

신에 대한 관점	자기에 대한 관점	수준	로그	감정	과정
참나	있음	깨달음	700~1000	형언할 수 없는	순수 의식
전존재	완벽한	평화	600	지복	빛비춤
하나	완전한	기쁨	540	평온	변모
사랑하는	온건한	사랑	500	경외	드러남
현명한	의미 있는	이성	400	이해	추상
너그러운	조화로운	수용	350	용서	초월
영감을 주는	희망적인	자발성	310	낙관주의	의도
할 수 있게 해주는	만족스러운	중립	250	신뢰	풀려남
허락하는	실행할 수 있는	용기 ↑	200	긍정	힘의 부여
무관심한	요구가 많은	자부심 ↓	175	경멸	팽창
복수심을 품은	적대하는	분노	150	미움	공격
부정하는	실망스러운	욕망	125	갈망	노예화
벌하는	겁나는	두려움	100	불안	위축
냉담한	비극적인	슬픔	75	후회	낙담
선고하는	희망없는	무감정, 증오	50	절망	포기
보복하는	악	죄책감	30	비난	파괴
멸시하는	가증스러운	수치심	20	치욕	제거

수치심 · 죄책감 · 욕망 · 분노 · 자부심 내려놓고 용기 · 중립성 · 자발성 · 수용의 태도 가져야 붓다가 도달한 의식수준 700~1000에 이르러 200이하의 모든 태도 · 생각은 에너지 약화시켜

이 글은 '판미동' 에서 펴낸 〈의식 혁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가섭불은 까까머리"… 구업으로 부처님 6년 고행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49)

태사 아들 대만과 옹기장이 호의 이야기

가섭불 당시 이야기다. 옛날 다수읍에 어는 바라문이 있었다. 그는 왕의 태사로 나라 안에서 첫째였다. 그에게는 대만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용모가 수려했다. 그리고 호희라는 한 옹기장이가 있었다. 대만과는 어릴 적부터 친한 사이여서 마음으로 서로가 공경하며 생각하는 터였다. 옹기장이는 정진이 용맹스러웠고 인자하고 효성스러워 그의 부모가 모두 장님이었으나 공양에 모자람이 없었다. 옹기장이이기는 하였으나 일부러 땅을 파지 않았고 허물어진 담장이나 무너진 언덕의 흙만으로 그릇을 만들었다. 만약 그릇을 사겠다는 이가 있으면 보리, 깨, 콩 등의 곡식만 받고 그릇을 팔았으며, 애초부터 값을 흥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금과은, 재물과 비단들은 받도 않았고 곡식만을 가져다 공양할 뿐이었다.

가섭불께서 계신 정사는 다수읍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함께 하는 큰 비구는 2만 명이었으나 모두가 아라한이었다. 호희는 대만이게 말했다.

"함께 가섭불을 가 뵙자."

대만이 대답했다.

"그 도인을 보아서 무엇 하겠느냐? 그는 까까머리인 사람일뿐이다. 무슨 도가 있겠느냐?"

호의가 다시 말했다.

"부처님의 도는 얻기 어렵다."

호희는 대만이 뜻이 없어보이자 다시 대만에게 말했다.

"함께 물가로 가서 목욕이나 하자."

둘은 함께 물가로 가서 목욕을 하다가 호희가 멀리 가리키며 말했다.

"가섭불의 정사는 여기서 멀지 않다. 잠시 함께 가 뵙자."

대만은 대답했다.

"그를 봐서 무엇하겠느냐?"

그때 호희는 갑자기 대만의 옷자락을 붙잡아 끌었다. 그러자 대만은 옷을 벗어 버리고 도망가려했다. 호희는 도망가는 대만의 머리를 붙잡아 끌면서 말했다.

"함께 부처님을 뵈러 갔다 오자."

그 때의 풍속에 남의 머리를 붙잡는 것을 꺼려 목을 베는 법이 있었다. 대만은 놀라고 두려워 말했다.

"옹기장이야, 죽을 것을 알면서 내 머리를 붙잡느냐?"

호희는 말했다.

"나는 죽는다. 그러나 죽더라도 반드시 네가 부처님을 뵙게 하겠다."

대만이 생각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 사람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붙잡으니 말이다.'

대만이 말했다.

"나의 머리를 놓아라. 너를 따라가겠다."

머리를 고쳐 묶고 옷을 입고 함께 부처님을 찾아갔다. 그리고 호희는 말씀드렸다.

"여기 대만은 바로 저와는 어릴 적부터 친한 벗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처님의 법과 삼보를 알지 못하니 세존께서 깨우쳐 주십시오."

대만은 부처님의 상호를 보고서 생각했다.

'경서 기록에 실려 있는 상호가 모두 있으나 두 가지 일만이 없구나.'

이때 부처님께서는 이내 넓고 긴 혀를 내어 얼굴 위를 덮고 살상투를 덮고 두 귀를 일곱 번 스치면서 머리를 핥아 혀를 오므려 입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러자 광명이 나와 대천세계를 비추며 해와 달의 광명을 가리고 아가니타천까지 이른 뒤에 돌아와서 몸을 일곱 바퀴 돌고 정수리 위로 들어갔으며, 신족의 힘으로 음마장을 나타내어 대만 혼자만 보게 하고 다른 사람은 보지 않게 했다.

대만은 완전한 부처님의 서른두 가지 모습을 보고서 뛸 듯이 기뻐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부처



삽화 · 강병호

님께서는 대만을 위하여 보살이 공덕을 끊는 경우를 말씀하셨다.

"무엇이 보살의 공덕을 끊는 것인가? 몸으로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을 행하고, 입으로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하고, 뜻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을 생각하는, 이것이 보살로서의 세 가지 나쁜 행이다."

이에 대만은 나아가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말했다.

"제가 이제 참회하고 이제부터 다시는 그와 같은 행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대만의 참회를 받아주셨다. 대만과 호희는 함께 부처님께 예배하고 돌아갔다.

대만이 말했다.

"너야말로 어리석고 어리석다. 그토록 좋은 법을 알았으면서 어찌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나는 너의 얼굴조차 보기 싫고 너의 이름조차 듣기도 싫다."

호희가 말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대만이 대답했다.

"너는 일찍이 부처님으로부터 깊은 법을 들었으면서도 어째서 출가하지 않았느냐?"

호희는 대답했다.

"나의 부모님은 늙으셨고 게다가 모두 장님이시다. 양친을 공양하면서 어떻게 출가하겠느냐? 만약 내가 출가하면 부모님은 바로 돌아가실 것이다. 이 때문에 출가하지 못했을 뿐이다."

대만이 호희에게 말했다.

"나는 부처님으로부터 보살이 행하는 세 가지 나쁜 행을 들었다. 나는 이제 집에 있기가 싫구나. 나는 지금 부처님을 찾아가 출가하고자 한다."

호희는 말했다.

"장하다, 대만아. 생각하는 힘을 얻었느냐? 지금이야말로 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님 세상은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만은 이내 호희에게 합장하고 용서를 빌었다.

"내가 만일 몸과 입과 뜻으로 너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용서하여라. 너야말로 바르고 참된 큰 도를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대만은 구족계를 받고 비구가 되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대만이 지금의 나의 몸이요 대만의 아버지는 바로 지금의 부왕이시다. 호희는 자주 나의 출가를 권했으므로 도를 닦게 한 좋은 벗이었다. 내가 전생에 호희에게 나쁜 말로 '가섭불은 까까머리 사문이다.' 고 말했기 때문에 6년 동안을 하루에 한 톨의 깨와 한 낱의 쌀을 먹게 된 것이며, 콩과 팥도 그러했다."(〈흥기행경〉 하군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㊾



오래 걸린 참회

초등학교 동창회

오늘은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 날이었다. 부북국민학교 28회 동창들의 모임이다. 결성 된 지 얼마 안 된 동창회는 일 년에 두 번 모임을 갖고 있다. 오랜 만에 다시 동창들을 만나니 반가웠다.

우리가 학교에 다니던 그 시절에는 반이 한 반뿐이어서 한 교실에서 6년을 공부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동창생들은 각처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 직전 회장은 운송업으로 성공했으며, 하우스 농사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과수원을 하는 사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왔고 살고 있었다. 모두 큰 어려움 없이 노후를 맞고 있는 동창생들을 보니 다행스럽고 고마웠다. 그리고 동창생 중엔 운명을 달리한 동창들도 있었다.

전 회장은 선물로 준비해 온 책과 타올을 나눠주었다. 책은 칠순을 기념하여 만든 것으로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껴온 삶의 지침과 선인들의 글에서 귀감이 될 만한 글들을 모아 만든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부러운 마음과 축하의 마음으로 박수를 보냈다.

시골에 살고 있는 한 친구는 손수 도토리를 주워 모아 도토리묵을 만들어왔고, 또 한 친구는 손수 담군 매실차를 가져왔다. 과수원을 하는 친구는 배를 가져왔다. 훈훈한 인심을 나누면서 동창회를 만들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분위가 무르익자 동창들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기억이 나는 대로 꺼내기 시작했다. 몰랐던 누군가의 첫사랑 이야기 등 학교 다닐 때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나왔다. 우리들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 오랜만에 동심에 젖었다.

그때는 지금처럼 아이들이 놀 것이 별로 없었던 시절이었다. 여자 아이들은 운동장이나 골목에서 고무줄뛰기나 발로 돌을 차는 말차기 같은 놀이를 하고 놀았는데, 짓궂은 남자 아이들이 고무줄을 끊고 달아나기도 했고, 돌을 차고 여학생들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달아나기도 했다. 짓궂은 남자 아이들의 장난에 여자 아이들은 부끄러워 울곤 했었다. 이제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련한 추억이 되었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다.

나는 나보다 세 살 위의 오빠와 함께 학교에 다녔다. 나는 선배인 오빠에게 말해 장난치는 남자아이들을 혼내주곤 했다. 그러고 나면 아이들은 감히 나에겐 함부로 장난을 치지 못했다. 그때 그 친구들과 마주 앉아 그때 일을 이야기하니 세월이 새로웠다.

배려심이 깊고 인심 좋은 전 회장은 무상보시를 실천하는 보살이다. 모임 때마다 모든 경비를 혼자 책임지려 해서 동창들이 안 될 일이라며 말리곤 한다. 그러면 그때마다 회장은 "나는 작으나마 나의 수입에서 한 부분만은 우리 동창들에게 쓰기로 서원했으니 미안하게 생각 할 필요가 없다."했다. 불자로서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 없었다.

고등학교 교장을 지낸 지금의 회장은 "우리가 부모님의 뱃속에선 열 달 밖에 살지 않았지만 한 교실에서 6년을 함께 지낸 우리는 보통의 인연이 아니지 않느냐?"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여생동안 좀 더 열심히 만나고 사랑하는 모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만나는 이 순간만은 초등학생 그 시절로 돌아가 노래를 부르자며 '학교종이 땡땡땡', '나의 살던 고향은' 등 어릴 적 불렀던 동요를 함께 부르면서 눈물을 글썽거리기도 했다.

고향엔 그렇게 그립고 고마운 추억들이 있었다. 비록 모습은 할매 할배들이지만 어린 시절의 그 음성을 지금 이렇게 마주 앉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고맙기 그지 없었다.

우리는 내년 봄에 해인사로 나들이를 가기로 약속하고 동창회를 마무리 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나선 길에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었다. 그리 멀지 않은 동네여서 나는 동창회가 끝나고 과일 한 상자와 작은 성의를 준비하여 물어물어 그 집을 찾아 갔다. 대문을 들어섰을 때였다. 십대 중반에 보았던 그 소년은 팔순 노인이 되어 있었다.

60년 만에 만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몰라 볼 정도의 모습으로 변했지만 기억이 옛날을 기억해내자 우리는 두 손을 꼭 잡고 반가워했다. 정말 만나고 싶었고 보고 싶었던 사람이었다.

내가 어렸을 적에 철이 없어 마음을 상하게 했을 것 같아 한번은 꼭 용서를 빌고 싶었던 사람이다.

그때 농사를 꽤 크게 지었던 우리 집에는 집식구 외에 농사일을 돕는 어른 일꾼 두 사람과 열 살 정도의 아이 일꾼이 있었다.

나의 엄마는 오빠와 비슷한 그 아이를 자식 같이 생각했다. 그래서 엄마는 그 아이가 우리와 한 상에 밥을 먹게 했는데, 그때마다 나는 짜증을 내며 싫어했고 묻는 말에 대답도 잘 하지 않았고 눈을 흘기고 입도 삐쭉거리곤 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다. 그랬던 일들이 나이가 들어 철이 들고 인과를 알게 되면서부터 후회했고, 마음속으로 참회하며 살았다.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만나 사과를 하고 싶었고 우리 집 일을 도와준 고마움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었는데, 오늘에야 만나게 되었다. 나는 어렵게 입을 뗐다. "그때는 내가 어리고 철이 없어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마음 상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무슨 그런 말을…." 하면서 "찾아주어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큰 걱정은 없어 보여 마음이 놓였다. 다음 봄에 부산에 꼭 한번 다녀가 달라고 부탁을 하고 돌아왔다. 그래도 그 동안 내가 지었던 과오가 하루아침에 말끔히 지워지지 않아 마음 한쪽이 여전히 묵직했다.

그래도 오늘, 나는 내게 스스로 칭찬하고 싶다. 그토록 미안한 마음을 전해야 했던 사람을 찾아 용서를 빌었으니 금생의 작은 숙제를 해낸 것 만 같다. 오늘은 참 좋은 날, 보람 있는 날이었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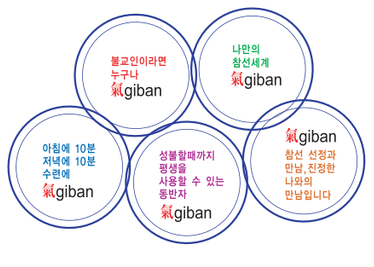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대행 스님

무슨 일이든 서슴지 말고 맡겨놓고 실험하고 참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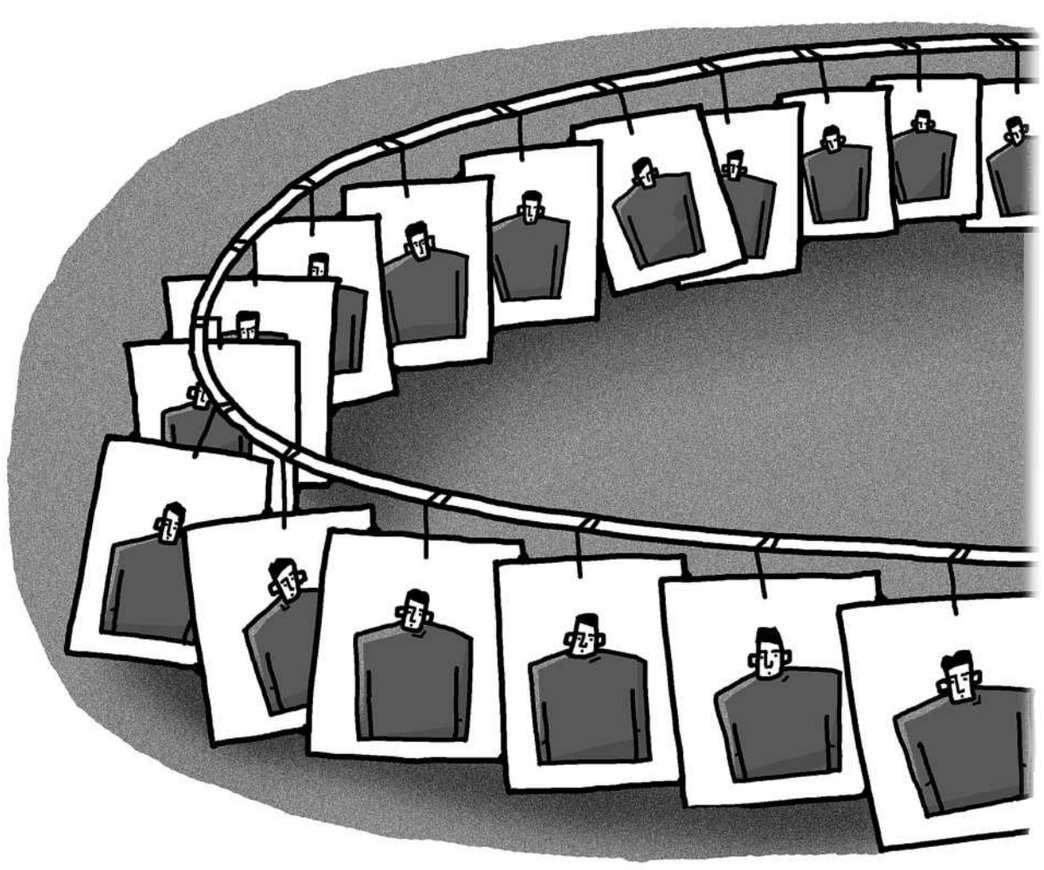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과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 항상 한마음으로 행하시길 빌면서…, 즐겁습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저물어 가는 듯합니다. 우리가 배급을 탈 때 연방 돌아가서 뒤에 서고 또 서고 하는 거와 같이, 사람 사는 도리도 역시 그러합니다. 지구의 끝을 찾으려고 계속 가니까 처음 자기가 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더라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가 죽는다 하는 것도 아주 죽는 게 아니라 그 재료로 인해서 다시 형성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천당 지옥이 따로 숨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죽으면 사흘 이내로, 다시 어떠한 모습으로 형성되게끔 임신이 되는데, 사람에게만 임신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주어집니다.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짐승의 모습으로 옷을 입었다고 할 때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 봐도 짐승의 소리로만 듣지 사람의 소리로는 안 듣습니다. 그럴 때 슬픔이라는 것은 말도 못 합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나든지 그것은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는 것이죠.

이렇게 철두철미하니 이 마음공부를 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말하자면 아까가 과거고 어저께가 과거고, 이 시간 후가 미래니까 내일도 미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생각을 잘하는 대로, 행동을 잘하는 대로, 말을 잘하는 대로 내일이 주어집니다.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고통 속에서 헤맨다 하더라도 그 긍지만은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 그 자체의 근본 핵심을 잊지 말아야 하고 물러서서는 아니 되지요. 어떤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맷돌에 심봉을 꼭 끼워 놓고 있으면 어떠한 물건이든지 거기 들어가서 갈려 나옵니다. 용광로에다 넣으면 어떠한 것이든지 다 재생이 돼서 나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불바퀴와도 같고 용광로와도 같고 자가발전소와도 같습니다. 그 세 가지가 포함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장하다, 어떤 게 틀리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귀중하다고 하는 말을 항상 해 드렸습니다. 즉 말하자면, 내 마음 자체가 그대로 이 세상 돌아가는 데에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생각 한 번, 행동 한 번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자체가 말은 간단하지만 행은 간단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아주 단호히, 행도 생활 속에서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종교고 불법이고 부처님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했다 하면 법신(法身)입니다. 그리고 몸을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化身)입니다. 조금도 어긋나지 않고 그냥 찰나찰나 화(化)해서 돌아가면서 자동적으로 그냥 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을 걱정 않고, 지나간 일도 걱정 않고, 지금 현재 생각을 잘하는 분에게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를 자기가 못 믿어요, 왜 못 믿는지….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와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어졌다.' 고 철저하게 생각을 안 하십니다. 자기로부터 세상이 벌어진 거고 자기로부터 종교가 생긴 거고 자기로부터 찰나찰나 돌아가는 그 모든 생활이 주어진 거지, 남이 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생각을 잘해서 잘 꾸려 나가는 그런 능력이, 심력이 자기로부터 그대로 주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수화풍이 없으면 그냥 죽습니다. 우리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수화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광력이나 자력, 또는 전력, 통신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갖춰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생각에 의해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데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심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중에는 병고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회사를 하다가 망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상업을 하다가 망해서 오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장사를 할 때는 육안으로나 심안으로나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종합해서 잘 챙겨 봐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며 거기에 맞는 어떠한 장사를 해야 좋겠느냐, 또 이자를 갚아야 하는 남의 돈을 얻어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남는다 하더라도 남의 돈으로만 시작을 한다면 이것저것 갚고 나면 본전이 밑져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안되죠? 또 한 가지는 장소 문제입니다. 그 물건하고 장소하고 맞춰야 하는데 사람이 얼마만큼 쓸 수 있는 자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잘 보라고 해서 눈, 귀, 육근(六根)이 모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육경(六境)과 육식(六識)을 다 종합해서 가지고 있으니만큼 그것을 잘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겉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잘 잡아 놓고, 마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인은 바로 너밖에 없다.' 하고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겨 놓는 이 도리가 그대로 참선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대로 중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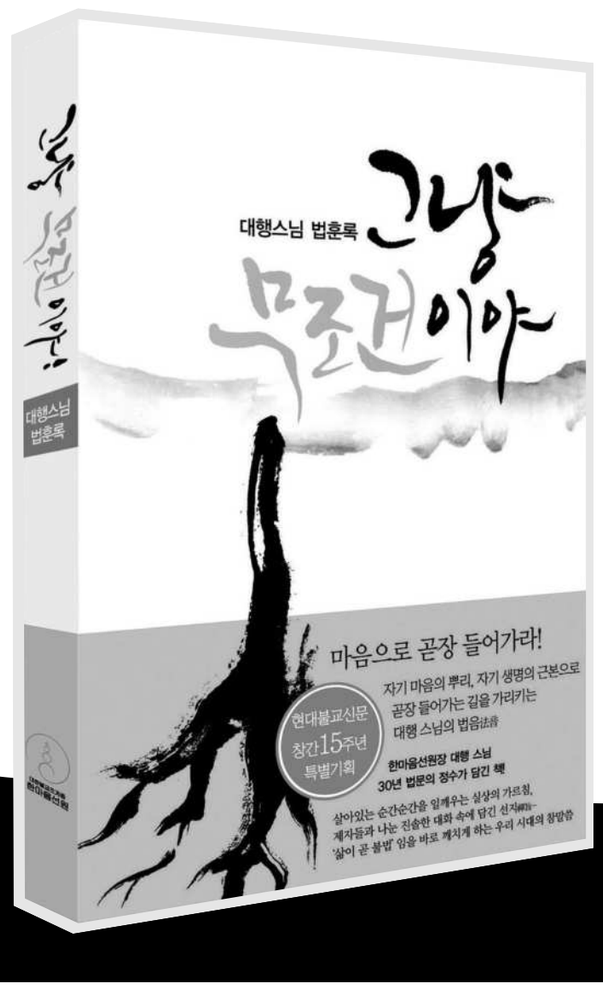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또 지금 시작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망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다시 편안하게 할 수 있겠느냐? 누구든지 첫째, 내 마음을 안정시켜야만이 그것이 참선이자 좌선입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마음조차 편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몸속에 들은 의식들이 다 편안치 못합니다. 수십억의 의식들이 말입니다. 내 마음 쓰는 대로 몸속에 들어 있는 의식들은 따라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병을 가져오고, 망하게 되면 그냥 물질만 망하는 게 아니라 몸까지도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캠핑 나왔는데, 다 무너지고 도둑을 맞고 걸머진 거를 다 집어 갔어도 산 입에 거미줄 치지 않는다는 법이 있죠. 믿음이 진실하고 넉넉하다면 그걸 다 잊어버리고도 '허허' 웃을 수 있습니다. '허허' 웃을 수 있어야, 웃을 수 있게끔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아등바등하고, '이건 다 넘어갔으니까 다 죽었다.' 하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생각하는 대로 몸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는 대로 가정이 불안하고, 헤어지게 되고 정말 죽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묘한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가난하다 못해 병원에 가서 진찰할 돈도 없었더랍니다. 그런데 배 속의 애는 바로 선 것 같지를 않고 그래서, 하루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내 마음의 주인, 그 근본 핵심만은 잊지 말아야

☞ 29면에서 계속

는 돈을 빌려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 보니까 어린애가 거꾸로 있다고 그러더랍니다. 거꾸로 있다고 그러는데, 돈을 빌릴 데도 없고 아주 막막했더랍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듣고 여기를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도리를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마음이 편안하게 되면서 마음에다가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나와 너와 둘이 아니요, 모두가 한마음인데 지금 돈도 없고 생활도 어렵고 그런데다가 또 너까지 거꾸로서서 이렇게 힘들면 너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몸과 몸이 다 불편하니까 너 알아서 해.' 하고선 막 그냥 사정하다시피 그렇게 맡겨 버렸더랍니다.

그랬는데 한 서너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스럽게 꿈틀거리더랍니다. 그러더니 정말 낳을 때 가서 보니까 바로 섰더랍니다. 어린애가 알아들은 거죠. 이렇게 마음의 도리는 꽃나무거나 무정물, 생물이 모두 내가 말하는 대로 알아듣게 돼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알아듣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집안에서 기르는 고양이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다 뜻으로는 알아듣습니다. 자기 혼자는 못 알아듣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리로 가기 때문에 알아듣는 겁니다. 알아들으니까 그 모두가 연결이 되죠.

또 이런 분도 있었죠. 딸 셋을 낳고 아들을 못 낳아서 애를 쓰다가 하도 시부모한테도 들볶이고 모두에게 들볶이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서, 개한테 밥을 주면서 하소연을 했더랍니다. "아이고, 너는 새끼를 아들을 낳았는데 나는 아들을 못 낳아서 집안에서 모두 내쫓느니 안 내쫓느니 들이쫓느니 하니 어떡하면 좋으냐. 너는 나를 도와줄 수 없니?" 하고 밥을 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날 저녁에 말입니다, 그 개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죽었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죽었나?' 생각을 하면서, 이 마음공부를 대충해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이상하다.' 했는데 그 달부터 어린애가 있어서 낳은 게 아들이었답니다. 이렇게 하다못해 날아다니는 새들이나 동물들도 자기 몸을 버려서까지 인정을 베푸는데 어떻게 사람으로서 마음의 도리를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마 대사가 사람들 다니는 길에 구렁이가 있어서…, 예전에는 요런 소로 길이고, 그냥 망망한 길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한자리에 가서 그냥 틀고 앉았으니까 도저히 사람들이 지나가지를 못하더랍니다. 그걸 보신 달마 대사는 자기가 구렁이가 돼서…, 내가 그랬죠? 물 한 방울에 물 한 방울을 넣어도 물 한 방울이지 두 방울이 아니라고. 구렁이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끌고 가서 다른 데다가 갖다 놓고 오니까 자기 몸이 바뀌었더라 이겁니다, 이제. 그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입니다. 달마 대사가 어디가 모자라서 자기의 몸, 집을 뺏기고 딴 집에 들어갔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란 그 자체가 어느 몸 하나도 자기 몸 아니 되는 게 없는데 구태여 왜 자기 몸을 뺏기고 딴 사람, 도둑놈의 몸을 빌려서 거길 들어갔다고 했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듣지 마세요. 자유자재권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즉 부처로, 법신으로, 화신으로 이렇게 나투시는 분이기 때문에 금방 구렁이가 됐다, 금방 사람이 됐다, 금방 짐승이 됐다, 금방 새가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편을 쓰신 거죠. 그런데 그건 방편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갑니다, 모두. 그런데 그것을 얘기로만 들으니까 그게 가늠이 되지 않죠.

그렇듯이 개의 마음에도 그 부인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그냥 그 마음에 마음이 같이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개는 개대로 모습을 벗고 사람이 되니 인도환생을 했고, 이 사람은 아들을 얻었으니 좋고, 이거는 양면이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이 마음공부를 하시게 되면 나무의 애틋함도 알 수 있을 거고, 사람들이 애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도 알 수 있을 거고, 날아다니는 새들이 왜 저렇게 지저귀는지 알 수도 있을 겁니다. 개미 소굴에서 개미들이 왜 저렇게 들끓으며 가는지도 알 수 있을 거고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개구리가 개구리 알을 끌고 쭉 기어 올라가요. 그래 '저게 왜 그러나?' 그러고 그냥 물끄러미 보기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끌고 간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그냥 난데없는 소나기가 그 일대를 다 휩쓸었습니다. 하다못해 개구리도 비 올 거를 알고 제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끌고 가서 올려다 놓는데, 하다못해 옥수수도 그 해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 걸 미리 알고 뿌리를 넓게 잡아서 쓰러지지 않게 자기 몸을 딱 세우는데, 하물며 사람이 내일 일을 생각 안 하고 오늘 덤벙대고 그냥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날아다니는 새들도 때에 따라서는 남의 집 얘기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이, 저 집은 너무 마음이 가난해서 생기는 게 없어." 하고 새들이 안타까워서 지저귀고 이러지만, 그 사람들은 그 소리를 새소리로만 듣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만 그 모든 것을 서로 통신할 수 있는 한마음이 될 수 있을까? 항상 얘기를 했지만, 공생(共生)·공용(共用)·공체(共體)·공식화(共食化) 하고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태양열을 끌어 쓰듯이,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우리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어떠한 거든지 끌어 쓸 수가 있는 그런 재료가 여러분 앞에 다 주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에 어떤 병이 들어도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 이 네 가지로써 치료도 할 수 있고, 바깥 경계의 모든 것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말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실천을 하시라고 실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실천하시라.

믿음이 진실하고 넉넉하다면
어떠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허허 웃을 수 있습니다.
허허 웃을 수 있어야
웃을 수 있게끔 다시 돌아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실천하면서 자유스럽게 살려면 나부터 알아야, 나의 직결되고 가설된 이 근본부터 알아야 그 줄을 붙잡고 모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의 근본자리는 보이지도 않고 빛깔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허공은 안 그렇습니까? 잡히지도 않고 빛깔도 없지만 허공은 있듯이, 마음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지만 역력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움죽거리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달마 대사처럼, 유마힐 거사처럼 그렇게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은…, 유마힐 거사가 머리를 안 깎으려고 깎지 않은 게 아닙니다. '머리 깎았든 안 깎았든 이 공부는 할 수 있다' 는 그 표현이고,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 부처님과 유마힐 거사가 동일한 시대에 동등하게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해 볼 바가 있지 않습니까? "중생이 다 나아야 내 병이 낫겠다."고 한 것도 여러분한테 공부를 가르치기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몸뚱이 속에 있는 그 모든 생명들이 건강하지 않다면 여러분 몸뚱이가 어떻게 건강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천을 하는 공부, 즉 말하자면 어떠한 거든지 재료로 삼고, 모든 것을 거기에 일임하면서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너밖에 해결할 수 없다.' 고 하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어떠한 용도든지 서슴지 말고 거기에 맡겨 놓고 그것을 실험하고 참구하라. 이것이 바로 미래를 살리는 길입니다. 과거는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공(空)해서 화해서 돌아가는,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가는 이 이치를 모르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나한테 재료가 주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몰라서도 아니 됩니다. 각자에게 마음의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도 아니 됩니다. 늙었든 젊었든, 옷 갈아입듯이 우리는 되돌아가서 옷을 갈아입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것뿐이지 무슨 지옥이 따로 있어서 데려다 가둬 놓는 것도 아니요, 천당이 있어서 데려다가 그 천당에서 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유스럽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자유대권을 가질 때 바로 자유인이요,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리고 천당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 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지게 되죠. 자기의 기술대로 모든 사람들이 살듯이 말입니다. 탈렌트들이 나와서 배역을 맡을 때도 자기의 재능대로 배역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가난하게 쓰고 행동을 가난하게 하고, 또는 가난하고 속 좁게 말을 해서 넓게 살지 못한다면, 이 마음은 체가 없어서 그냥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찰나에 둘러볼 수도 있을 것을, 그냥 온통 가난하게 써서 (컵을 가리키시며) 요 독 안에서 나가질 못하죠. 마음이 내 몸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더 세상을 가난하게 사셔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넓게, 나 아님이 없이,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다, 하나로 굴려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심봉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 심봉 자체가 된다면 돌아가는 이치를 다 그 능력으로써 보필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그래서 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이런 거는 시시해서요, 그런 이론적인 거를 말하고 싶질 않아요. 지금 현실에 중요한 것은 실천이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팔만대장경을 꿰뚫어 안다 하더라도 그건 실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의 발자국 딛고서 흉내 내는 거와 같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한 발 딛고 한 발 옮겨 보는 것, 그것이 아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채 물리가 터지질 못하고 넓질 못해서 내 마음이 내 몸 안에서, 마음 안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항상 애고에, 병고에, 유전성 또는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해 가지고는 쩔쩔쩔쩔 매고, 그냥 아무리 말을 해 드려도 그게 실천이 안되고, 아무리 말을 해드려도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많은가 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나나 사는 데까지 살다가…, 사는 날까진 틀림없이 살겠죠. 허허허…, 살다가 몸을 바꿀 때는 딴 모습으로 딴 집에 또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뀌어서 태어나는 건 좋은데 한 가정에 다섯 식구든 여섯 식구든 모인다 하더라도 은이면 은끼리 모일 거고…,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얘기하죠. 금이 금방으로 가지 무쇠전으로 가는 법이 없다. 금은 금끼리 모이고 무쇠는 무쇠끼리 모인다. 자연 인과로 인해서, 천 리를 가도 다시 그렇게 모이게끔 돼 있습니다. 한 가정이 깡통 가정이든, 금 가정이든, 무쇠 가정이든 그렇게 차원대로, 모두가 자기가 지은 대로 모입니다. 왜,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정치범들끼리 가두죠? 또 강도는 강도끼리 가두죠? 사기 치는 사람들은 사기죄로다가 사기범들끼리 가두죠? 그렇게 아주 끼리끼리 모아서 가두죠. 그렇듯이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세상 물질은 다 끼리끼리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삽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내가 망했느니, 네가 잘못해서 내가 요 꼴 요 모양이야." 하고 한 가정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끼리끼리니까요. 보는 놈도 그놈이요, 그렇게 당하는 놈도 그놈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도 원망할 데가 없습니다. 제가끔들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마음을 금으로 만들어야죠.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는 막말을 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하고 주먹으로 그냥 식구 볼탱이를 쥐어지르는가 하면, 자식들이 잘못돼도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곤 그냥 나쁜 거는 온통 부인한테로 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한 놈도 그렇게 인과로써 오는 업보가 있죠.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2년 12월 6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는 참으면 병이 되고, 터뜨리면 죄가 되지만, 알아차리면 사라집니다."

인생을 건너가는 지혜를 주는 마가 스님의 '마음 수업'
'자비로워지는 것'이 왜 궁극의
치유가 되는지를 전하는 성찰의 언어





최일도 목사, 김영택 신부, 권도갑 교무 추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연합뉴스 등
언론에서 집중 보도한 화제의 책!

마가 글
256쪽
13,000원

마가 스님 아버지가 남긴 상처를 딛고 일어선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웃음과 따뜻한 말을 되찾아주는 힐링 멘토가 되었다. "마주한 이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궁극의 치유"라고 말하는 스님은 전국의 기업, 학교, 사찰, 관공서를 돌며 자비 명상 보급에 힘쓰고 있다. 중앙대학교에서는 1초 만에 수강신청이 마감되는 최고 인기 강의 〈내 마음 바로 보기〉 수업을 이끌었으며, 최일도 목사, 김영택 신부, 권도갑 교무와 함께 희망이 되는 종교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자비명상 대표, 한국마음치유협회 회장, 동국대학교 정각원 교법사를 맡고 있다.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사랑, 관계, 돈, 욕망에 대해
붓다는 어떤 말을 했을까?

세속적인 시대에
더욱 빛나는
붓다의 카운슬링

7년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에
같이 읽고 함께 공감한
초기경전 속 생활의 지혜



|초기경전에서 찾은 삶의 힌트|
붓다 한 말씀
이미령 지음 | 248쪽 | 13,000원

이미령
1964년 강원도 비닷가에서 태어났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불교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고故 고익진 교수의 법회에 참여한 인연으로 지금까지 경전을 읽는 행복한 삶을 살아오고 있으며, 경전 읽기의 즐거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경전 관련 강의와 칼럼 집필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07년 행원문화재단 행원문화상(백경 분야)을 수상했다. 현재 불광교육원에서 전임강사를 맡고 있으며, 불교계 신문과 잡지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그동안 BBS 〈무명을 밝히고-보타살타의 서재〉, Y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을 진행하는 등 북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불자 세상보기

문화재의 부실복원과 대한민국



강우방
일향 한국미술사연구원장

일찍이 젊은 시절부터 경주박물관에서 신라문화를 연구하여 왔던 나는, 자연히 지방의 역사유적이나 문화재가 어떻게 훼손하여 가는지 목격하여 왔다. 예컨대 감은사 터 전체가 온통 뒤집히는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고 고함 쳐서 인부들을 물리친 일이 있었다. 또 하나의 예는 경주 분지의 서쪽 산인 선도산(仙桃山)의 낙조는 유명한 경주 팔경(八景) 가운데 하나인데, 어느 날 바라보니 그 아름다운 산 중턱에 벌건 흙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알아보니 문화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계명대학교에서 거대한 규모의 대학병원을 짓는다는 것이었다.

급히 절대반대 의견을 신문에 강력하게 써서 저지시킨 적이 있다. 또 10년 전에 석굴암과 불국사, 문화재청과 관련 어용학자들이 담합하여 석굴암 복제를 현 석굴암 바로 밑 100미터 지점에 세우려는 작업이 다 이루어져서 기공식을 거행한다는 기사를 읽고 놀라 반대의견을 신문에 기고한지 1년 만에 저지시킨 적이 있다. 이미 오래 전의 일들이고 내가 관련한 것만 그러하니 우리가 모르고 진행되고 있는 부실공사는 그 얼마나 많을 것일까??

그런데 경제가 계속 성장하며 동시에 문화에 정치바람이 불면서 이른 바 문화유산 복원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불교미술은 특정 종교의 문화가 아니라 한국문화의 총체이다. 물론 올바로 이루어지는 불사도 있겠지만 여러 지역의 고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불사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복원이 아니라 파괴였다. 기둥이야 바로 세우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단청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등한시하는 것이 바로 단청이다. 요즈음 정치적 입지에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숭례문의 복원인데 그 부실공사는 바로 눈에 금방 띠는 '들뜨고 있는 단청'에서 입증되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은 부분은 오죽하겠으며, 국보 제1호라하여 관심이 가장 큰 문화재의 복원인데, 하물며 지방의 문화재 복원은 오죽하겠는가! 숭례문은 이미 문화적 생명이 다한 복제이지 복원도 아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문화재의 부실공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예컨대 선운사 참당암 대웅전(禪雲寺 懺堂庵 大雄殿)은 보물 803호로 유명한 사찰규모의 암자이다. 두 해 전에 그 건축을 조사하러 갔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단청을 새로 했는데 아마도 단청을 처음 해보는 무지한 사람의 솜씨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담함을 느껴, 종무소에 스님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놈이 단청했는가!' 하고 소리친 적이 있다.

물론 총체적 부실공사지만 이 글에서는 단청만을 예를 든 것뿐이다. 그러면 어떤 해법이 있는가? 우선 문화재청의 정책 부재이다. 아무리 지방이라 해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문화재청의 직원들의 소양교육을 철저히 실행해야 문화정책을 올바로 세울 수 있다.

그리고 문화재전문위원들과 문화재위원들이 청렴결백해야 한다. 가장 심각한 것은 단청만 하더라도 올바른 단청장(丹靑匠) 한 사람이 없으며 가르칠 장인도 한 사람 없다는 것이다.

즉 각 분야의 장인들의 양성이 필요한데 그러한 학교가 없다. 부여의 한국전통문화학교 같은 것을 과감히 개혁하여 지금이라도 그런 특성이 있는 학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런데 전승해 줄 올바른 스승이 거의 없다는 것이 더 큰 비극이며 학문적으로 가르칠 교수도 드물다.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의 총체적 부실은 문화유산의 총체적 부실공사로 이어진다. 문화가 허물어지면 대한민국의 경제도 허물어진다는 진리를 모르는가?

요즈음 경주에서 월정교(月精橋) 복원이 한창이다. 고증 없이 기본구조가 결여된 괴물 같은 신라시대 다리의 복원이다. 또 거액을 들여 불가능한 황룡사 복원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전국적인 부실공사를 바로잡을 예산도 부족하고 더구나 고증자료도 거의 없는데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황룡사 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 사업은 2025년까지 사업비 2900억원이 투자되는 대단위 프로젝트 사업이다.

대선공약사업이라고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 130억원을 들여 황룡사 연구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끌어갈 연구원들이 있기는 한가. 복원공사에 참여할 건축설계사무소들이 많은데 그 사무실 직원들과 어용학자들이 점령하여 부실공사 될 것이 뻔하다. 역사상 한 번도 올바로 보존하거나 복제하거나 복원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문화유산 부실공사는 원전의 부실공사와 같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문화유산 부실공사를 유도한 공무원이나 학자들 대부분 가운데 누가 엄격히 지적하고 공과를 따질 것인가? 원전비리(原電非理)와 같은 문화비리(文化非理)라면 엄격히 정부조직 구조의 총체적 범죄를 철저히 물어야 한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범계불감증, 대책은

다시 불교계가 스님들의 범계 행위로 시끄럽다. 종단이 지은 대규모 연수시설에 공공연하게 술자리를 가졌다. 이들 중에는 조계종 지도층인 중앙종회의원이 3명이 포함돼 물의를 빚고 있다. 잇달은 범계행위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불자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대책을 들었다. 〈편집자 주〉

엄중한 처벌과 계율 현대화 필요



이도흠
한양대 교수

연이은 범계행위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백양사 도박사건에 대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느낌이다.

이 같은 범계행위가 계속 벌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체제와 디지털사회로 이행하여 욕망을 과잉으로 추구하는 사회 탓이다. 승가도 재가도 스스로를 기반하고 있는 사회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불교 내의 감시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계율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내 안의 부처님, 집단의 시선, 처벌인데 지금 한국불교에서는 세 가지가 모두 무너졌다.

아무리 중대한 범계행위를 해도 언론에만 노출되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고, 집단의 시선이 외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쪽으로 작동하고, 내 안의 부처님은 이미 오래 전에 떠나셨다.

계율과 현대사회의 상황이 어긋나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계율과 청규, 종헌 종법이 워낙 방대해 실질적 실천을 이룰 수 있도록 계율을 현대화해야 한다.

또한 처벌이 공정하고 엄정해질 필요도 있다. 청규를 10번, 20번 만들어보았자 엄중한 처벌이 병행되지 않으면 종잇장에 지나지 않는다.

지도층 승려부터 일벌백계하고, 계율을 현대화하고, 집단의 시선이 계율을 지키는 쪽으로 전환하도록 승풍을 진작하는 문화운동이 있어야 한다. 재가불자들도 범계 행위를 한 승려에게는 공양을 바치지 않는 주체적 결단을 해야 한다.

지킬 수 있는 청규를 제정해야



이자랑
동국대 HK교수

지난 도박사건을 비롯해 최근 잇달은 음주사건은 모두 지계의식이 부족해 발생한 것이다. 스님이 출가를 한 후에 수행에 대한 교육은 받지만 계율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교육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왜 계율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이 생겨나기 어렵다.

율장을 2500년 전 인도사회에서만 필요한 법이라고 여겨서는 안된다. 율장의 주요 골자는 승단의 질서를 위해, 악행을 멈추고 참회하게 해 수행을 지속하게 하기 위함이다.

현재 조계종 종도들에게 작용하는 계율 시스템은 사분율, 범망계, 청규, 종헌 · 종법이다. 이들은 서로에 대한 모순을 가지고 있고, 그 양도 방대해 이들을 전부 실천하고 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된 시스템 안에서의 현대적 청규 제정은 필요하다.

현대적 청규 제정에 있어서 율장정신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사회와의 조화다. 일반인들의 가치관과 상식을 반영해야 한다. 일반인 시각에 근거해, 불자들의 신심을 증장시킬 방향으로 가야 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상식 안에서 서로 지킬 수 있는 수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청규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청규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지킬 수 있는 규범이 돼야 한다. 안 지켜도 그만인 청규와 법은 무용지물이다. 만들어진 규범과 제도를 꼭 지켜야한다는 의식과 이를 어겼을 경우 확실한 체벌이 이뤄져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社說

지계 회복과 청규 제정 서둘러야

잊고 있던 상처가 다시 떠오른다. 이번에는 음주가 문제가 됐다. 최근 중앙 일간지는 단독으로 조계종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벌어진 스님들의 술자리를 고발했다. 이 중에는 중앙종회의원 3명이 포함돼 있었다. 최근에는 다른 중앙종회의원이 조계사 인근 포장마차에서 여성과 술자리를 가져 공개참회를 하기도 했으며, 여직원 성추행 발언으로 스스로 보직을 내려놓은 스님도 있었다. 약 한달 사이에만 불교계 지도층 인사인 중앙종회의원 5명이 범계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불교가 전반적으로 범계불감증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2012년 백양사 도박 사건으로 종단이 일대 홍역을 겪었고 이로인해 자성과 쇄신 결사를 천명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세간의 힐난에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계율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계를 경시하는 듯한 분위기가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제도와 스님 자신 안의 감시체계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진단도 나왔다.

이제라도 시급히 생각해봐야 할 과제는 시대에 맞는 청규 제정이다. 이미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에서 청규에 대한 최종본을 내놨지만, 공포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이제라도 지킬 수 있고, 지켜야만 하는 청규 제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청규 제정을 통해 계율을 현재적 상황에 맞게 구성하고 불교 윤리를 정착해 우리 모두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작업도 함께 이뤄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스님뿐만 아니라 재가불자에게도 삶을 제대로 영위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적지 않는 전문가들은 빠른 변화가 없다면 이 같은 범계행위에 대한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시대에 맞는 청규 제정이 시급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 행복 위한 힐링 투어 '스타트'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심리학의 전문용어인 '힐링(healing)' 이란 단어로 점령당하고 있다. '힐링' 바람은 광고, 문화센터, 뮤지컬, 음식, 여행 업계 등 각 분야에서 중심 마케팅 키워드로 떠올랐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내세웠던 웰빙과 휴(休) 바람을 뛰어 넘어 참으로 거센 바람이다.

학업 스트레스가 심한 중 · 고등학생, 취업난에 시달리는 구직자, 만성피로에 찌든 직장인, 은퇴를 눈앞에 둔 베이비 부머까지 그야말로 전 세대가 피곤과 스트레스에 허덕이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모든 세대에게 '마음의 위로' 가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다.

요즘 불경기에 심신이 지친 고객들을 대상으로 잠시나마 마음의 휴식과 위안을 주고자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인 '힐링캠프' 프로그램이 인기라고 한다. 인생, 가족, 관계, 미래 등을 주제로 주요 연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 불교계에서도 국민행복 힐링투어가 시작돼 화제다. 형식은 비슷한 것 같다. 이번 힐링투어에는 표교원장 지원 스님이 국민 힐링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직접 콘서트에 나서 4무량심을 주제로 강의도 하고 스트레스 비만 해소와 에너지 생성 건강법을 위한 3분 명상도 진행한다. 또한 행복명상 전문가인 마가 스님도 일반인들이 쉽게 따라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음악 감상도 이번 힐링 투어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다. 세계적인 공연장인 뉴욕 카네기홀 무대에 선 경험이 있는 소프라노 정행 스님이 '힐링 음악' 을 선사한다. 한마디로 집약해 명상과 법문, 음악 등이 이번 힐링 투어 콘서트의 주요 프로그램이다. 첫 투어에는 4백여명 정도가 참가했다. 적지 않은 숫자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힐링을 갈망하는 이들이 많다는 증거다. 우리 불교는 힐링을 위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장점을 적극 활용해 앞으로 온 국민에게 힐링투어 열풍을 일으키길 기대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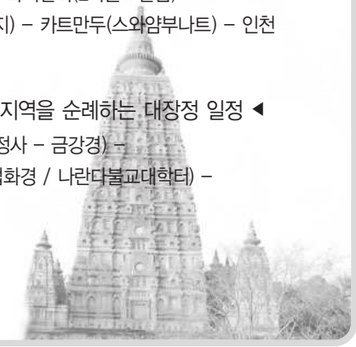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 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첫 설법을 하신 곳, 佛 · 法 · 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 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 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 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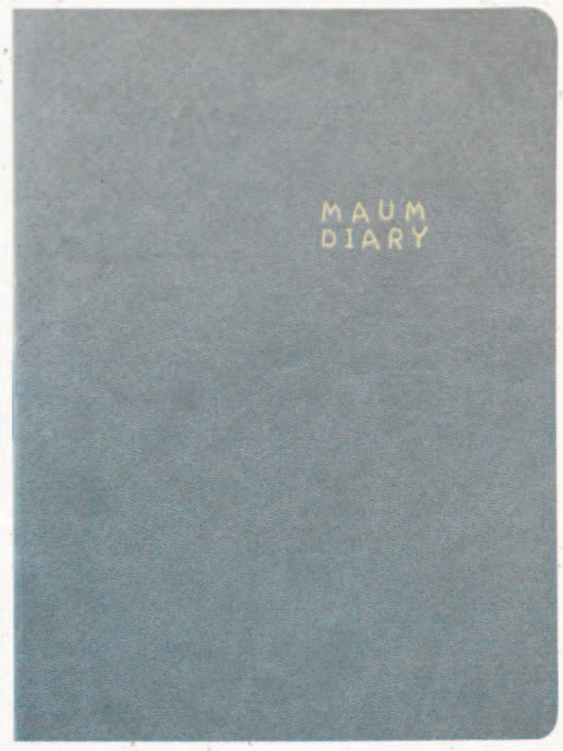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곤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

대행큰스님 말씀과
어린이들의 그림이 함께하는

2014 마음 다이어리

2014 마음 다이어리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있어요

1
하루 하루의
지침이 되어주는
스님의 말씀



2
새싹 같은
마음으로 담아낸
아이들의 그림

3
늘 지니고 다니는
뜻으로 푼
경전의 소중함

4
날짜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free note!!!

구입처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각 지원 종무소
현대불교신문사 현불샵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